

2010년 구봉초등 3학년 2반

교실이야기

<1학기 글모음>

글쓴이 이정호

3월 30일

고무책가방

과학 시간이었다. 여러 가지 물질로 새로운 물체를 만들어 보는 공부를 했다. 이미 쓰고 있는 물질보다는 지금까지 쓰지 않은 물질로 어떤 물체를 만들지 생각해보고 그림도 그리고 또 그 물질로 물체를 만들었을 때 좋은 점을 쓰는 공부였다.

먼저 생각 나누기 시간을 가졌다. 여러 아이들이 발표하였다. 쇠로 방석을 만들면 튼튼할 거라는 의견, 유리로 집을 만들면 겨울에 춥지 않을 거라는 의견, 플라스틱으로 자전거를 만들면 가벼울 거라는 의견, 이것 말고도 의견이 많이 나왔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귀를 즐겁게 만든 건 찬기가 낸 의견이었다.

“고무로 책가방을 만들면 책이 들어가지 않을 때 늘여서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찬기 생각이 기발하다고 여겼던 모양이었다. 나도 가방에 책을 다 못 넣어서 따로 들고 가던 아이들 모습을 떠올렸다.

찬기 발표를 듣더니 수업 진행이 쉽게 되었다. 질문도 줄어들고 자기 생각도 쉽게 써내려갔다. 찬기 의견이 어려운 수업을 쉽게 이끌었다.

아이들 의견 모두가 소중한 것이었지만 찬기 생각이 조금 더 빛난 과학시간이었다.

3월 31일

정훈이

쓰기 시간이었다. 정훈이가 교실 바닥에 멍하니 앉아있었다. 처음엔 책상 안과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무얼 찾는 듯 하더니 원하는 걸 찾지 못했는지 죽치고 앉아있기만 했다. 더 애써서 찾고 싶은 생각도, 의자에 올라올 마음도 없는 것 같았다. 이런 행동을 며칠 째 되풀이하고 있다.

"여기 앉아서 뭐하노. 공부도 안 하고!"

다가가서 야단쳤더니 모기만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연필이 없어서요."

어이가 없었다. 며칠 전에도 연필이 없다고 해서 두 자루나 구해주었기 때문이다.

"그저께 준 연필은 우쥔노?"

"잃어버렸는데요."

속으로 한숨이 나왔다. 이 아이는 언제쯤이면 자기 물건 하나 제대로 챙길 수 있을까.

"어서 자리에 앉아라."

"....."

화난 내 눈치를 보고서야 정훈이는 자리에 앉았다. 정훈이가 삼 학년 노릇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다시 수업을 하는데 동협이가 물었다.

"저, 선생님. 제가 안 쓰는 연필 정훈이한테 하나 줄까요?"

그러라고 했다.

동협이가 필통에서 연필 하나를 꺼내 정훈이에게 건넸다. 그런 동협이를 보니 화났던 마음이 조금 풀렸다.

4월 2일

정훈이 새 실내화

삼월 한 달 내내 정훈이에게 했던 잔소리가 있다.

“실내화 좀 신고 다녀라.”

그 때마다 가져온다고 대답은 하지만 다음 날 보면 또 마찬가지로였다.

“할머니한테 사 달라고 했나 안 했나?”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헛바퀴 돌리는 말만 한 달 동안 주고받았다. 말했는데도 할머니가 안 사준 건지, 집에 있는데도 잊고 안 가져온 건지 알 수 없었다.

올 봄은 유달리 춥다. 실내화를 신어도 발이 시리다. 교실은 나무 바닥이어서 그럭저럭 견딜 만하다. 하지만 급식소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다. 화장실은 타일 바닥인데다 물기도 있어서 차갑고 불편하다. 그런데도 정훈이는 실내화 없이 한 달을 지냈다.

할 수 없이 어제 저녁에 동네 문방구에 가서 실내화를 한 켤레 샀다. 정훈이 할머니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조심스러웠지만 더는 정훈이 말만 믿고 기다릴 수 없었다.

아침에 학교 오자마자 신겨보았다. 다행히 꼭 맞았다. 잃어버려도 찾을 수 있도록 신발 코에 ‘3-2 강정훈’이라고 이름도 크게 써 넣었다.

실내화를 받고 정훈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좀 더 일찍 사줄 걸 하는 아쉬움이 느껴졌다. 잃어버리지 않고 잘 신으면 좋겠다.

4월 3일

일기 쓰는 사람들 모임

새로 일기를 쓰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어제까지 열아홉 명이었는데 오늘 또 두 명이 늘었다. 꾸준히 써오던 사람이 다섯 명이니 모두 스물여섯 명이나 일기를 쓰게 된 셈이다. 그래서 신청한 사람 모두에게 줄 새 일기장을 준비해 왔다.

공책 표지에 'OO의 소중한 일기장'이라는 이름표를 붙였다. 속표지에는 일기 쓰는 방법에 관해 정리한 내용을 복사해서 붙이니 그럴듯한 일기장이 되었다.

공책을 나눠줄 때 누가 이야기했다.

“우리는 '일기 쓰는 사람들 모임' 같아요.”

정말 재치 있는 말이었다. 모임은 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까 그런 말을 들을 자격이 충분했다.

나쁜 습관은 빨리 만들 수 있지만 좋은 습관을 만들 때는 노력이 많이 든다고 한다. 부디 노력해서 모두 일기를 잘 쓰면 좋겠다.

'일기 쓰는 사람들 모임'

다시 생각해도 참 멋진 이름이다.

4월 5일

자리 양보

아침에 수인이가 알림장을 보여주었다. 알림장에는 수인이 어머니 메모가 들어있었다.

‘선생님, 요즘 수인이가 뒷자리로 가서 텔레비전과 칠판이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자리 이동 가능할까요?’

쪽지를 읽고 고민에 빠졌다. 추첨으로 자리를 정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다시 바꿀 수 없기 때문이었다. 수인이 어머니 의견도 생각해야 했다. 고민 끝에 아이들한테 부탁해보았다.

“수인이가 눈이 안 좋아져서 뒤에 앉으니까 텔레비전이랑 칠판이 잘 안 보인답니다. 누가 바꿔줄 수 있나요?”

하지만 모두들 두리번거리기만 할 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할 수 없었다.

“수인아, 이번 달에는 뒤에 앉지만 다음 달에는 앞자리에 앉을 수 있을 거야. 엄마한테도 그렇게 전해드려라.”

수인이는 알겠다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다. 일이 마무리 되었나 싶었는데 맨 앞에 앉은 동협이가 손을 들었다.

“저는 뒤에 앉아도 잘 보여요.”

자리를 바꾸어 주겠다는 뜻이었다. 반가웠다.

동협이는 며칠 전에 정훈이가 연필이 없어서 찢찢 땀 때 다른 사람 보다 먼저 빌려 주더니 이번에는 자리도 양보한 것이다. 그런 동협이에게 또 고마움을 느꼈다.

동협이 덕분에 생각 보다 쉽게 수인이 고민을 해결했다. 그리고 동협이 따라 함께 뒷자리로 옮긴 짝지 성진이도 참 고맙다.

4월 6일

팽이치기

요즘 남학생들이 틈만 나면 팽이치기 놀이를 한다. 아침 자습 시간, 쉬는 시간 가리지 않는다. 심지어 공부 시간에도 할 일이 끝나면 팽이를 친다. 얼마나 재미있기에 그럴까?

멀찍이서 지켜보기만 하다가 쉬는 시간에 수민이, 동협이가 가지고 있는 팽이를 살피보았다. 크기는 작는데 금속으로 뼈대를 만들어서 아주 단단하였다. 위쪽에는 플라스틱으로 장식을 해 놓아서 보기도 좋았다.

그런데 가격이 좀 비싼 것이 흠이었다. 동협이 말로는 문방구에서 파는 것은 삼천 원 정도여서 꽤쌌는데 큰 마트에서 파는 것은 팔천 원이나 한다고 한다. 기능이 많은 것은 더 비싸다고 했다.

팽이를 손잡이에 끼워서 버튼을 누르니 팽 소리를 내며 돌았다. 도는 속도가 굉장했다. 어찌나 빠르게 도는 지 손바닥 위에 올릴 수 없을 정도였다. 이런 맛으로 팽이를 돌리는구나 싶었다.

새삼 내가 어릴 때 가지고 놀던 팽이가 생각났다. 그 때는 대개 집에서 나무를 깎아 직접 만들었다. 그러다가 낫이나 칼에 상처도 많이 입었다. 그 때 입은 상처가 지금도 손가락 곳곳에 흉터로 남아있다.

가장 많이 만든 건 줄팽이였다. 나무를 팽이 모양으로 깎고 다듬은 뒤 굵은 못이나 머리 둥근 나사를 중심에 박아서 만들었다. 긴 줄을 감았다가 세게 푸는 힘으로 팽이를 돌렸다.

팽이 싸움에 대비해서 쇠 베어링을 테두리에 끼워 만들기도 했다. 그 때 시골에서는 베어링을 구하기 힘들었는데 마침 우리 집이 방앗간을 해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 방앗간에 베어링을 쓰는 기계가 많았다. 그래서 동네 형들이 베어링을 얻으려고 나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기억이 난다.

신발 끈이나 닥나무 껍질로 때려서 돌리는 나무 팽이도 가끔 만들어서 얼음판 위에서 돌리곤 했다. 하지만 줄팽이 보다 인기가 없어서 많이 만들지는 않았다.

팽이 놀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다. 오래 돌리기 시합은 기본이고 팽이끼리 부딪혀서 넘어뜨리기, 줄 위에 올렸다가 내리꽂기 같은 싸움을 했다. 팽이끼리 부딪히기를 할 때는 베어링이 부딪히면서 불꽃이 튀었다. 겨울에 날이 저물 무렵까지 팽이싸움을 하면 그 불꽃이 마치 폭죽처럼 번쩍이던 모습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요즘은 팽이를 문방구나 마트에서 사야 되고, 놀이할 장소나 시간도 별로

없어서 예전과는 환경이 많이 다르다. 그래도 팽이치기가 아직 인기 있는 놀
이라서 무척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간이 나면 남학생들과 팽이싸움을
한 번 붙어보고 싶다.

4월 7일

부모님 직업

사회시간에 우리 고장 사람들의 직업을 알아보는 공부를 했다. 책 내용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 직업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모님들이 바로 우리 고장 사람이기 때문이다.

발표를 들어보니 부모님 직업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이 반반이었다. 알고 있다고 해도 자세히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가장 많은 직업이 회사원이었는데 어떤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지 못했다. 또렷이 알고 있는 건 가게운영, 경찰, 운전기사, 학원운영 정도였다.

이럴 줄 알았으면 미리 숙제를 내줄 걸 그랬다. 부모님 직업은 다 알고 있겠지 하고 생각한 게 잘못이었다. 3학년을 맡은 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6학년들 대하듯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 수업이 엉성해져 버렸다.

4월 8일

우는 애가 지는거야

읽기시간에 '세계인의 태권도'라는 글을 읽고 내용에 관한 질문을 주고받는데 시현이가 물었다.

"선생님, 태권도는 어떻게 승부를 가려요?"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스러웠다. 태권도 경기 규칙은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글쎄, 무슨 규칙이 있을 텐데 정확히는 모르겠네."

내가 어물어물하자 수민이가 답을 내놓았다.

"먼저 우는 애가 지는 거 아이가?"

어린이들 경기를 보면 울다가 판정패 당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아마 그런 장면을 보았던 모양이었다.

따지고 보면 수민이 말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었다. 내가 어릴 때도 친구랑 싸우다가 먼저 코피가 나거나 울음을 터트리느 쪽이 졌으니까 말이다.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 나중에 찾아보자."

이렇게 답하고 쉬는 시간에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았다.

태권도 경기 시간은 대개 3분 3회전으로 하고 쉬는 시간은 1분이라고 나와 있었다. 다만 여자부, 초등부, 중등부는 경기 시간이 2분 3회전이였다.

경기할 때 공격을 하면 점수를 얻고 반칙을 하면 점수를 잃는데 득점과 반칙점수를 더해서 점이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것이 경기 규칙이었다.

시현이와 수민이 덕분에 좋은 공부를 했다.

4월 9일

재미없는 도덕 공부

체육수업을 하고 들어와서일까. 도덕 시간이었지만 모두들 책 펼 생각을 하지 않았다.

"선생님, 더워서 공부 못하겠어요."

"체육 해서 피곤해요. 만화 보여주세요."

몇몇 아이들은 이렇게 푸념까지 했다.

고민스러웠다. 정신없이 몸을 움직이다가 교실에 들어오면 공부하기 싫은 건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수업을 빼먹을 수는 없었다.

한 시간쯤 공부 하지 말고 종이접기를 하거나 만화영화를 볼까 생각하다가 도덕책을 펴고 보니 그런 생각이 짝 사라졌다. 진도가 너무 안 나가서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진도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다. 아무래도 수업을 해야 할 것 같았다.

자료를 살펴보니 마침 오늘 공부와 관련되는 옛이야기 동영상에 있었다. 책 펴라고 하면 또 푸념할 것 같아서 먼저 동영상을 보여주었더니 어수선했던 교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잡혔다. 공부하기 싫다고 아우성치던 아이들 눈길이 모두 화면으로 모였다.

동영상을 보고 자연스럽게 도덕 공부로 넘어갔다. 그러니 아무도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 위기를 잘 넘긴 셈이었다. 오늘 미루면 언젠가는 메워야 하니까 말이다.

바쁘게 읽고 쓰며 진도는 나갔지만 왠지 기분이 나지 않았다. 공부가 끝날 즈음 넋지시 물어보았다.

"도덕 공부 재미있습니까?"

아이들은 한목소리로 대답했다.

"재미없어요."

내 마음 속 대답과 똑같았다. 뻔한 이야기에다 학습지 풀듯 끊임없이 무엇을 쓰도록 되어 있는 교과서를 바라보면 마치 인간훈련 교재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책으로 공부하려니 진행하는 나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이 든다.

"물러가라! 물러가라!"

알림장을 쓰려는데 갑자기 구호 소리가 들려왔다.

"도덕 못 가르친다고 나 물러가란 말이지?"

내가 눈물을 닦는 척 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아이들이 말렸다.

"아니, 선생님 말고 도덕책요."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어주었더니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었다.

도덕책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좀 더 연구해서 재미있는 수업을 만드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지 싶다.

4월 12일

바쁜 월요일 아침

월요일 아침은 다른 날 보다 바쁘고 어수선하다.

"반갑습니다."

허겁지겁 교실에 들어서며 인사를 건네자마자 아이들이 내 책상 주위로 몰려든다.

"선생님, 준비물 안 들고 왔어요."

정훈이가 연극 시간에 쓸 도화지와 색연필을 안 가져 왔다고 미안한 표정을 짓는다.

"응, 알았다. 교실에 있는 거 줄게."

이렇게 대답하니 언제 질문했냐는 듯 가 버린다.

"저도 도화지 안 들고 왔어요."

"저도요."

"그래, 알겠다. 교실에 있으니까 걱정 마."

수지와 미경이도 주말과 휴일에 바쁜 일이 있었나 보다.

"제 일기장 보세요."

가연이가 일기장을 자랑스럽게 내놓는다. 일기를 많이 썼는지 말투에 자신감이 묻어있다. 대략 넘겨봐도 알차게 잘 썼다.

"남의 일기를 보시면 안돼요."

"알았다.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썼는지 보는 거야."

보라고 쥐 놓고 보지 말라고 하는 건 무슨 심보일까? 가연이가 일기장을 놓고 들어간다.

교실을 둘러보니 창가 쪽에는 남자 아이들 여럿이 모여 팽이를 돌리고 있다. 복도 쪽에 앉은 여학생들은 종이 접기에 빠져 있다. 헤민이는 눈두덩이 부은 채 멍하니 앉아있다. 지난밤에 잠을 많이 잔 모양이다.

곧이어 방송으로 아침조회를 시작한다는 방송이 나온다. 조회가 시작되자마자 교감선생님이 보내신 문자가 컴퓨터 화면에 뜬다.

'선생님 오늘은 애국가 지휘 좀 부탁드립니다.'

교실마다 노래 소리가 다르게 나온다고 걱정하시더니 오늘은 기어코 바로 잡으실 모양이다.

지휘봉이 없어서 붉은 색연필을 잡고 '베토벤 바이러스'에 나오는 강마에 흉내를 내며 애국가 지휘를 하자 아이들이 키득거린다. 지휘 덕분에 노래 소리도 크고 박자도 잘 맞다.

"선생님이 발을 쾅 굴려서 놀랬잖아요."

온 몸으로 지휘를 하다 보니 그만 발까지 켜던 모양이다. 제일 앞자리에 있는 미경이가 씩씩거린다.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더니 웃는다.

이어서 과학경진대회에서 상을 받는 아이들이 화면에 나온다. 우리 반은 대표로 상 받으러 가는 않았지만 미경이, 수인이, 민서, 수민이도 상을 받는다.

질서를 잘 지키고 실내생활을 정숙하게 하자는 교장선생님 당부말씀에 이어서 어린이회 전달사항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교가 반주가 나오자 아이들이

"선생님 또 지휘 해주세요."

한다. 애국가 지휘 마음에 들었던 것일까? 그래서 다시 지휘를 한다.

조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수업 시작이다. 월요일 아침은 다른 날보다 바쁘고 정신이 없다.

4월 13일

절 받는 문

5교시 시작 무렵, 복도에서 교실로 들어서다가 그만 "쾅!"하고 출입문 문틀에 머리를 받았다. 어찌나 세게 받았던지 머리 위로 별들이 총총하게 떴다. 머리를 만져보니 다행히 살갓이 벗겨지지 않는 않았다.

머리를 어루만지고 있으니 아이들이 와서 걱정해주었다.

"선생님 많이 아파요?"

"응. 근데 괜찮아."

몇몇 아이들은 장난인 줄 알고

"아픈 척 하지 마세요."

하며 놀렸다.

평소에도 문틀 높이가 낮은 듯해서 조심하며 다녔다. 그런데 오늘은 무심코 들어오다가 기어이 사고가 난 것이다.

통증이 가라앉자마자 긴 자를 들고 가서 문틀 높이를 재어보았다. 복도 바닥에서는 179cm, 문틀 위에서는 175cm였다. 내 키가 180cm여서 이래도 저래도 문은 부딪히게 되어 있었다. 여태껏 많은 교실에서 생활했지만 문틀이 이렇게 낮은 교실은 처음이다.

당장 컴퓨터로 '머리조심'이라는 글귀를 크게 인쇄했다. 손코팅 해서 가위로 잘라 문틀에 붙였다. 그걸 보더니 용은이가 한마디 했다.

"에게게? 남자가 그 정도 가지고 문에 붙이고 난리에요?"

"이 정도라니! 대낮에 또 별 관찰하기 싫어."

앞문을 붙이고 나니 뒷문도 은근히 걱정됐다. 하지만 괜히 호들갑 떠다는 느낌을 줄 것 같아서 붙이지 않았다.

수업을 준비하며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이 문한테 절하며 지나야겠다. 고개를 안 숙이니까 막 때리고 혼내서 말야."

밖으로 나가며 절하고 들어오며 절하는 연습을 하자 아이들이 웃었다.

4월 14일

감기 조심

퇴근하기 전에 출석부를 정리했다. 4월에는 유달리 결석 표시가 많았다. 추운 날씨 탓에 감기에 걸린 아이가 많았던 게 원인이다.

봄인데도 봄 같지 않은 날이 이어지고 있다. 어젯밤에는 영하로 떨어진 곳도 있고, 4월 기온으로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았다고 한다.

어젯밤에 일이 있어서 김해천문대장님과 문화유적 몇 곳을 둘러보았다. 옷을 얇게 입고 갔더니 이가 덜덜거릴 정도로 추웠다. 그러다 보니 나도 하루 내내 코를 훌쩍이고 있다.

그 동안 구완이, 시현이, 정훈이, 한별이가 감기로 결석했고, 오늘도 수민이가 열나고 몸살이 나서 오지 못했다. 특히 한별이는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사흘 째 결석이다.

꽃 피고 나비가 팔랑이는 따뜻한 계절에 겨울이 머물러 있어서 걱정이다. 출석부에 더 이상 결석 표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4월 15일

민서의 굴욕

읽기 시간에 의견이 드러나는 글의 특성에 관하여 공부했다. 교과서 내용 중에 의견을 주고받는 우체통이 소개되어 있다. 수업이 끝날 즈음 민서가 불쑥 한 마디 던졌다.

"선생님, 우리 반도 우체통 달지요?"

그러자 너도 나도 좋다고 맞장구를 쳤다.

"그렇까? 할 말이 많은가봐?"

잠깐 기억을 더듬어보니 십여 년 전 이런 우체통을 교실에 단 적이 있었다. 그런데 처음에만 반짝 인기 있다가 거의 이용하지 않아서 없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러지 말고 지금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어떨까?"

내 제안에 잠깐 뜸을 들이던 아이들이 그러자고 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일어서서 발표했다.

먼저 규리가 말했다.

"저는 가연이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말하면서 툭툭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치면 무척 아프니까요."

구완이도 비슷한 의견을 말했다.

"정훈이가 아프도록 몸을 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연이와 정훈이가 인상을 찌푸렸지만 넘어가주었다. 용은이도 경민이한테 머리를 건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모두 한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했는데 민서가 우리 반 아이들 모두에게 할 말이 있다고 일어섰다.

"여러분한테 입 냄새가 지독하게 납니다. 치카치카 좀 잘 해주기 바랍니다."

갑자기 교실이 찬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하지만 곧 여기저기서 비난이 쏟아졌다.

"너나 잘 처라."

"니한테도 냄새 엄청 난다."

민서도 만만치 않았다.

"난 얼마나 잘 치는데. 날마다 닦는다."

민서가 자신 있는 표정을 짓자 동협이가 씩씩거리며 한 마디 했다.

"십 년 동안 한 번도 이 안 닦은 주제에!"

아이들은 동협이 말에 크게 웃었다. 민서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이들 웃음소리에 밀려 말을 잇지 못했다. 민서의 굴욕은 이렇게 해서 생겼다.

언제나 당당한 민서가 굴욕을 어떻게 헤쳐 나갈 지 궁금하다.

4월 17일

힘들었던 공개수업

여러 학부모들을 모시고 공개수업을 했다. 주제는 듣기말하기 3단원 '훈화와 내 경험 연결 짓기'였다. 훈화와 관련된 경험을 모둠별 역할극으로 꾸며 발표하는 수업이다. 수업을 잘 해보려고 지난 일 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 자료도 필요한 만큼 만들어서 두려움은 없었다.

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조금 긴장은 했지만 미리 찾아놓은 동영상 자료를 보여주며 부드럽게 시작했다. '검정소와 누렁소' 이야기를 들을 때도 좋았다. 수업을 무난하게 마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문제는 교과서 이야기를 역할극으로 꾸미려고 할 때 생겼다. 이 활동은 이야기를 눈앞에서 보여주며 등장인물의 감정을 살려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넣었다. 등장인물 그림을 코팅해서 머리에 쓸 수 있도록 소품도 만들어 놓았다.

“방금 들은 이야기를 역할극으로 꾸미려고 합니다. 누렁소, 검정소, 농부, 선비 역할을 하고 싶은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아이들이 서로를 둘러보았다. 그런데 한 명도 일어서지 않았다. 예상치 못한 침묵이 흘렀다. 평소에 이렇게 말하면 서로 하려고 몰려 나왔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만 남기고 자리로 돌려보내는 게 일이었다.

다시 말해도 마찬가지였다. 수업 흐름이 뚝 끊기는 느낌이 들었다. 긴장이 되었다. 나와 아이들 그리고 부모님들도 굳게 입을 닫고 서로를 둘러보기만 했다. 시간을 더 끌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쉽네요. 평소에는 많이 나오더니 오늘은 부모님이 신경 쓰이는가 보네요. 몇 명 불러내겠습니다.”

각본에 없던 말을 하고 나니 머리가 복잡해졌다. 하지만 뚝뚝한 수가 없었다. 어떻게든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평소 연극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아이 네 명을 불러냈다.

준비한 등장인물 그림을 머리에 붙이고 역할극을 시작했다. 내가 상황을 말하면 아이들은 행동과 말로 보여주는 '해설이 있는 역할극'이었다.

소 두 마리가 풀을 뜯는 장면, 선비가 농부에게 말하는 장면, 농부가 선비에게 답하는 장면까지 잘 됐다. 마지막으로 동작을 멈춰 놓고 인터뷰를 했다. 이 역할극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 먼저 농부에게 물었다.

“농부님은 왜 귓속말로 이야기했습니까?”

여기서 내가 바라는 답은 ‘짐승이라도 비교하는 말을 하면 기분 나쁘니까

요'다. 그런데 농부를 맡은 아이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냥요.”

다시 물었더니 또 똑같이 대답했다.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잊은 듯 했다.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났다. 이 질문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김정소한테 물었다.

“농부가 크게 말하지 않고 킷속말로 선비한테 말할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당연히 ‘우리 주인님은 생각이 깊어요’ 라는 답을 예상했다. 그런데 또 기대를 저버리는 답이 나왔다.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얼굴이 뜨거워졌다. 부모님들 눈길이 모두 붙어진 내 얼굴을 보는 느낌이 들었다.

“장난치지 말고 바로 대답해라.”

킷속말로 아이에게 살짝 이야기해줬더니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었다. 하지만 물은 이미 옆질러진 뒤였다.

3학년 아이들 특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탓일까?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해서 일까?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어리광을 부렸던 걸까? 갖가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까닭이야 어떻든 부모님들이 보고 있는 수업이 이렇게 되니 마음이 무거웠다.

남은 활동은 생활 속에서 비교당한 경험을 모둠별로 역할극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활동은 전날 미리 준비해놓아서 무리 없이 진행했다. 그러나 ‘해설이 있는 역할극’에서 시간을 끈 덕에 수업은 십 분 정도 늦게 끝났다.

수업이 끝나고 참여한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말했다.

“오늘 수업은 아무래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모둠별 역할극은 그럭저럭 잘 됐는데 해설이 있는 역할극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제대로 못한 것 같네요. 점수로 따지면 70점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무거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았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 나왔다고 변명하기엔 내 준비가 짧았다. 물 흐르듯 내 계획대로 흘러가는 수업만 상상했지 다른 경우는 생각해보지도 않았으니 내 잘못이 컸다. 반성해야 할 점이 많았던 공개수업이었다.

4월 19일

생각주머니에서 고른 글

며칠 전부터 아이들이 쓴 글을 실은 작은 책을 만드는 일로 바쁘다. 글은 모두 아침마다 쓰는 생각주머니에서 골랐다. 똑같이 한 사람당 한 편 식이다. 이미 글은 다 모았다. 편집만 남았다. 편집도 쉽게 하려고 한다. 중요한 건 글 내용이니까 말이다. 미리 몇 편 살펴보자.

3월 30일 화요일 비가 뚝뚝

어제 샹프를 샀다.

예쁜 샹프가 있었는데

아저씨가

그만 만지고 나가라고 했다.

샹프를 사고 나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장사를 하냐고

생각하였다. (이혜민)

혜민이는 문방구에서 있었던 일과 그 때 했던 생각을 사실대로 잘 써놓았다. 누구나 혜민이 처지가 되면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다. 아저씨가 나가라고 할 때 얼마나 억울했을까. 혜민이는 이런 생각을 숨기지 않고 글로 잘 써놓았다.

3월 22일 월요일 구름 가족이 소풍가는 날

어떤 나무를 보았다.

종려나무란 나무였다.

그것은 야자나무 비슷하였다.

가까이 가서 어떤 과인지 보니까

야자나무과였다.

웬지 야자나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태현)

태현이는 아침에 학교로 오면서 야자나무를 닮은 종려나무를 보고 어떤 과인지 직접 확인하고 글을 썼다. 만약 태현이가 직접 가서 확인하지 않았다

면 이런 글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직접 무엇을 해보면 저절로 글이 나온다는 점을 태현이가 보여주었다.

3월 24일 월요일 비가 툭툭 내린다.

아침에 운동장에서
음악선생님을 만났다.

“반갑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네.”

라고 답했다.

뿌듯했다. (정수인)

수인이는 아침에 운동장에서 만난 선생님께 인사를 했던 경험을 글로 썼다. 만약 수인이가 반갑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면 선생님의 대답도 들을 수 없었을 것 같다. 그러면 뿌듯한 느낌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짧지만 기분 좋은 글이다.

여기서는 세 편만 소개했는데 곧 엮어서 나눠줄 작은 책에 실린 글 모두가 좋은 글이니 꼼꼼히 읽어보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도 생각주머니 공책에 좋은 생각을 많이 남겨주기 바란다.

4월 20일

차라리 피병이라면

지난 일요일부터 등 뒤쪽에 담이 들어서 너무 고통에 빠져있다. 몸을 돌리기도 어렵고 말을 해도 아픔이 느껴질 정도다. 할 수 없이 2교시 과학시간에 실내마이크를 썼다.

"실험관찰 79쪽에서 81쪽에 있는 카드 다 떼세요."

작게 말했는데도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아주 우렁차고 힘이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구완이에게는 큰 목소리가 좀 거슬렸던 것 같다.

"하필이면 마이크로 말씀하시지?"

"그래."

태현이도 맞장구를 쳤다.

"내가 오늘 말하는 데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 등이 아파서 말야."

할 수 없이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다.

"말하는 거 하고 아픈 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찬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투로 말했다.

"말할 때 얼마나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 너희들은 못 느껴서 그렇지."

한별이가 말을 받았다.

"그럼 칠판에 글로 쓰면 되지."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것도 꽤찮은 방법이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 팔을 들어서 글 쓰는 것도 힘들다.

"내가 글로 쓰면 자세히 봐 줄거야? 한별아."

"..."

내가 다그치자 한별이는 슬쩍 발을 뺐다.

"악!"

물건을 잡으려고 몸을 돌리면서 또 비명을 질렀다.

"그러지 말고 병원에서 쉬세요."

"병원에 가세요."

내 모습이 안타까웠는지 은서와 미경이가 거들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고 싶다. 그렇지만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선생님 혹시 피병 아니에요?"

윤재는 아무래도 내 몸 상태가 의심스러웠나 보다. 하지만 지금까지 써놓은 건 모두 진실 그대로다. 윤재 말처럼 나도 피병이면 얼마나 좋을까?

4월 21일

정훈이의 두려움

체육시간에 도전활동을 했다. 아이들을 두 편으로 나눈 뒤 각각 홀라우프 빠져나오기-고리던지기-허들 아래로 지나가기-홀라우프 징검다리 건너기-고깔 돌아오기 이런 차례로 한 사람씩 돌아오게 했다.

개똥이편과 소똥이편으로 나눠 경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개똥이편이 앞섰다. 그런데 다시 소똥이편이 이기는 가 싶더니 정훈이 차례에서 그만 소똥이편으로 아주 뒤집히고 말았다.

정훈이도 홀라우프 빠져나오기와 고리던지기 그리고 허들 아래로 지나가기까지는 잘 했다. 그런데 홀라우프 징검다리에서 그만 멈춰서 버렸다. 개똥이편은 난리가 났다.

"정훈아, 뭐하노?"

"빨리 지나가라."

아이들 소리에 놀랐는지 정훈이가 징검다리를 뛰어서 건넜다. 이제 고깔만 돌아오면 됐다. 하지만 정훈이는 그 자리에 다시 멈춰서버렸다. 그리고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길 잃은 아이 같았다.

소똥이편 선수는 이미 고깔을 돌아서 자기편으로 뛰어갔다. 개똥이편 아이들은 아까보다 더 큰 소리를 질러댔다.

"정훈아, 빨리 가라."

"뛰어라, 얼른."

하지만 정훈이는 멍하니 앞만 바라볼 뿐이었다. 보다 못해 내가 뛰어가서 팔을 붙잡고 끌어주었다.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정훈이는 고깔을 돌더니 생글생글 웃는 표정으로 뛰어왔다.

정훈이가 자기 자리로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다. 가만히 들어보니 한두 아이 빼놓고는 모두들 정훈이를 격려하고 있었다.

"정훈아 잘 했다."

"괜찮다 정훈아."

내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 늦게 온 데다 생글생글 웃는 표정을 보고 화를 낼 만 했지만 아이들은 너그러이 받아주었다. 수업시간에 정훈이가 할 일을 늦게 한다고 야단을 많이 하는 나와는 달랐다.

"정훈아, 아까 체육 시간에 왜 멈춰서 있었노?"

급식시간에 일부러 정훈이를 옆에 앉히고 물어보았다. 정훈이는 대여섯 살 짜리 아이 같은 말투로 차근차근 대답했다.

"있잖아요. 앞만 보고 뛰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이 안 보여서요."

"겁이 났단 말이야?"

"무서워서요."

조금 황당했지만 솔직한 답이었다. 여태까지 지켜본 정훈이는 마음이 늘 불안하고 겁이 많은 편이었다.

뛰다가 마음이 갑자기 불안해졌던 정훈이를 이해하고 격려해준 아이들이 참 고맙다. 아이들에게 크게 배웠다.

4월 22일

"가시 박혔어요!"

5교시 시작 무렵 정훈이가 울먹이며 왔다.

"손에 가시가 박혔어요."

자세히 보니 왼손 엄지손가락에 시커먼 나무가시가 박혀 있었다. 그래서 얼른 서랍에 있는 수술(?) 도구를 꺼냈다. 바늘과 쪽집게, 손톱깎기가 내 수술도구다. 교실에서는 이런 일이 흔하기 때문에 늘 이런 도구들을 준비해두고 있다. 물론 상처가 심하면 보건실로 보내서 빼고 약을 바르도록 한다.

"어디 보자. 어이구 깊이 박혔네? 이거 수술해야겠다. 손 이리 내."

장난으로 연필 깎는 칼을 내보이며 수술하겠다고 하자 정훈이가 겁먹은 표정을 지으며 달아나려고 했다.

"안할래요."

"아냐. 칼은 안 쓴다. 장난이다. 바늘로 살짝 빼면 돼."

그래도 정훈이가 가까이 오지 않았다. 이 때 찬기가 매실액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수술 잘 하면 이거 한 모금 줄게."

찬기 말이 도움이 되었는지 정훈이가 손을 내밀었다.

"뭐 하다가 찔렸노?"

"바닥 틈에 뭐가 빠졌는데 꺼내려고 하다가요."

이렇게 말을 주고받는 동안 정훈이 손가락을 찔렀던 가시를 무사히 빼냈다. 바늘이 움직일 때 조금 움찔한 것 말고는 잘 참아주었다.

"량희는 울었는데..."

지켜보던 미경이가 말했다. 맞다. 얼마 전에는 량희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다. 제법 큰 가시가 찔려서 량희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이렇게 가시가 많이 박히는 건 우리가 쓰는 교실 바닥이 낡아서다. 이십 년은 된 듯한 낡은 나무 바닥은 표면이 거칠거칠하여서 가시가 잘 일어난다. 맨살이 닿으면 가시가 찔리는 건 일도 아니다.

올 들어 우리 교실 바닥에서 가시에 찔려본 이가 무려 열다섯 명이나 되는 것도 바로 이런 까닭 때문이다. 무조건 조심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갈 예정이라 새로 바닥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말이다.

"선생님 완전 의사네요. 의사선생님 책 어디 팔까요?"

경민이가 우스갯소리를 했다.

"그럼, 내가 수술을 얼마나 잘 하는데!"

나도 어깨에 힘을 주며 답했다. 내가 의사라고 불리는 건 좋은데 바늘과 손톱깡이, 족집게를 가지고 수술한다는 걸 진짜 의사선생님들이 알면 난리가 나겠지?

4월 23일

교실지킴이 한별이

체육시간만 되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 바로 다리가 불편한 한별이다. 한별이는 지난해에 교통사고로 다친 다리가 아직 낫지 않아 보조기구를 찬다.

4교시 체육시간을 앞두고 체육복을 갈아입고 교실에 오니 다른 아이들은 모두 운동장으로 나가고 한별이 혼자 창가에 서서 멍하니 운동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한별아, 교실 잘 지켜."

체육시간만 되면 선생님은 늘 한별이에게 이렇게 부탁하곤 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예."라고 했을텐데 오늘은 대답이 조금 달랐다.

"그건 알아요."

이제 말 안 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내가 듣기에는 운동장으로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서 안타까워하는 한별이 마음이 담겨있었다.

한편으로는 한별이가 교실에 있으니 내 마음이 든든한 면도 있다. 체육시간에 모두 운동장으로 나가고 나면 교실이 텅리는 일이 종종 있지만 올해는 한별이 덕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체육시간이면 아이들이 물건이나 돈을 내게 맡기기도 하는데 요즘은 책상 서랍에 넣어두고 가도 아무 걱정이 없다.

제 친구들은 진급하여 모두 4학년인데 다리 때문에 3학년 동생들과 공부하는 한별이가 체육 시간만 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껴보지 않은 우리는 알 수 없다. 교실이 텅리는 걱정이 없는 것 보다 한별이가 어서 나아서 함께 체육을 하면 좋겠다. 혼자 교실에 남아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는 모습 대신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다니는 한별이 모습을 빨리 보고 싶다.

4월 26일

잃어버린 휴대폰

지난 금요일(4월 24일) 오후 퇴근 무렵에 구완이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선생님, 우리 구완이가 휴대폰을 잃어버려서 전화드렸습니다. 새로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새 휴대폰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체육시간에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학원에 전화해도 없네요."

새 휴대폰을 잃어버렸으니 어머니가 속이 얼마나 상하셨을까. 그래서 학교에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찾으러 다녔다. 전화를 걸어보니 신호가 가는 걸로 봐서 아직 배터리는 남아있었다. 교실과 화단, 운동장, 스탠드, 학교 건물 뒤편을 다니면서 벨소리가 나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소리가 나는 곳은 없었다.

"구완이 어머니, 학교에는 몇 군데 찾아봤는데 보이지 않네요. 서비스업체에 전화해서 위치추적을 해보면 어떨까요?"

내 제안에 구완이 어머니가 알아보니 위치추적은 전화기 판매점에서는 되지 않고 본사에 딸린 지점에서만 할 수 있다고 연락이 왔다. 내일 모레가 휴일이어서 위치추적을 해보려 해도 할 수 없이 지점이 문을 여는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했다. 만약 모르는 장소에서 잃어버렸다면 기다리는 사이에 배터리가 떨어져서 영영 못 찾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래서 전화기를 잃어버린 구완이나 어머니 못지않게 나도 마음이 안타까웠다.

불안한 마음으로 주말과 휴일을 보내고 아침에 학교에 오자마자 구완이에게 휴대폰을 찾았는지 물었다. 아쉽게도 구완이 입에서는 '예'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전체 교실에 팝업을 보내서 전화기를 본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야 겠다고 생각하며 방송조회를 맞았다.

조회가 끝날 무렵 분실물을 알려주는 시간이었다. 가장 먼저 줄이 달린 휴대폰이 보였다. 그걸 보더니 갑자기 구완이 눈이 둥그레졌다.

"내꺼다!"

확실히 맞냐고 물으니 잃어버린 휴대폰과 똑같다고 했다. 얼른 가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싱글벙글 웃으며 내려갔다. 그제야 비로소 '휴~'하며 땀이 풀리는 한숨이 나왔다.

사실 지난 금요일에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으면서 몇 가지 가능성을 따져봤다. 첫째는 구완이가 잃어버렸을 것이다, 둘째는 친구들이 장난으로 가져가거나 숨겼을 것이다, 셋째는 외계인이 와서 탐을 내고 가져갔을 것이다 이

렇게 말이다.

누가 방송실에 갖다 놓았는지 모르지만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세 가지 추측이 모두 맞을 수 있겠다 싶었다. 구완이가 잃어버렸다면 누군가 천사 같은 마음으로 주워서 갖다 놓아서 찾은 것이고, 친구들이 장난을 쳤다면 나중에 그 친구가 마음을 고쳐먹고 갖다 놓아서 찾은 것이고, 외계인이 한 짓이라면 우주로 가져가지 않고 만져보기만 하고 놔두었으니 다시 찾게 된 게 아닐까?

천사 같은 어린이인지, 양심을 되찾은 친구인지, 마음씨 착한 외계인인지 모르지만 구완이 휴대폰을 찾게 해줘서 너무나 다행이다. 난 아무래도 외계인이 한 짓 같은데….

4월 27일

중간고사

2교시 수학시험이 끝난 뒤 가연이가 휴대폰을 들고 달려왔다.

"선생님, 시험 잘 치라고 엄마가 문자 보냈어요."

확인해 보니 다음과 같은 문자가 와 있었다.

'가연아 시험 잘 쳐 화이팅!'

은서도 엄마한테 같은 내용으로 문자를 받았다고 자랑했다. 가연이와 은서는 엄마가 보낸 문자를 받고 힘을 많이 얻었을 것 같다.

이런 문자를 보니 오늘이 중간고사 시험날이라는 게 실감났다. 부모님들은 대부분 자식이 시험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 문자를 넣어서 힘도 불어넣어주고 또 맛있는 음식으로 기분을 북돋워주기도 한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이들을 가만히 지켜보니 시험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공부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웠다. 대부분 딱지치기, 살구받기, 만화보기, 스티커 붙이기에 빠져 있었다.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은 딱 두 명 밖에 없었다. 아마 부모님들이 이 모습을 보았다면 실망이 컸을 것 같다.

그렇지만 아이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다르다. 머릿속은 온통 시험 걱정이었다. 생각주머니에 쓴 글 가운데 몇 편 골랐다.

아침에 집에서 옷을 입고 있을 때 엄마가 "예진아, 시험 잘 쳐야 해."라고 말했다. 꼭 시험을 잘 쳐야겠다. 내가 백점을 맞으면 엄마가 기뻐할 것 같기 때문이다. (문예진)

내일이 시험이다. 너무나 떨린다. 나는 사회를 못하는데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든다. (권구완)

새벽 5시 49분에 일어나 "아흠~"하며 세수하고 시험공부를 했더니 할아버지가 "머리 아프겠다. 고마 해라. 일찍 일어났네." 하며 웃으셨다. 좀 쉬었더니 여섯 시가 되었다. (김태현)

예진이처럼 시험을 쳐서 백 점을 받고 싶은 마음, 구완이처럼 시험이 다가오면 두근거리는 마음이 곧 아이들의 마음이었다. 태현이는 잠을 이겨내고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했더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침에 학교에 와서 하고 싶은 놀이를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온통 시험 걱

정을 하고 있다는 걸 글을 보며 알 수 있었다.

이제 중간고사도 모두 끝났다. 지금까지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으니 오늘은 꼭 쉬면 좋겠다. 또 시험 점수에 만족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잘 나온 사람은 다음에도 잘 받도록 노력하고, 못 나온 사람은 다음에는 잘 나오도록 힘쓰면 좋겠다.

끝으로 헤민이가 쓴 글을 소개한다. 헤민이 말처럼 시험이 맛있는 음식이면 참 좋을 것 같다.

4월 26일 흐리다

내일은

시험을 친다.

국수사과를 친다고 하니까

애들이

국수

사과

맛있겠다

이렇게 말하였다.

나와 친구들,

선생님도 웃었다. (이헤민)

4월 28일

급식 자리싸움

급식시간마다 줄 서는 순서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진다.

"선생님, OO가 자리 짬 했어요."

"OO가 새치기 했어요."

급식소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눈살을 찌푸릴 때는 내 마음도 어두워진다. 그런데 오늘은 줄 서는 문제로 그만 싸움까지 일어났다.

급식소로 갈 때는 성진이가 앞에 서고 수민이가 뒤에 섰는데, 음식을 받고 자리에 앉을 때는 수민이가 먼저 앉고 성진이가 뒤에 앉게 되었다. 이 문제로 성진이와 수민이가 으르렁거리며 맞섰다.

"성진이가 주춤거려서 빨리 간 거 뿐인데요."

"천천히 가고 있는데 수민이가 앞질러 갔단 말이에요."

두 사람 말을 들어보니 모두 이해할 만 했다.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 있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넘어갔더라면 참 좋았을텐데 이런 문제로 꼬집고 때리며 싸움까지 하게 된 건 참 아쉬웠다.

두 사람이 싸우자 동생을 도우려고 성진이 형까지 와 있었으니 조금만 늦게 봤더라면 자칫 큰 싸움이 될 뻔 했다. 결국 성진이와 수민이가 서로 사과하고 싸움은 끝났다. 아름다운 양보가 아쉬운 날이다.

4월 29일

딱지치기

보름 전까지만 해도 팽이치기가 유행하더니 이제는 딱지치기에 마음을 빼앗긴 친구들이 많다. 특히 남학생들이 딱지치기에 관심이 많은데 아침 시간 이든 점심시간이든 틈만 나면 온 교실이 딱딱거리는 소리로 가득하다.

가야문화축제를 보고 와서 점심을 먹으며 시현이와 요즘 유행하는 딱지치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현이는 며칠 전 공부 시간에 딱지를 만지고 있다가 모두 빼앗겼는데 오늘 되돌려 받아서 기분이 아주 좋다. 얼마나 아끼는 딱지였는지 급식소 올 때도 주머니에 넣어 왔다.

시현이가 가지고 있는 딱지를 보니 작고 둥근 '썸딱지', 작고 네모난 '칸딱지', 크고 둥근 '왕딱지' 그리고 고무로 만든 '돌딱지' 이렇게 종류도 여러 가지다. '썸딱지'와 '칸딱지'는 300원 주면 일곱 장 살 수 있고, '왕딱지'는 한 장에 400원이나 한다고 한다.

시현이 말로는 우리 반에서 딱지를 가장 치는 친구가 찬기라고 한다. 찬기는 팽이치기도 잘 하던데 여러 가지 놀이를 참 잘 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여학생 가운데서는 수지가 가장 잘 한단다. 수지가 남자들과 맞짱도 뜨긴 하지만 아직은 실력이 조금 모자란다고 귀땀했다. 그건 옆에 있던 수지도 인정했다.

시현이 이야기를 들으니 내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물론 나도 딱지치기를 아주 좋아했다. 한겨울에는 손등이 갈라져서 피가 뚝뚝 흐를 때까지 흙바닥에서 딱지를 치곤했다.

내가 치던 딱지는 여름 딱지와 겨울 딱지 이렇게 크게 두 종류가 있었다. 여름에는 문방구에서 파는 둥근 딱지를 많이 쳤다. 시현이가 말한 '썸딱지'와 크기가 비슷한데 도화지 두께 종이판에 '로보트태권브이'나 '독수리5형제' 같은 만화캐릭터 그림이 있는 딱지였다. 바닥에 놓고 쳐서 넘기기도 하고 손에 쥐기를 하여 숫자가 크거나 별이 많으면 이기는 방식으로 따먹기를 했다.

겨울에는 공책 표지처럼 두꺼운 종이를 접어서 만든 딱지를 가지고 놀았다. 지난 3월 초 미술 시간에 접어서 꾸몄던 딱지와 같다. 지금은 여러 가지 종이로 색깔이 예쁜 딱지도 만들지만 예전에는 종이가 많이 없어서 주로 공책 표지나 스케치북 표지로 만들었다. 종이가 없을 때면 중학교 다니는 누나들이 쓰는 멀쩡한 공책을 찢어서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회과부도 같은 책을 찢어서 만들다가 집에서 쫓겨나곤 했다.

시현이와 딱지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딱지에 대해서 모르던 것도 알게 됐

고, 또 옛날 생각도 해 보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시간만 많으면 내 딱지치기 실력도 보여주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그럴 시간이 많이 없는 게 참 아쉽다.

4월 30일

현장학습

설레는 마음 안고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우리가 간 곳은 버스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진주 반성수목원이다. 기온은 조금 쌀쌀했지만 화창한 날이어서 그런지 유치원 꼬마들이 아주 많이 와서 반성수목원은 곳곳마다 초만원이었다.

현장학습 갈 때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멀미를 하지는 않을까, 다치지는 않을까,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하고 수많은 걱정을 한다. 그런데 이번 현장학습은 이런 걱정이 전혀 필요가 없었다.

질서를 잘 지켜서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길을 잃어버린 친구도 없었다. 무엇보다 멀미를 한 명도 하지 않아서 좋았다. 또 가는 곳 마다 어찌나 열심히 관찰하고 미니북에 적는 지 놀랐다.

점심 먹고 수건돌리기, 손님 모셔오기 놀이도 하고 예쁜 튜립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었다. 첫 나들이라서 살짝 긴장을 했는데 모든 것이 잘 됐다. 걱정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난 하루다.

5월 1일

걱정

출근준비를 하는데 한별이 어머니로부터 문자가 왔다.

'선생님, 한별이 오늘 병원 가야해서 학교 못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슴이 철렁했다. 어제 현장학습 갔을 때 많이 걸어서 안 그래도 아픈 한별이 다리가 뒤틀난 게 아닐까 걱정이 됐다. 반성수목원에서 여기저기 옮겨 다닐 때 다리를 절룩이며 따라오는 한별이한테

"한별아, 걸어갈 수 있겠나?"

하고 몇 번을 물어도

"네, 괜찮아요."

하고 씩씩하게 따라왔지만 그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

한별이 어머니한테 조심스럽게 전화를 드렸다.

"한별이 다리가 많이 아픈니까?"

"아니에요. 선생님. 수술한다고 마취했을 때 생긴 가래가 아직 나와요. 그 치료를 하러 갑니다. 걱정마세요."

걱정이 반쯤 놓였다.

"어제 소풍 갔다 와서 다리가 어떻다고 하던가요?"

"많이 걸어서 아프긴 한데 물리치료 받으면 됩니다."

정말 다행이구나 싶었다. 학교 걱정 하지 말고 병원에 잘 다녀오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한별이 다리가 얼른 나아야 이런 걱정도 안 할 것 같다.

5월 3일 월요일

민서야 고맙다

5월을 맞아 둘째 시간에 자리를 바꾸었다. 이번 달에는 수학이꿈이를 먼저 배치하고 눈이 나쁜 친구들을 앞쪽으로 앉게 한 다음 나머지 친구들 자리를 정했다.

자리를 바꾸고 나면 늘 불만이 나온다. 책상이 작다, 앞에 덩치 큰 아이가 있다, 칠판과 거리가 멀다, 짝지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등 종류도 가지각색이다.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모두 만족하는 방법은 여태껏 찾지 못했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자리를 바꾼 뒤 불만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하니 열 명이 넘게 들었다.

"OO이 자리가 너무 더러워요."

"지난달과 같은 자리라서 싫어요."

"책상이 너무 낮아요."

이렇게 불만이 많으면 참 힘이 든다. 모두 해결해주고 싶지만 그건 힘들기 때문이다.

가만히 살펴보니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은 민서였다. 민서 짝지는 예진이 되었다. 그런데 민서는 다른 사람과 앉고 싶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했다.

"민서야, 넌 어떤 짝지랑 앉고 싶노?"

민서 의견을 들어주고 싶어서 물었다. 민서가 교실을 둘러보더니 대답했다.

"저는 여학생 중에서 착한 사람요."

이 말에 예진이 마음이 상했을 것 같았다.

"그럼 한 명 정해보자. 그 친구가 원하면 같이 앉혀줄게."

민서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사람은 량희였다.

"량희야 민서랑 앉을래?"

량희는 고개를 저었다. 말이 나온 김에 반 친구들 모두에게 물어보았다.

"민서랑 앉고 싶은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민서가 이 모습을 보더니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다.

"봐라 민서야. 너는 너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다른 친구들도 모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단 말이야. 내 생각엔 너부터 먼저 친구들한테 착한 모습을 보여주면 친구들도 니 마음을 알아줄 것 같은데."

민서는 아무 말이 없었다.

5교시에 작은 쪽지를 모두에게 한 장씩 나눠주었다. 30년 뒤 자기 직업이 무엇일까 상상해보고 글 쓰는 시간을 가졌다.

글을 다 쓰고 나니 시간이 제법 남아있었다. 그래서 쪽지 뒷면에 자리 바꾸기에 관해 불만이 있으면 모두 쓰라고 했다. 다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해결해주고 싶었다.

글을 다 썼을 무렵 걷는 길로 민서 쪽지를 보니 아무 것도 써놓지 않았다.

'아까 내가 민서에게 너무 심하게 말해서 화가 났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 민서 표정을 보니 화난 표정은 아니었다.

"민서야, 넌 왜 아무 것도 안 적고 있노?"

"저 이제 불만 없어요."

이 말에 깜짝 놀랐다.

"아니 아까 불만이 많았잖아."

"그런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졌어요. 보세요"

민서 쪽지를 보니 커다란 글씨로

'없습니다.'

라고 써 놓았다. 민서 표정을 보니 정말 불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정말 다행이구나 싶었다. 민서가 똑같은 불만을 이야기했다면 내 마음에도 똑같은 고민이 하나 쌓였을 것이다.

마음속에 있던 불만을 아무런 대가 없이 한 번에 날려 보내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민서는 어떻게 해냈을까. 민서 덕분에 내 마음에 생길 뻔했던 고민까지 없어졌으니 민서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었다.

"민서야 고맙다!"

5월 4일

행복한 생일잔치

다른 학교들은 거의 대부분 오늘 소 체육대회를 했다고 한다. 내일이 어린이날 이어서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다음 주 금요일에 소 체육대회를 하고 스승의 날인 토요일에는 쉰다. 그래서 어린이날 전날이었지만 우리 학교는 아주 조용하게 하루를 보냈다. 아마 다음 주에는 조금 시끌벅적할 것 같다.

학교는 조용했지만 오늘 우리 반은 조금 정신이 없었다. 체격 검사와 시력 검사가 있었고, 4월 달에 못한 생일잔치도 했고 신나는 놀이도 했다. 체육대회는 안 했지만 생일잔치와 놀이를 하니까 제법 어린이날 기분이 났다.

오늘 생일잔치는 사실 조금 걱정이 됐다. 주인공이 수민이 한 명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러 명이 주인공일 때보다 썰렁한 분위기가 되면 어쩌나 싶었다.

이런 상황을 알았는지 어머니들께서 도움을 주셨다. 주인공 수민이 어머니께서 맛난 음료와 직접 만든 예쁜 캐릭터 비누를 모두에게 선물해주었다. 또 미경이 어머니께서도 맛있는 주스와 빵을 선물해주었다. 예상하지 못한 어머니들 도움 덕분에 우리 반이 오늘 하루 아주 행복했다. 참, 민서가 뽕튀기를 가져와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했다.

생일잔치가 끝나고 올 들어 처음으로 했던 '손님 모셔오기' 놀이도 정말 재미있었다. 모든 친구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열심히 참여하는 걸 보니 보기 좋았다. 원래 놀이는 참여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면 재미없는 것도 재미있어지는 법이다.

벌칙을 받을 때도 진지하게 해주어서 더욱 좋았다. 벌칙을 부끄러워하거나 못 하겠다고 빼면 놀이가 재미없어지는데 모두들 너무나 잘 해주었다. 한별이가 경희에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당신에게 내 사랑을 바칩니다' 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떠올리니 아직도 웃음이 난다.

어머니들이 보낸 따뜻한 정성과 아이들 모두 놀이에 열심히 참여한 덕분에 쓸쓸하게 지낼 뻔 했던 하루가 멋지게 빛났다.

5월 6일 목요일

골고루 시리즈

읽기 시간에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이라는 독서감상문을 읽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알아보는 공부를 했다.

이 글에는 책을 읽게 된 동기, 책에 나오는 내용, 인상적인 장면, 읽은 뒤의 생각이나 느낌이 들어 있다. 이 네 가지 모두가 독서감상문에 흔히 들어가는 내용들이다. 책 가장자리에 있는 여자 아이, 남자 아이 만화캐릭터가 이 네 가지를 알기 쉽게 구분해놓아서 모두 잘 찾아 적었다.

다음으로 이 네 가지 가운데 누가 써도 똑같은 내용이 되는 것을 찾아보았다. 정답은 ‘책에 나오는 내용’이다. 대개 이걸 줄거리라고 한다. 줄거리는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쉽게 찾아 쓸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다. 이 문제도 모두 쉽게 풀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싶었다.

“독후감은 책을 읽고 난 뒤 책 내용에 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중심으로 쓰는 글이라서 줄거리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내용을 너무 길게 쓰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전혀 안 넣어도 안 됩니다.”

설명이 어려웠는지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조금 당황스러웠다. 무엇에 빗대어 이야기하면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고 잠깐 생각하다가 먹는 반찬을 떠올렸다.

“급식 때 한두 가지 음식만 골라 먹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편식요.”

“그렇습니다. 밥 먹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지요? 반찬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 것처럼 독후감을 쓸 때도 이 네 가지를 골고루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대부분 고개를 끄덕였다. 이 때 맨 앞자리에 있던 민석이 말했다.

“선생님, 그럼 게임도 골고루 하는 게 좋겠네요?”

이제야 반응이 제대로 나오는구나 싶어 얼른 대답했다.

“그럼, 게임도 골고루 하는게 조…. 뭐? 뭐? 뭐?”

아차 싶어서 눈을 휘둥그레 떠 보았지만 내 입은 이미 말더듬이가 되어버린 뒤였다. 잠잠하던 교실이 갑자기 웃음바다로 변했다.

“으흐흐.”

“키득키득”

구완이와 수민이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뭐가 그리 우스웠을까?

“그럼 TV 프로그램도 골고루 봐야겠네요?”

“만화책도 골고루 봐야하고요.”

여기저기서 골고루 시리즈가 튀어나왔다. 반응을 보이는 건 좋지만 터져 나오는 장난 끼를 말릴 수가 없었다.

“책을 읽게 된 동기는 거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전화를 시작할 때 ‘여보세요? 저 ○○입니다’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전화 끊을 때 ‘저 ○○입니다’하고 인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줄거리와 인상 깊은 장면은 여러 번 반복해서 써도 됩니다.”

자세를 바로잡고 설명을 더 해봤지만 이미 분위기는 쉬는 시간으로 가 버리고 말았다.

5월 7일 금요일

똑같은 할머니

급식시간에 옆에 앉은 시현이에게 물었다.

"시현아, 퀴즈 하나 낼게."

"뭔데요?"

시현이가 밥 먹다가 갑자기 무슨 퀴즈냐는 듯 나를 보았다.

"앞에 앉은 윤재와 용은이한테 이상한 점이 있어."

자기 이름이 나오자 윤재와 용은이도 눈이 동그래졌다.

"윤재 할머니와 용은이 할머니가 똑같이 생겼어."

"네?"

"글쎄 생긴 것도 똑같고, 밥 먹는 시간도 똑같고, 방귀 끼는 시간도 똑같아."

"설마요?"

시현이는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다. 윤재와 용은이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면 키득거렸다.

"진짜야. 잠자는 시간도 똑같고, 하품 하는 시간도 똑같대. 하여튼 모든 게 똑같대. 어찌된 일일까? 맞춰봐."

"헐~"

시현이는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그 모습을 보고 용은이와 윤재가 재미있다고 웃었다.

"그럼 힌트를 줄까?"

"네."

"음. 사촌."

"사촌이라고요? 뭐지?"

아주 중요한 도움말을 주었는데도 시현이는 도무지 눈치를 채지 못했다. 아마 촌수를 잘 모르는 모양이었다.

이 모습을 보고 먼저 밥을 먹은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여학생들은 윤재와 용은이가 살짝 이야기하자 대부분 알겠다는 눈치였다. 하지만 남학생들은 아무도 눈치 채지 못했다. 그래서 구완이한테도 물었다.

"구완아, 윤재 할머니와 용은이 할머니가 생긴 것도 똑같고, 응가 하는 시간도 똑같고, 옷도 똑같은 걸 입는데. 그리고 속옷도 똑같은 걸 입고 신발도 똑같이 생긴 걸 신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

구완이도 시현이처럼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여학생들이 웃긴다며 발을 굴렀다. 미경이는 답을 말하고 싶어서 가슴을 쳤다.

"아, 선생님 제가 답 말하면 안돼요?"

"안 돼. 잠깐만 참아."

구완이는 여전히 모르고 있는지 여학생들 눈치만 이리저리 살폈다.

"그럼 힌트를 줄게. 힌트는 사촌이야."

"예? 사촌이라고요?"

"그래."

"그게 뭐지?"

구완이가 모르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윤재, 용은이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여학생들 모두 하하하 웃었다.

정답은 윤재와 용은이가 사촌이어서 두 할머니는 같은 분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윤재 아빠와 용은이 아빠는 형제라는 얘기다. 사촌 사이인 윤재와 용은이가 우연히 같은 반이 되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사촌이 같은 반이 되기가 참 힘든데 윤재와 용은이는 인연이 참 깊다. 삼학년이 끝날 때까지 둘이 서로 힘이 되어주면 좋겠다. 그리고 엉뚱한 퀴즈를 만나서 혼난 시현이와 구완이에게 미안한 마음 전한다.

5월 10일 월요일

정훈이와 태현이

수학 시간이었다. 정훈이가 책상 위에 아무 것도 펴놓지 않은 채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는 짝지 태현이에게 말을 걸고 있어서 야단을 쳤다.

"정훈아, 책을 안 가져 왔으면 종합장이라도 내놓고 써야지. 아무 것도 안 하면 우짜노."

그러나 정훈이는 태연하기만 했다.

"종합장도 없는데요."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참고 조용히 일렀다.

"내일 학교 올 때 종합장 한 권 사 온나."

"네."

대답은 시원하게 했지만 믿을 수가 없어서 정훈이 손에 '종합장'이라고 써 주었다.

사실 오늘 정훈이를 더 혼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래야 정훈이도 마음을 바로 잡고 다른 친구들도 그 모습을 보고 배우기 때문이다.

내가 부글부글 끓는 속을 참은 것은 정훈이 짝지 태현이한테 배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태현이는 수업시간에 누가 말을 걸어도 모두 들어준다. 그러면서도 제 할 일은 다 해놓는다.

"선생님, ○○가 공부 방해하는데요."

한 번도 이렇게 고자질 하지 않았다. 오늘 수학시간에도 풀어야 할 문제가 많았지만 태현이는 부지런히 문제를 풀면서도 정훈이 이야기까지 들어주었다.

5월 초에 자리를 바꿀 때 정훈이 옆에 수학이꿈이가 된 태현이를 앉혔다. 정훈이가 수학 문제를 못 푸는 것은 아니지만 태현이 옆에 앉아서 집중하며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다. 그런데 태현이는 오히려 정훈이를 걱정하고 있었다. 태현이가 생각주머니에 써놓은 글이다.

‘이번에 수학이꿈이가 되었다. 짝지는 정훈이가 되었다. 정훈이가 잘 따라 할 지 걱정이 된다.’

이렇게 정훈이를 생각해주는 태현이가 참 고마웠다. 이런 태현이 모습을 보고 나도 정훈이한테 화를 안 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다.

급식소에서 점심 먹을 때 정훈이가 어제 태현이 생일파티 갔던 일을 나한테 자랑했다. 정훈이 말로는 태현이가 쪽지로 먼저 초대했다고 한다.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재미있게 놀다가 왔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태현이가 정훈이한테 참 좋은 친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태현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훈이가 이런 태현이를 짝지로 만난 것도 복이다. 태현이가 가진 좋은 점을 정훈이가 많이 배우면 좋겠다.

5월 11일 화요일

관찰하고 글쓰기

여섯째 시간에 생각주머니 공책을 들고 모두 운동장으로 나갔다. 곤충이나 식물을 관찰하고 글을 쓰기 위해서였다. 관찰하고 글쓰기는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스탠드에 아이들을 모아놓고 해야 할 일을 간단히 이야기하고 각자 나무 밑, 화단, 뒤뜰로 가도록 했다. 나는 먼저 뒤뜰로 갔다.

"여기 뭐 관찰할 게 있다고 보라고 해요?"

함께 뒤뜰로 갔던 남학생 몇몇이 의심스러운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아냐, 그렇게 일어서서 보면 아무 것도 안 보여. 앉아서 나무 막대로 뒤적이면서 봐."

못 믿는 것 같아서 내가 직접 나무 막대로 마른 나뭇잎 더미를 뒤집자 수많은 개미들이 기어 다니고 있었다.

"봐라. 개미들이 얼마나 많노."

"우와!"

그 모습이 신기했는지 모두 몸을 웅크리고 관찰하기 시작했다.

"여기도 개미다!"

"선생님, 독버섯 있어요!"

잠깐 살피더니 여기저기서 고함소리가 터져 나왔다. 기대했던 대로였다. 무심코 보는 것과 관심을 가지고 자세히 보는 것이 어떻게 다른 지 잘 알았으리라 믿고 앞뜰로 갔다.

앞뜰 화단에는 여학생들이 몰려있었다. 나도 여학생들 옆에 앉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관찰해보았다. 언뜻 보기에는 꽃, 풀, 나무 같은 식물이 먼저 눈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벌, 어린지네, 쥐며느리, 거미, 진딧물 그리고 이름을 알 수 없는 곤충들이 많이 보였다. 화단에서 이렇게 많은 곤충을 본 건 나도 처음이었다.

몇몇 용감한 여학생들은 '콩벌레'를 잡았으며 손바닥에 주워 담고 있었다. 진한 회색빛 몸에 튼튼한 갑옷을 입고 있는 벌레였다. 손바닥 위에서 몸을 웅크리니 정말 동그란 콩알 모양이 되었다. 그래서 '콩벌레'라고 이름붙였나 싶어서 자세히 보니 쥐며느리였다. 쥐며느리는 무엇에 놀라면 몸을 웅크리고 죽은 시늉을 한다고 책에서 본 적이 있다.

한참 재미있게 관찰을 하는데 저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규리 울음소리

였다. 규리는 평소에는 얌전하고 말도 크게 하지 않지만 울 때는 정말 큰 소리로 슬프게 운다. 다쳤나 싶어서 얼른 달려갔다.

"규리야, 왜 울어?"

몇 번을 물어도 규리는 울기만 했다.

"한별이 오빠야랑 은서가 콩벌레를 잡아서 규리한테 가져가서 놀렸대요."

옆에 있던 아이들이 일러주어서 보니 은서가 '콩벌레' 몇 마리를 들고 미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한별이는 벌써 도망가고 없었다. 규리는 벌레를 싫어하는데 장난한다고 '콩벌레'를 가까이 가져가니까 많이 놀랐던 모양이었다.

규리를 달래주고 나니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다. 아이들이 써온 글을 살펴 보았다. 자세하게 보고 쓴 글도 있었고 아직은 모자라는 글도 있었다. 그 중에서 관찰한 내용과 관찰할 때 있었던 일, 느낌과 생각이 잘 들어간 글을 몇 편 골랐다.

할미꽃

이운재

선생님이

“야 여기 할미꽃 있다.”

고 하여서 가보니 설명을 해주었다.

“이건 할미꽃 씨야.”

설명을 듣고 있는데 미경이가 와서 자기 엄마가 씨를 따갔다고 했다.

씨를 만져보니 푹 떨어졌다. 느낌이 조금 부드러웠다. 생김새는 할머니 흰 머리카락 같았다. 실제로 보니 신기하였다. 우리 학교에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

씨를 선생님에게 들고 가니

“할머니 머리카락은 좀 치워라.”

고 하였다.

나는 웃졌다. 선생님은 할머니 머리카락을 싫어하나?

콩벌레

양현수

콩벌레를 관찰했다. 몸이 동글동글해서 공놀이하기에 좋았다. 다리가 많고

기둥 모양이다. 너무 귀여웠고 만지면 공 같아지니까 신기했다. 줄무늬도 있었다. 왜 쿵벌레라고 지었을까. 공같이 둥글둥글 해서 쿵벌레인 것 같았다. 더듬이도 있었다. 쿵벌레는 둥글둥글 공 같아서 공놀이를 하고 싶다.

개미

권구완

뒤뜰에서 개미를 관찰했다. 개미를 따라갔더니 개미굴이 있었다. 개미굴에 개미가 열 마리 있었다. 개미굴이 작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개미는 작으니까 죽지는 않았을 것 같다.

개미굴을 뚫아보았더니 개미들이 다 도망쳤다. 개미는 목숨이 너무 아깝다. 사람이 모르고 뚫어도 죽고, 곤충이 먹어도 죽는다. 나도 이제부터 곤충을 아끼고 죽이지 말아야 되겠다.

매실나무

박찬기

밑에 매실이 떨어진 걸 보고 위에 보니까 매실이 있었다. 그래서 애들한테 알렸다. 적으라고 부른 게 아닌데 애들이 적으려고 했다.

그 다음엔 매실을 뚫으니 물이 옥 하고 튀어오는 것 같다. 너무 재미있어서 애들한테 말했다.

“애들아, 이리 와봐.”

라고 말했는데 애들이 몰려와서

“헐.”

이라고 말했다. 애들 얼굴이 웃겼다.

매실나무는 보면 그냥 나무 같은데 자세히 보면 안에 알 같은 게 있다. 그게 매실이다. 그래서 너무 신기했다.

불쌍한 버섯

이수민

곤충을 찾다가 버섯을 찾았다. 독버섯이다. 먹을 수 있는 버섯인지 알고 싶었다.

근데 조민석이 버섯을 두 번이나 괴롭혔다. 동협이는 버섯을 따서 던졌다.

왜 죽이는지 알고 싶다. 동협이랑 조민석이 장난으로 죽였다.

아무 생명이라도 죽이지 말아야 한다. 나는 생명을 함부로 죽이지 말아야겠다.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다. 너무 불쌍하다.

여왕개미

이혜민

하얀 꽃 위에서 여왕개미를 보았다. 그 여왕개미는 기린을 닮은 것 같다. 입이 쪽 빠져나왔다. 피가 많은 것 같다.

개미가 꽃 위에서 꿀을 먹는 것 같았다. 만져보니까 “횡” 날아갔다.

여왕개미는 날개가 있고 일반 개미는 날개가 없다. 왜 다를까. 나는 그게 궁금하다. 아마도 여왕개미가 높아서 그러나보다. 날개가 있으면 좋다. 위기에 처하면 날아갈 수 있고 여왕, 왕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여왕개미, 콩벌레, 나비를 키우고 싶은데 엄마가 못 키우게 한다. 나는 곤충들은 다 키우고 싶다.

관찰을 잘 하는 건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된다. 모든 공부는 보는 것에서 시작하니까 말이다. 오늘 한 연습이 밑거름이 되어 다음에는 더 자세히 보고 생각한 글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5월 12일

무슨 비밀일까?

지난 주 금요일 아침에 출근하는데 우리 반 여학생 예닐곱 명이 화장실에서 쑥덕쑥덕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싶어서 살금살금 다가갔더니 나를 보고는 모두 안으로 쑥 숨어버렸다. 도대체 재들이 무슨 일을 꾸미는 걸까 궁금했다.

"무슨 이야기 나눴는데? 좀 가르쳐 주라."

이렇게 사정해도

"몰라요. 선생님은 절대 알면 안돼요."

"저리 가세요."

하고 모두 모른 채 할 뿐이었다.

어제, 아래도 마찬가지로. 뭔가 일을 꾸미는 것 같은데 알아보려고 하면 저리 가라고 밀쳐버리거나 몰라도 된다는 말만 했다.

"선생님, 목요일 아침에는 아홉 시 반에 출근하세요."

"그리고 절대 교실로 먼저 오시면 안돼요."

기껏 한 마디 해준다는 게 이런 황당한 말 뿐이었다. 선생님들은 모두 여덟 시 사십분까지 출근해야 하는데 아홉시 반에 오라고 하질 않나, 출근하면 교실로 가야 하는데 교실에도 오지 말라고 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오늘 아침에는 한 술 더 떠서

"오늘 밤에는 늦잠을 자세요. 그리고 내일 열 시 넘어서 오세요."

하며 겁을 주었다. 언제는 아홉 시 반까지 오라더니 이젠 열 시 넘어서 오라고 하고, 늦잠까지 자라고 하니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다. 열 시 넘어서 오면 교장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그럴 수도 없었다.

수업이 끝나고 모두 집으로 간 뒤 가연이가 잠시 교실에 왔기에 살짝 물었다.

"가연아, 내일 무슨 일 있는데? 좀 가르쳐 줘."

가연이는 생글생글 웃기만 하더니

"몰라도 돼요. 묻지 마세요."

하고 핀잔만 받았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기에 모든 아이들이 무슨 비밀단체 직원처럼 말을 하지 않는 걸까. 정말 궁금하다.

5월 13일

감동 먹은 스승의 날 파티

아침에 출근해서 교실로 갔더니 출입문이 꼭꼭 닫혀있었다. 교실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려고 창문으로 눈을 살짝 뚫더니 문을 지키고 있던 아이들이 손바닥으로 가리며 못 보게 했다. 그래서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동협이랑 여학생 몇몇이 우르르 나오더니 밀어내며 경고했다.

"아홉 시까지 들어오지 마세요!"

이 말에 교실로 가지도 못하고 도서관 앞에서 기다려야 했다. 내게 감추고 싶은 비밀이 뭘까 참 궁금해 하면서 말이다.

"선생님 반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서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골마루를 서성거리고 있던 나를 보고 말했다.

"무슨 일을 벌이고 있을까요?"

"나중에 가 보면 알아요."

사서 선생님도 살짝 웃음만 지을 뿐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아서 궁금증은 더해갔다.

기다리다 시계를 보니 아홉 시까지는 5분 남짓 남았다. 그래서 1층에 내려갔다가 행정실에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나오는데 사서 선생님이 내려오며 일러주었다.

"선생님 뭐하세요. 반 아이들이 찾고 있던데요."

얼른 교실로 갔더니 다행히 이번에는 교실 문이 열렸다. 드디어 비밀의 문이 열린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교실로 한 걸음 들어서자 갑자기 머리 위로 폭죽 세 개가 펑펑펑 터졌다. 그리고 오색 종이 줄이 머리와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칠판에는 풍선이 한 줄 가로지르며 붙어 있고, 풍선 위에 '선생님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라는 글귀를 매직으로 써 놓았다. 책상 위에는 롤케익 두 줄에 꽂은 열 개의 초가 불을 밝히고 있었다. 정말 놀라운 풍경이었다.

"선생님 얼른 촛불 끄세요."

촛불을 보니 마치 내가 생일을 맞은 주인공처럼 느껴졌다. 입 바람을 "혹" 하고 불어 촛불을 끄자 모든 아이들이

"스승의 날 축하드려요."

하고 말해주었다. 고마워서 눈물이 날 뻔 했다. 이어서 몇몇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작지만 소중한 선물도 주었다.

6학년들도 준비하기 힘든 일을 어떻게 어린 3학년들이 이렇게 멋지게 준

비했을까? 지난주부터 준비한 비밀작전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너무나 대단하고 대견했다.

게다가 아이들 책상 위에는 개인용 접시와 컵이 하나씩 있고, 과자와 주스까지 담아놓았다. 어른들이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하나하나 준비한 걸 보니 놀랍고 또 놀라웠다.

두 달 남짓 함께 생활하며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는 나한테 스승의 날이라고 이렇게 감동을 느끼게 해준 아이들이 너무 고마웠다. 이 감동을 마음속에 잘 간직했다가 다시 아이들에게 되돌려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3학년 2반 사랑해요!”

5월 14일

우리 학교 이야기

5월 14일은 지금부터 29년 전, 그러니까 1981년에 우리 학교가 문을 연 날이다. 보통 개교기념일이라고 한다. 개교기념일을 맞으면 대개 하루 동안 학교를 쉬며 학교 역사를 새롭게 정리하기도 하고 그 뜻을 되새기기도 한다.

우리 학교에서는 개교기념일을 맞아 며칠 전부터 '구봉 30년 발자취전'이라는 주제로 중앙현관에서 전시회를 열고 있다. 지난 30년 동안 모은 학교 사진첩과 졸업앨범도 전시하고, 고장의 옛날 모습이 담긴 사진도 전시해서 우리 학교와 고장의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며칠 더 전시한다니까 아직 안 가본 사람은 꼭 가서 보면 좋겠다.

오늘은 개교기념일을 맞아 우리 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써볼까 한다.

'구봉'이라는 학교 이름은 '구지봉'에서 가져온 것이다. 구지봉은 학교 뒤에 있는 작은 산봉우리 이름이다.

'삼국유사'라는 책을 보면 지금부터 약 이천 년 전에 가락국 사람들이 구지봉에 올라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춤을 추면서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

라고 노래했다고 한다.

무슨 뜻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까? 그 때는 큰 나라도 없고 임금도 없던 시절이다. 그런데 나라가 점점 커져서 나라를 다스릴 임금이 필요했다. 그래서

"거북아 거북아 우리 임금님을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

이런 뜻으로 노래를 불렀다고 한다.

노래가 끝나자 하늘에서 붉은 보자기에 싸인 금빛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속에 들어있던 여섯 개의 황금색 알에서 태어난 사내아이들이 자라서 여섯 가야를 세우고 다스렸다고 한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사내아이가 우리 고장 금관가야를 다스린 김수로왕이다.

'구봉'이라는 학교 이름은 이런 전설이 깃들여 있는 구지봉에서 나왔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하도록 하자. 우리 학교가 서 있는 터에 관한 이야기다.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사방에 우리를 지켜주는 신비한 동물이 있다고 여겼다. 동쪽에는 푸른 용이, 서쪽에는 흰 호랑이가, 남쪽에는 봉황이 그리고 북쪽에는 거북이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 학교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동쪽인 왼쪽에 분성산 줄기가 길게 보인

다. 이 산이 바로 푸른 용이다. 오른쪽에는 호랑이 머리처럼 생긴 임호산과 호랑이 등처럼 생긴 경운산이 떡 버티고 서 있다. 이 산들이 바로 흰 호랑이를 나타낸다. 임호산의 '호'는 호랑이를 뜻한다.

푸른 용(청룡)과 흰 호랑이(백호)가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셈이다. 운동회 할 때 청군과 백군으로 나뉘서 왼쪽과 오른쪽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하면 이해가 쉽다.

학교에서 남쪽인 정면을 보면 봉황대라는 낮은 산이 보인다. 이곳이 바로 봉황이 커다란 날개를 접고 사뿐히 앉아 있는 곳이다. 그리고 학교 뒤편인 북쪽에는 김수로왕이 가야를 열었던 구지봉이 있다. 이곳이 바로 거북이를 나타내는 곳이다. 구지봉의 '구'는 거북이를 뜻한다.

그러면 가운데는 무엇일까? 중앙에는 황금빛 용이 있는 곳이다. 사람 가운데 황금빛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바로 임금님 밖에 없다. 그래서 가운데 지역에는 임금이 있는 궁궐이 선다고 한다.

우리 학교가 서 있는 곳에서 사방을 보면 마치 임금이 궁궐에서 사방을 둘러보는 것과 똑같다. 한 마디로 우리학교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궁궐터가 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우리 학교는 신비로운 전설이 깃든 이름과 다른 학교가 넘볼 수 없는 중요한 곳에 서 있다. 비록 지금은 주변에 큰 새 도시들이 생겨 그 쪽 학교들보다 학생 수도 적고 시설도 낡은 편이지만 그 학교들은 결코 갖지 못하는 전설과 역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학교를 소중히 여기면 좋겠다.

5월 17일

사회 숙제

사회 시간에 지난주에 냈던 '우리 고장' 조사하기 숙제 결과물을 살펴보았다. 하나하나 살펴보니 고장의 변화 모습을 사진으로 정리해오기도 하고, 고장의 이름에 대한 유래를 찾아오기도 했고, 고장의 역사를 연표로 정리해온 사람도 있었다. 또 고장의 문화재나 유적지를 그림지도로 만들어 오기도 했고, 고장에 전해오는 이야기를 정리해온 경우도 있었다.

신나게 놀아야 할 주말과 휴일에 시간을 쪼개어 숙제를 해온 사람들을 보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칠판에 모두 붙여 놓고 분단별로 감상하는 시간도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발표하기도 했다. 멋진 과제물 덕분에 사회 수업이 훌륭하게 끝났다.

대개 사회 조사 숙제가 있으면 인터넷으로 많이 해결한다. 그런데 몇몇 아이들은 직접 박물관이나 유적지를 찾아다니기도 했다고 한다.

수민이는 어제 엄마와 수로왕비릉을 찾아가서 그 곳을 둘러보고 자료를 가지고 왔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지 보고서가 아주 훌륭했다. 컴퓨터로 깔끔하게 만든 표지도 눈에 띄고 '인도에서 온 가야의 왕비, 허황옥'이라는 주제로 조사한 이야기도 흥미로웠다.

민서는 식구들과 함께 밀양까지 가서 옛날 사람들의 생활모습도 알아보고 지명(땅 이름)의 유래를 조사해왔다. 민서 말로는 김해와 관련 있는 자료가 밀양에서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규리는 숙제를 하려고 가야누리 박물관과 구지봉, 수로왕비릉을 둘러오느라 다리가 무척 아팠다고 했다. 토요일날 하루 종일 조사하고 일요일에 정리했다고 한다.

멋진 유적지 그림지도를 그려온 은서도 식구들과 김해박물관에 가서 조사했고, 찬기는 일요일에 시청에 갔더니 문이 닫겨서 조사를 못했다고 한다. 찬기는 비록 헛걸음을 하긴 했지만 그것도 좋은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이나 책을 보고 숙제를 한 사람들도 숙제를 멋지게 해왔다. 수민이는 아빠가 도와주었다며 조사해온 내용이 두꺼운 책만큼이나 많았다. 아빠의 관심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다. 현수는 고장 지명의 유래도 알아보았고 유적지 그림지도까지 그려왔다.

이 밖에 김해 역사 연표를 조사한 구완이와 경민이, 유물을 사진으로 정리한 수지와 예진이, 김해의 유래를 조사한 미경이, 수로왕 탄생신화를 조사한 용은이, 김해 유적지를 알아본 시현이와 윤재, 여의각에 관해 살펴본 태현이

도 숙제를 잘 해왔다. 우리 고장은 아니지만 다른 곳의 지명을 조사한 가연
이도 잘 했다.

이렇게 숙제를 한 사람 이름을 모두 쓰는 까닭은 조사 숙제가 얼마나 힘
이 많이 드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에 다른
일이 많아서 숙제를 내지 못한 사람들은 다음에는 더 멋지게 해올 거라고
믿는다.

끝으로 숙제를 하고난 뒤 친구들이 쓴 느낀 점을 살펴보고 글을 마무리한
다.

"나는 허황옥이 어떻게 그 먼 인도에서 우리 나라까지 올 수 있었는지 신
기했다. 그리고 가야가 유명한 나라여서 자랑스러웠다. 또 우리 동네여서 더
자주 갈 수 있고 문화재를 소중히 여겨야겠다." (정수인)

"너무 힘들었지만 즐거웠다. 김해가 옛날보다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많은 문화유적지도 있고 자랑스러운 곳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양현수)

"우리 김해가 이렇게 많은 역사를 이끌고 왔는 것을 몰랐는데 보니까 정말
놀랍다. 김해가 너무 대단하다." (남경민)

"문화재나 유적지를 소중히 생각하고 잘 보존해야겠다." (손은서)

5월 18일

민서가 준 웃음

과학 시간에 배추흰나비 애벌레에 관해 공부하고 있는데 민서가
"선생님! 저 6월 21일에 학교 못 올 수도 있어요. 저 여행 가요."
라고 말해서 잠깐 주의를 주었다.

"민서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았다가 이야기해야지. 그런 이야기를
이 시간에 불쑥 이야기하면 우짜노. 쉬는 시간에 해도 되잖아."

민서는 알겠다는 듯 입을 꼭 넣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딜 가는 지,
왜 가는 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수업 분위기가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좀 미
안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점심시간에 밥 먹고 있는데 민서가 쪼르르 다가왔다. 아까 수업 시간에 못
한 말을 하려고 왔구나 싶었다.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 저 6월 21일에 학교 못 와요. 21일이 월요일이에요."
라고 날짜와 요일까지 분명히 말했다. 민서가 아까부터 얼마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생각하니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응, 알겠다. 근데 어디가?"

"제주도요. 어쩌면 화요일도 못 올 수 있어요."

"왜?"

"제주도에서 오는 시간이 월요일 저녁이거든요."

"월요일 저녁에 오면 화요일에는 올 수 있겠네?"

"밤에 오니까 피곤하잖아요."

민서 말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다. 근데 갑자기 제주도에는
왜 간다는 건지 궁금했다.

"제주도까지 왜 가?"

"그 때가 우리 부모님 그거 있잖아요. 개교기념일이거든요."

고개를 끄덕이자 민서는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뭔가 잘못 들은 게 있나 싶어서 앞자리에 앉은 용은이한테

"용은아, 민서가 개교기념일이라고 했지?"

하고 물었더니

"네. 개교기념일이라고 했어요."

라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어쩌나 우습던지 한 동안 밥을 넘기지 못했다.
민서가 결혼기념일이라는 말을 퍼뜩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았다. 지난주에 개
교 30주년 기념 전시회와 체육대회를 했던 것이 민서 마음에 많이 남았던

모양이었다.

용은이 옆에 있던 윤재가

"부모님 결혼기념일 아니에요?"

라고 해서

"그리게 말이야."

하고는 셋이서 한참 웃었다.

민서는 언제나 활력이 넘치고 웃음도 준다.

5월 19일

조심스런 실내 생활

아침부터 진주로 출장 가는 바람에 학교에 나오지 못했다. 출장 다녀와서 구지초등학교 체육 연수회에 갔더니 옆 반 선생님이 와 있었다. 안 그래도 담임이 없었던 우리 교실이 어땠는지 궁금했던 참이었는데 잘 됐다 싶었다.

"오늘 내가 없어서 선생님이 신경 쓰느라 고생 많았지요? 아이들은 잘 따르던가요?"

"네, 큰 일 없이 생활 잘 했어요."

옆 반 선생님 말을 들으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담임님이 출장 가고 없을 때 싸움이 붙거나 교실이 소란스러우면 괜히 다른 반 선생님들에게 미안해지니까 말이다. 역시 우리 반 아이들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 반 선생님이 컷속말로

"쉬는 시간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라고 해서 느낌이 조금 이상했다.

"왜요?"

"교장선생님이 위에서 쿵쿵거리한다고 뭐 하는 지 가 보라고 했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우리 반 아이들이 쿵쿵거리며 뛰어 다녔나 싶었지요.

"그래서 가 봤어요?"

"네, 가보니까 쉬는 시간이라서 그냥 살구도 하고 화장실도 가고 별 일 없던데요."

"그럼 다행인데..."

아마 쉬는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교장실까지 들렸던 모양이었다. 속으로 한숨이 나왔다.

우리 학교는 옛날 건물이라 층간 두께가 얇다. 그래서 위층에서 책걸상을 옮기기만 해도 아래층에서 들으면 소리가 크게 들린다.

이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실내에서 사뿐사뿐 걷기이다. 그래서 온 학교 선생님들이 실내생활에 신경 쓴다. 특히 우리 반은 교장실 바로 위에 있어서 다른 선생님 보다 두 배 더 신경 써야 한다.

어제 교장실에 들렀을 때 교장선생님이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3학년 2반 자꾸 쿵쿵거리면 방 뻘다."

자꾸 소리가 나면 교실 옮긴다는 말이다. 농담으로 하셨지만 주의하라는 뜻이다.

걸어 다니거나 책걸상을 옮길 때 소리가 나는 것은 할 수 없다. 건물을 허술하게 지은 게 잘못이니까. 하지만 실내에서 뛰는 건 좋지 않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깝요. 이걸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5월 20일

애벌레 구출작전

쉬는 시간에 배추흰나비 재배상자를 살펴보니 애벌레 한 마리가 앞에서 떨어져 그물망에 걸려 있었다. 앞에서 먹이를 먹고 있는 다른 애벌레들에 비해 덩치가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웅크린 몸을 보니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손으로 톡톡 쳐봐도 반응이 없었다. 아이들이 와서 보더니 물었다.

“선생님 애 죽었어요?”

“응, 죽은 것 같다.”

“불쌍해라.”

애벌레가 불쌍한지 민석이가 손가락으로 몇 번 건드렸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자꾸 건드리지 마라. 다른 애벌레들도 떨어질라.”

이렇게 부탁하고 수업 준비를 하는데 몇몇 아이들이

“선생님, 애벌레 살아있어요.”

“애벌레 움직여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

“정말?”

은서가 돋보기로 크게 보았더니 애벌레가 움직이더라고 했다. 찬기도 돋보기를 들고 와서 애벌레를 살펴보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정말 몸이 꿈지락거리며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서 당장 애벌레 구출 작전에 들어갔다.

“가만, 이 조그만 걸 어떻게 잡지?”

애벌레 덩치가 너무 작아서(약 7mm) 잘못 건드렸다간 바로 죽을 것 같았다.

“종이를 잘라서 그 위에 얹으면 되잖아요.”

“휴지에 올리세요.”

이런 저런 아이디어가 나왔지만 먼저 그물 속에 갇힌 애벌레를 꺼내야 했다. 조심조심 그물을 들춰 애벌레를 잎 가까운 곳에 살짝 떨어뜨려 놓았다. 그물을 살짝 누르자 녀석이 잎 냄새를 맡은 듯 머리를 실룩실룩 움직였다. 이제 남은 건 그물 틈 사이로 들어가서 앞으로 옮겨가기만 하면 되었다.

“제발 들어가라.”

“아, 제발.”

옆에서 지켜보던 아이들도 모두 안절부절 이었다.

하지만 애벌레는 쉽게 들어가지 못했다. 다시 그물을 잎 가까이 붙이고 조금 기다리니 드디어 그물 틈 사이로 머리를 집어넣었다. 꼬물거리던 녀석이 앞으로 몸을 옮겨갈 때까지 제법 시간이 걸렸지만 조용히 지켜보았다. 마침내 온 몸이 앞으로 옮겨가자 지켜보던 아이들 모두

“와, 성공이다!”

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그리고 잎 위에서 몸을 꾸물거리는 애벌레를 기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애벌레를 옮겨놓고 생각하니 새삼 은서가 대단하게 보였다. 재배상자를 가져올 때부터 돋보기를 챙겨온 사람은 은서뿐이었다. 결국 그 돋보기가 애벌레 한 마리를 살린 것이다.

“은서가 돋보기를 가져오지 않았으면 애벌레를 죽일 뻔 했어. 고마워.”

은서에게 이렇게 말하자 흐뭇한 표정을 지었다. 은서 뒤에 돋보기를 가지고 와서 부지런히 관찰하는 찬기도 과학자처럼 든든했다.

5월 24일

김해의 인물 찾기

사회시간에 '우리고장의 자랑스러운 인물'에 관해 공부했다. 지난주에 조사 숙제를 냈지만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함께 알아보기로 했다.

"우리 고장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자랑스러운 인물은 누구입니까?"

질문이 끝나자마자

"김수로왕요."

하는 대답이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요."

하는 대답도 나왔다.

마치 과거와 현재를 대표하듯 두 사람 이름이 나란히 나왔다. 두 이름을 칠판에 쓰고

"이 두 사람 말고는 생각나는 인물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동안 잠잠했다. 딱히 떠오른 이름이 없던 모양이었다. 그런데 성진이가

"노무현 대통령은 자살했잖아요?"

하고 말했다. '자살'이 성진이에게는 안 좋게 비쳤던 모양이었다.

"자살은 했어도 살아계실 때는 우리나라를 이끈 대통령이셨잖니. 그러니 자랑스러운 인물이지."

라고 말하니 성진이도 고개를 끄덕였다.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자 잠잠하던 교실이 갑자기 바빠졌다.

"선생님 저 어제 우리 가족들과 봉하마을에 갔어요."

"우리는 창원(에서 있었던 추모행사에) 갔는데."

"저는 노무현 뺏지 달고 왔어요."

마침 어제가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라서 봉하마을과 창원, 부산에서 추모행사가 있었다. 우리 교실에도 그 분위기가 느껴졌다.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흐르는 듯해서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끊고 고장의 인물 찾기를 계속 했다. 하지만 아이들 입에서 나온 인물은 김수로왕의 부인이었던 허황옥 뿐이었다. 김해에 이렇게 인물이 없나 싶었다.

잠시 뜸한 틈에 몇몇 개구쟁이들이

"이순신 장군요."

"세종대왕요."

하고 장난스럽게 발표를 하기도 했다.

결국 인터넷에 들어가 찾아본 결과 임진왜란 때 김해를 지키다가 순국한 사충신(김득기, 송빈, 유식, 이대형)과 김해출신 한글학자 허웅(1918~2004) 선생을 찾을 수 있었다.

여태껏 찾은 이름을 칠판에 써놓고 보니 왠지 초라한 느낌이 들었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있었으면 수업이 더 활발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하는 수 없이 이 사람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에 관해 각자 더 조사하기로 했다.

숙제를 내기만 하다가 직접 찾아보니 아이들이 얼마나 어렵게 숙제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무심코 던지는 숙제인데 아이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다. 앞으로는 숙제를 낼 때 좀 더 신중해야겠다고 숙제를 잘 해온 아이들에게는 칭찬을 많이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이날 저녁에 인터넷에서 김해출신 영화배우 송강호를 찾아서 이튿날 아이들에게 알려주었다.

5월 25일

아침 글쓰기

아침 시간에 아이들이 내 놓은 생각주머니 공책을 읽어보니 눈에 띄는 글이 하나 있었다. 태현이가 쓴 글이었다.

5월 17일 월요일 바람이 불지 않고 구름이 열게 낀

어제 컴퓨터에서 '네모의 꿈'이란 노래를 들었다. 그 노래에서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라고 했다.

오늘 학교에 오니 네모난 학교에다 네모난 공책에 네모난 칠판에 거의 다 네모였다. 이 노래가 세상을 보며 부른 노래인 것 같다. (김태현)

태현이는 남자치고는 감성이 풍부하다. 쓴 글을 읽어보면 보통 남자 아이들과 다른 부드러움이 느껴진다. 그래서 읽는 맛이 있다.

아이들한테 공책을 나눠주기 전에 태현이 글을 읽어주었다. 그리고 글 쓰는 방법에 관해 잠시 이야기했다.

"태현이 글 참 좋지요? 태현이처럼 보았거나 겪었던 일을 떠올려보고 느낌이나 생각이 또렷했던 걸 잡아서 쓰도록 하세요."

태현이 글이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책을 나눠주었다. 시계를 보니 수업 시작이 10분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 쓰도록 하세요."

이렇게 말하고 보니 앞뒤가 맞지 않았다. 좋은 글을 쓰게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없다고 빨리 쓰자고 했으니 말이다.

10분 쯤 지나자 다 쓴 아이들이 잇따라 나왔다. 몇 편 읽어보았다.

5월 25일 화요일 햇빛이 안 보인다.

배추흰나비가 작았는데 길쭉하게 됐다. 너무 놀랐다. 그런데 하루를 지냈는데 번데기가 되어있었다. 너무 놀랍고 기쁘다. 어서 배추흰나비가 되면 좋겠다. (김수지)

5월 25일 화요일 춥다가 점점 더워진다.

아침에 와서 배추흰나비 재배상자 안을 보니까 잎이 원래 많았는데 애벌레가 갉아먹어서 잎 중간이 뺨 뚫려 있었다.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강민서)

수지와 민서는 배추흰나비 재배상자 본 것을 썼다. 아침에 학교에 와서 재배상자를 관심 있게 보았던 모양이다. 둘 다 본 것을 잘 잡아 썼다.

5월 25일 화요일 조금은 쌀쌀하다.

반에 들어오니 여자 아이들이 살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 자리에서 그냥 손으로 살구 연습을 했다. 나도 이제 가연이처럼 잘 하려고 다짐을 했다. 이젠 여자 애들이 살구를 할 때 같이 하자고 해야지. (문예진)

예진이 글을 보니 살구를 더 잘 하고 싶은 예진이 마음이 잘 드러나 있었다. 실력을 키우려고 손으로 살구 연습을 하는 예진이 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다.

시계를 보니 벌써 9시 10분이었다. 수업 때문에 시간을 더 끌 수가 없어서 모두 공책을 내라고 했다. 아이들이 공책을 들고 나올 무렵 밖에서 지방선거 유세차량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소리가 크게 들려왔다. 트로트 곡이었다. 아이들이 웃었다. 구완이가 공책을 내며

“선생님, 지방선거 때문에 시끄러워 죽겠어요. 집에 있어도 시끄러워서 공부도 제대로 못해요.”

하며 짜증 섞인 투로 말했다. 구완이 생각주머니를 보니 아침에 했던 딱지 이야기를 써놓았다. 이왕이면 방금 한 말을 그대로 옮기면 더 좋을 것 같았다.

“구완아, 딱지 이야기도 좋은데 방금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글로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구완이는 좋다며 한 편 더 쓰겠다고 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이들도 덩달아 나섰다. 지방선거에 대해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다. 대여섯 명이 냈던 공책을 다시 가져갔다. 어떤 글이 나올 지 궁금했다.

몇몇 아이들이

“선생님, 6월 2일 날 학교 와요?”

하고 물었다.

“지방선거 날 학교 안 온다.”

하고 답했더니 모두들

“앗싸, 지방 선거도 좋은 점이 있네.”

하며 글을 썼다.

잠시 뒤에 다 썼다며 가져온 글을 살펴보았다.

5월 25일 화요일 조금 맑아졌다.

아침에 학교에 오는데 지방선거 때문에 귀가 터질 것 같았다. 학교에서 생각주머니를 쓰는데 지방선거 노래가 나와서 아이들이 웃었다.

지방선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조용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방선거 하는 날은 좋은 날이다. 학교도 안 가고 학원도 안 가기 때문이다. 빨리 6월 2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권구완)

5월 25일 화요일 바람이 쨍쨍

요즘 지방선거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 짜증난다. 나는 9번 송윤한 아저씨를 뽑을 것이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들은 못 한다고 했다.

송윤한 아저씨를 뽑으면 김해가 더 좋은 곳이 될 것 같아 뽑을 것이다.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선거를 못 한다고 했다. 나쁘다. (남경민)

수업 시간은 조금 희생했지만 구완이 덕분에 놓칠 뻔한 글을 몇 편 잡은 셈이다. 오늘 글쓰기 경험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해본다.

5월 26일

그래, 너희들은 나비다

오후에 배추흰나비 채배상자에 새 배춧잎을 넣어주었다. 오전에 아이들이 가져온 상추를 넣어주었지만 애벌레들이 근처도 가지 않아서 급식소에서 얻어온 배춧잎이다.

양상한 케일 줄기에 매달린 애벌레들을 새 배춧잎으로 옮겨놓으니 다행히 꼬물꼬물 잘 먹었다. 녀석들이 잎을 먹으며 꼬물거리는 모습을 보니 어제 일이 생각났다.

과학 시간에 배추흰나비 애벌레와 번데기의 다른 점에 관해 공부했다. 겉 모양, 움직임, 먹이, 크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가운데에서 움직임만 살펴보면 애벌레는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번데기는 한 곳에 붙어 있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 부분이 끝났다.

“애들아. 난 너희들이 쉬는 시간에는 애벌레가 되고 공부 시간에는 번데기가 되면 좋겠다.”

내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아이들이 무슨 얘기냐고 물었다.

“쉬는 시간에는 자유롭게 움직이니깐 애벌레와 같잖니. 하지만 공부시간에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니까 번데기와 같은 거지. 그런데 너희들은 공부시간에도 애벌레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니깐 하는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해가 된다는 표정들이다.

“그럼 공부시간에 번데기처럼 꼼짝 않고 있어야 되겠네요?”

은서 말에 남학생 몇몇이 마네킹 흉내를 냈다.

“필기는 어떻게 해요? 꼼짝도 못하는데.”

찬기는 한술 더 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자리에 앉아있어야 한다는 거지. 공부시간에도 너희들은 이야기하고 돌아다니잖아.”

진지한 내 말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아이들을 보니 화가 슬슬 올라왔다. 그런데 이런 내 모습조차 아이들은 쉽게 비켜갔다.

“그럼 집에 갈 때는 나비가 되는 거네요?”

“학원 갈 때도 나비겠네?”

“와 좋다. 나는 나비다.”

어느 새 상상의 세계를 드나들고 있는 아이들 모습을 보고 그만 말을 접었다. 여기저기서 나비로 변한 아이들이 훨훨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그래 너희들은 나비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수업을 마쳤다.

5월 27일

정보 찾기

컴퓨터실에서 하는 '컴퓨터와 생활' 시간이었다. 인터넷 나들이를 하며 필요한 정보를 찾는 공부를 했다. 주제는 '내가 추천하는 도서를 찾아 친구들에게 소개하기' 였다.

교재에는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책을 고르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인터넷 서점은 자료가 너무 많아 삼 학년들이 헤엄치며 자료를 찾기에는 너무 큰 바다와 같은 곳이다. 더구나 오늘은 첫 인터넷 나들이 공부다. 그래서 좋은 어린이도서를 연구하는 '어린이도서연구회' 누리집에 들어가서 찾아보도록 했다. 이곳에는 늘 좋은 책 목록을 올려놓는다.

공부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1. 검색사이트에서 '어린이도서연구회' 찾기
2. '어린이도서연구회' 누리집에서 추천도서 찾기
3. 읽고 싶은 책 한 권 고르기
4. 우리 반 누리집에 들어가서 고른 책 정보 올리기
5. 친구들이 올려놓은 책 정보 가운데 세 개를 골라 학습장에 기록하기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라면 10분 안에 해낼 수 있는 공부다. 그러나 정보를 찾고 다루는 일이 익숙하지 않은 삼 학년들에게는 쉽지 않은 양이다.

먼저 ‘다음’, ‘네이버’, ‘야후’ 같은 검색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린이도서연구회’ 누리집을 검색해서 들어갔다. 이 누리집에 첫 화면에 ‘2010 어린이 청소년 책’라는 상자를 띄워놓았다. 상자를 누르고 들어가서 학년과 책 종류를 선택한 뒤 ‘검색’ 단추를 누르면 책 목록이 나온다.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책을 선택하고 책이름, 지은이, 출판사를 교재에 써야 하는데 지은이와 출판사를 쉽게 찾지 못했다. 검색 결과를 보면 이렇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J.M. 바스콘셀로스 원작, 이희재 그림, 청년사, 2003년, 376쪽, 1만5천원

위에 있는 책 제목은 책 표지 그림과 함께 있어서 알기 쉽다. 그러나 아랫줄에서 지은이와 출판사를 찾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었다.

이 검색 결과에서는 J.M. 바스콘셀로스가 지은이, 청년사가 출판사다. 어떤 책은 외국인 지은이 이름, 우리 말로 옮긴이 이름, 그림 그린이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더 알기 어려웠다.

둘러보니 정확히 찾은 아이가 서너 명 뿐이었다. 그래서 일일이 다니며 지은이와 출판사를 손가락으로 짚어주었다. 어린이도서연구회에서 목록을 올릴 때 어린이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고쳐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다음으로 찾은 정보를 우리 반 누리집 ‘학습마당’ 게시판에 올리기를 했다. 발표 대신 다른 아이들이 보도록 하기 위해서다. 책 이름, 지은이, 출판사 그리고 간단한 책 소개를 넣도록 했다. 모두 어린이도서연구회 누리집에 있는 내용이다.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 타자가 문제였다. 타자가 느린 아이들이 많아 하나하나 입력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시계를 보니 남은 시간이 10분도 남지 않았다. 시간은 물 흐르듯 흐르고 아이들 손가락은 높은 산 오르는 발걸음처럼 느렸다. 이걸 대신 쳐줄 수도 없으니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주에 타자검증을 했을 때 1분에 150타 넘는 아이가 6명, 100~150타 사이가 5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100타가 안 됐다. 100타가 안 되면 두 손가락으로 치는 것과 같다. 타자수는 정보를 다루는 속도와 같다. 아이들이 집에서 타자 연습을 많이 해오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

시계를 보니 벌써 쉬는 시간이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반이 들어오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 남아 있는 활동을 마저 했다. 이제 친구들이 올려놓은 책 소개를 보고 마음에 드는 것을 세 개 골라 교재에 쓰는 일만 남았다.

반 누리집에 올라온 글은 모두 아홉 개였다. 나머지는 아직 열심히 올리고 있었다. 소개를 다 올린 아이들에게 다른 아이들이 올린 것을 보고 세 개를 골라 적도록 했다. 그리고 써 온 아이들은 먼저 교실로 보냈다. 그렇게 쉬는 시간 10분을 다 썼을 때 절반 정도가 검사를 맡고 교실로 갔다. 조금 있으니 다른 반 아이들이 들어와서 다 못한 아이들은 자리를 비켜주어야 했다.

별 내용이 없는 듯한 공부였지만 삼 학년들과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몇 번만 하다 보면 삼 학년들도 쉽게 하게 될 것이다. 저학년에게는 학습 내용 수준 보다는 과정이 어렵다는 것을 이번 수업을 하면서 다시 느끼게 됐다.

그래도 열심히 해준 우리 반 아이들 최고!

5월 28일

티볼 경기

체육시간에 처음으로 티볼 경기를 했다. 티볼은 야구와 비슷하다. 경기장 모양이나 경기 방법, 규칙 모두 비슷하다. 다른 점이라면 던지는 사람 없이 고무막대 위에 공을 얹어놓고 치는 것이다. 또 공이 압축한 스펀지 같고 고무방방이를 쓰기 때문에 안전하다.

우선 청군 백군으로 편을 갈랐다. 경기 규칙을 설명하자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다는 표정들이었다. 갖가지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1루가 뭐예요?"

"어디로 뛰어가요?"

"공을 잡으면 어디로 던져요?"

야구를 할 줄 아는 아이는 수민이와 찬기 뿐이었다. 더 설명하는 것 보다 직접 해보며 배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일단 경기를 시작했다.

경기를 하면서 방망이 잡는 법, 공치는 법, 공을 치고 나서 해야 할 일, 수비가 공을 잡아서 던져야 할 곳을 일일이 말해주었다. 또 파울인 경우, 아웃인 경우, 공격과 수비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 점수가 나는 경우를 하나하나 짚어주었다. 이 모든 것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다.

경기는 재미있게 진행되었다. 청군이 앞서다가 백군이 동점을 만들고, 백군이 역전시키자 또 청군이 역전시키며 아주 재미있었다. 점수가 엮히락뒤치락 하다보니 경기 규칙도 빨리 익혀나갔다. 끝 무렵이 되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고 경기를 해나갔다.

네 번씩 공격과 수비를 주고받은 결과 11대 8로 청군이 이겼다. 그러나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표정이었다.

"다음 시간에도 해요."

"내일 생일잔치 마치고 이 게임 해요."

마치고 교실로 들어오는 길에 여학생 몇 명이 따라오며 기어코 내 다짐을 요구했다. 그래서 내일 한 번 더 하자고 답해주었다.

한 시간 내내 소리를 질렀더니 목이 아팠다. 그러나 즐거워하는 아이들을 보니 아픔도 기쁨이 되는 듯하다.

5월 29일

선생님의 건망증

출근해서 교실에 들어오는데 '아차' 싶었다. 5월 생일잔치에 쓰려고 사 둔 초코파이를 안 가져온 것이다. 잊고 갈까봐 출입문 앞에 눈에 띄도록 두었는데도 그냥 와 버렸다. 샀을 때 바로 차에 넣어두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쉬웠다.

초코파이 때문에 집에 다시 갔다 오기도 그렇고, 학교 주변에는 잠깐 다녀올 만한 거리에 상점도 없었다. 주위 사람들 도움을 구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

먼저 교무실, 행정실, 유치원에 가서 빵이나 초코파이를 찾았지만 없었다. 급식소에는 올려놓은 떡이 있었지만 그걸 녹여서 초를 꽃으려면 두 시간은 걸리겠다 싶어서 포기했다.

마지막으로 전체 교실에 메시지를 보내 초 꽃을 만한 음식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보내달라고 했다. 조금 있으니 옆 반에서 초코파이만한 크림빵 두 개를 갖다 주었다. 그게 전부였지만 초라도 꽃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종이상자 위에 빵 두개를 올려놓고 초를 각각 두 개씩 꽃으니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여태껏 보아온 케이크 중에서 가장 없어보였다. 생일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했더니 몇몇 아이들이 혀를 찼다.

"건망증이 그렇게 심하세요?"

"오늘 생일잔치 하는 애들 불쌍하다."

생일 맞은 아이들도 왜 하필 자기가 할 때 잊어버렸냐며 아쉬운 소리를 했다.

"우리한테는 늘 잊어먹지 말고 가져올 거 가져오라고 하면서 선생님은 왜 잊어먹어요?"

미경이는 굉장히 뼈아픈 말까지 해주었다. 맞는 말이다. 야단맞아도 어쩔 수 없었다.

내 건망증 때문에 케이크는 볼 품 없었지만 생일잔치는 그럭저럭 잘 진행됐다. 더구나 찬기 어머니께서 맛있는 떡을 보내주셔서 맛있게 나눠먹으며 생일파티를 즐겼다.

"애들아,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아이스크림 한 개씩 쏜다."

5월 31일

학습일기 시상

아침 조회 시간에 지난 오월 한 달 동안 학습일기를 잘 쓴 아이들에게 상을 준다고 했다. 정말 열심히 쓴 아이들이 몇 명 되는데 우리 반에는 누구 이름을 부르지 궁금했다. 아이들도 관심을 갖고 텔레비전을 바라보았다.

교무 선생님이 수상자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다. 먼저 3학년 1반 아이 이름을 한 명 불렀다. 다음은 우리 반이다. 누구까? 살짝 긴장이 됐다.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걱정도 했다. 그런데 우리 반을 건너뛰고 바로 3학년 3반 아이 이름을 불렀다. 우리 반은 없다는 뜻이었다. 설마 없을까 싶어서 기다려도 교무선생님 입에서 더 이상 3학년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아이들과 나 모두 멍한 눈으로 텔레비전을 바라보았다. 텔레비전에는 수상자들이 상을 받고 있었다. 그렇게 떠들기 좋아하던 아이들이 가만히 입다물고 눈만 깜빡이고 있었다. 부지런히 썼던 아이도, 쓰지 않았던 아이도 우리 반 아이 이름이 없는 게 섭섭한 모양이었다.

"선생님, 오늘은 어디까지 공부한 거예요?"

쉬는 시간마다 예습, 복습 자료를 들고 와서 학습일기에 쓸 내용을 물었던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다.

"방금 공부한 것도 모르나? 니가 찾아서 써야지 묻긴 왜 묻노?"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핀잔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물어보던 가연이, 미경이, 용은이, 현수, 수인이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가연이는 그렇게 쓴 내용이 공책 한 권이 다 됐다. 재미있는 일도 아닐텐데 밤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써나갔을 가연이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선생님, 저 어제 이만큼 썼어요. 저 잘 했지요? 해해."

아침이면 어김없이 내 책상에 와서 학습일기 공책을 펴 보이던 가연이의 밝은 미소를 보니 왠지 괜히 내가 미안했다.

"얘들아, 학습일기 상 못 받았다고 너무 섭섭해 하지 마. 교장선생님도 써오는 아이들 모두에게 상을 주고 싶으셨을 거야. 하지만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시니까 다음에는 받을 수 있도록 더 잘해서 받도록 하자. 그리고 학습일기는 복습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상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상 못 받아도 복습하는 습관만 기른다면 그게 더 큰 상이라고 생각해. 6월에도 열심히 해보자."

6월 1일

귀신 이야기

지난주에 아이들에게 들려주다가 중간에 끊은 귀신 이야기가 한 편 있다. 한참 진지하게 들려주고 있는데 집에 갈 시간이 되어서 다 못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장면에서 그만 둔 탓에 아이들 불만이 하늘을 찌른다.

"귀신 이야기 해주세요!"

틈만 나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송장! 송장! 송장!"

하며 합창을 한다. 그 때마다

"알았다. 들려줄게."

라고 말한 게 벌써 일주일이었다. 재미있는 내용이 아닌데도 아이들은 일주일 동안 속이 타도록 기다린 것이다.

오늘은 하루 종일 난리였다. 쉬는 시간, 수업 시간 가리지 않았다.

"송장이 선비한테 뭐라 말했는데요? 그 부분만 얘기해주세요. 제발요."

"선생님은 왜 약속을 안 지키세요? 혹시 뒷이야기를 모르는 거 아녜요?"

늘 주장이 많은 민서는 물론이고 평소에 말이 적은 구완이도 거들고 나섰다. 이야기에 목매는 아이들을 보니 이야기 한 편 가지고 너무 질질 끌었나 싶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마음 폭 놓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 하지만 지난 오월에 행사가 많다 보니 진도가 너무 늦어버렸다. 유월에도 지방선거, 환경 체험학습, 환경학예행사가 줄을 잇는다. 아무리 행사를 많이 해도 기말고사는 예정대로 치르기 때문에 한 시간도 여유가 없다.

게다가 수업 시간이라고 해서 진도만 나갈 수 있는 건 아니다. 숙제, 일기, 학습일기, GPS 책을 점검해야 되고, 단원평가나 수행평가도 치러야 한다. 이름표 달아라, 복도에서 뛰지 마라, 싸우지 마라, 교과서 가져와라, 칠판 봐라, 잡담 하지 마라, 청소는 하고 가라, 우유 좀 마셔라 같은 잔소리도 해야 한다. 이런 걸 다 하기에 40분은 너무 짧다. 그렇다고 쉬는 시간까지 앓혀놓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변명이 너무 길었다. 어쨌든 오늘은 꼭 이야기를 들려주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또 못했다. 과학 시간에는 자투리 시간을 만들었지만 자리 바꾸기를 했다. 특활 시간에는 GPS 책 기록하느라 못했다.

아이들을 집에 보내고 생각하니 정말 미안했다. 진도 걱정 한다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그깟 이야기도 못해주나 싶었다. 시간이 나면, 여유가

있으면 해준다는 생각 보다는 아이들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게 먼저일 것 같다.

“애들아, 재미없는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어주는 너희들이 참 고맙다. 이번 주가 가기 전에 꼭 나머지를 들려줄게. 그런데 설마 공부하기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니겠지?”

6월 3일

"선생님 먼저 잘 하세요!"

출근길에 조금 정신이 없었다. 차가 고장나서 서비스센터에 맡기고 택시를 잡으려는데 1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시계를 보니 이미 출근 시간은 넘어섰다. 게다가 오늘은 울산으로 체험학습을 가는 날이라 마음이 급했다.

겨우 택시를 잡아 타고 학교에 오니 출발 10분 전이었다. 운동장에는 버스가 기다리고 있었다. 헐레벌떡 교실로 뛰어 들어오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지만 다행이었다.

아이들 데리고 나오려는데 옆반 선생님이 며칠 전에 나눠 준 설문지 내고가라고 했다. 오늘까지 내야 된다고 했다. 낸 아이들 숫자를 세어보니 스무명이었다. 여섯 명이나 내지 않았다.

"우리 반은 다 가져왔는데 이 반은 왜 이리 많이 안 냈노?"

옆반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안 그래도 정신이 없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니 은근히 화가 났다. 안 낸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고 한바탕 잔소리를 했더니 은서가 따졌다.

"선생님이 금요일까지 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직 설문지를 집으로 가지고 가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 말을 들으니 화가 더 났다.

"내가 언제 금요일까지 가지고 오라고 했노? 화요일에 가져오고, 안 되면 목요일까지 가져오라고 했지."

옆에 있던 아이들이 모두 내 말이 맞다고 하자 은서가 한 발 물러섰다. 옆반 선생님이 이 모습을 보고 딱하다고 생각했는지 낸 거라도 주고 가자고 했다.

아이들을 차에 태우면서도 화가 풀리지 않았다. 그래서 설문지 안 낸 아이들은 차에 안태운다고 엄포를 놓고 내일 꼭 가져온다는 다짐을 받고 나서 태웠다.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답임을 하는 반은 학교에 낼 것이 있을 때 안 내는 아이가 많거나 늦게 내는 편이다. 이런 일로 다른 선생님들한테 눈총을 받으면 꼭 아이들을 먼저 탓한다. 나쁜 버릇이다.

한 발만 물러서서 생각해보면 아이들 잘못은 적다. 부모님이 집에 없거나 늦게 들어와서 못할 때도 있고, 있더라도 바빠서 못 할 수도 있다. 또 일이 있어서 식구들끼리 어딜 다녀오면 할 시간이 없을 때도 있다. 잊고 안 내는 아이가 한두 명은 있겠지만 이건 어떤 반을 맡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야단

치기 전에 아이들 사정을 하나하나 들어보는 게 좋다. 이걸 알면서도 당장 급하다고 또 화가 난다고 오늘도 먼저 아이들에게 야단을 쳤으니 나도 어지간히 못된 선생이다.

사실 무엇을 잊어버리기로는 아이들보다 내가 더 심하지 않은가. 오늘만 해도 세 가지나 잊었다. 출발하기 전에 아이들이 쓸 필기구도 안 챙겼고, 간식사 줄 학교카드도 가져가지 않았다. 또 학교 도착해서는 버스에 도시락통을 그대로 두고 내렸다. 그래서 버스 기사님이 택시로 도시락통을 보내주기도 했다. 이러고도 아이들 탓할 자격이 있을까 싶다. 아이들이 야단 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선생님이 먼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6월 4일

두 번째 생각주머니

사월 중순부터 오월 말까지 생각주머니에 쓴 글을 모아 두 번째 글모음을 만들었다. 글은 한 아이에 한 편씩 모두 스물여섯 편을 실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번에 빠졌던 정훈이, 민석이, 한별이 글도 들어가서 모든 아이 글이 다 실렸다.

글을 고를 때는 조금 힘이 들었다. 오월에 행사가 많아서 글을 많이 못 쓴 탓이다. 실을 만한 글이 없던 몇몇 아이는 편집을 끝내는 날까지 글쓰기를 해야 했다. 그런 노력 덕분에 오늘 두 번째 글모음이 태어난 것이다.

아이들이 돌아간 뒤부터 복사하고 제본하는 일을 했는데 저녁 여덟시까지 하니 마무리됐다. 표지를 합쳐서 스물여덟 쪽 밖에 안 되지만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린 셈이다. 그래도 깔끔하게 제본된 책을 보니 수고한 보람이 느껴졌다. 마치 새 식구를 얻은 기분이라고 할까.

다 만든 책을 읽어보며 아이들 생각을 다시 마음으로 느껴보았다. 아침 시간에 잠깐 짧은 틈을 내어 썼는데도 캄캄한 밤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반짝 반짝 빛나는 글이 대부분이다. 웃음 짓게 하는 글도 있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글도 있고, 참 그렇구나 하는 글도 있다.

만든 책 몇 개를 집에 가져와서 초등학교 이학년, 사학년 딸에게 읽어보게 했더니 참 재미있다고 한다. 같은 또래들이 쓴 글이어서 내용이 쉽게 다가갔던 모양이다.

두 딸에게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글을 다섯 개씩 골라보라고 했다. 각자 열심히 읽고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왔는데 재미있게도 세 편이나 겹쳐서 나왔다.

둘이 함께 표시한 글은 네모난 세상에 관해 쓴 태현이 글, 가연이가 토한 내용을 쓴 용은이와 윤재 글이다. 아마 두 딸도 세 사람이 쓴 글 내용과 비슷한 생각이나 경험을 해봤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딸들이 골랐다고 해서 꼭 좋은 글이란 뜻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나 경험과 비슷한 글에 마음이 가기 때문이다. 아마 다른 아이에게 고르라고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큰 딸이 고른 글 가운데는 정훈이 글도 있다. 정훈이는 지난번에는 글이 없어서 못 넣었는데 이번에는 글을 썼다. 시험을 망치면 아이들이 놀릴 것 같아서 시험 볼 용기가 안 난다는 내용이다.

우리 큰 딸도 이런 생각을 해봤던 모양이다. 아니,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쫓은 한다. 그런데 정훈이가 그 마음을 글로 썼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함께 느끼게 된 것이다. 이처럼 좋은 글은 특별한 기술로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겪고 생각했던 걸 그대로 표현하면 된다.

오늘 만든 글모음은 내일 아이들 손에 가게 된다. 또 몇몇 우리 학교 선생님과 다른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보낸다. 우리 아이들의 생각은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 타고 가듯 그렇게 날아갈 것이다. 세 번째 글모음은 어떤 홀씨로 태어날 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6월 5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글

아침 시간에 생각주머니 글모음을 나눠주고 마음에 드는 글 다섯 편을 고르고 까닭을 써보게 했다. 결과를 보니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글이 다 달랐다. 어떤 글을 읽고 자기도 비슷한 생각이나 경험을 해봤다면 그 글에 마음이 간다는 뜻이다.

그럼 좀 더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글은 어떤 글일까. 아이들이 열 명 이상 뽑은 글은 모두 다섯 편이다. 네모난 세상을 쓴 태현이글, 시험이 엄마를 위한 것 같다고 쓴 규리 글, 고양이 가족이 오순도순 사는 모습을 쓴 은서글, 시험에서 쉬운 문제만 나오면 좋겠다고 쓴 수민이 글 그리고 닌텐도를 들고 오고 싶은 마음을 쓴 동협이 글이다.

그럼 어떤 점이 좋았을까. 어떤 일이나 생각을 썼기에 여러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5월 17일 월요일 바람이 불지 않고 구름이 열게 낀

어제 컴퓨터실에서 ‘네모의 꿈’이란 노래를 들었다. 그 노래에서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라고 했다.

오늘 학교에 오니 네모난 학교에다 네모난 공책에 네모난 칠판에 거의 다 네모였다. 이 노래가 세상을 보며 부른 노래인 것 같다. (김태현)

이 글은 내 마음에도 꼭 들었던 글이다. 노래를 들으며 가사의 뜻을 생각한 점도 남다르게 보이고, 그 가사를 떠올리며 주위를 둘러보는 태현이 모습도 엿보인다. 읽자마자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에 고개를 끄떡이게 된다. 아이들도 태현이 글은 생각이나 느낌이 잘 들어 있다고 써놓았다. 어떤 아이는 ‘이 노래가 세상을 보며 부른 노래인 것 같다.’를 가장 마음에 드는 표현으로 뽑았다.

4월 26일 월요일 흐림

내일은 시험 치는 날이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어제 엄마가 게임하지 말고 공부 안 했다고 했다. 너무 힘들다. 그리고 이상했다. 내가 보는 시험인데 엄마 마음대로 공부 안했다고 한다. 꼭 나를 위한 시험이 아니라 엄마를 위한 시험인 것 같다. (박규리)

규리가 쓴 글 가운데 이 글을 생각주머니에 넣은 까닭은 ‘꼭 나를 위한 시험이 아니라 엄마를 위한 시험인 것 같다.’는 표현이 마음에 들어서이다. 아마 엄마들이 이 표현을 보면 뜨끔 하는 분들이 많을 거다.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하지만 규리는 그 생각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나타낸 점이 참 좋다. 아이들도 이 표현이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한다.

4월 20일 화요일 쌀쌀하다
학교에 가고 있을 때
고양이 가족을 봤다.
내가 빵 한 개를 던졌다.
냠냠 맛있게 먹었다.
새끼가 귀여웠다.
오순도순 사는 게
행복해 보였다. (손은서)

은서 글에는 생각이 별로 없지만 읽으면 저절로 행복해지는 느낌이 든다. 어미와 다정하게 있는 귀여운 고양이 새끼도 한 번 보고 싶고, 먹이도 던져주고 싶은 생각이 든다. 만약에 은서가 나쁜 마음을 먹은 아이였다면 이런 글을 쓰지 못했을 것이다. 고양이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쫓아내기 바빴을 테니까.

아이들도 ‘오순도순 사는 게 행복해 보였다.’를 가장 좋은 표현으로 뽑았다. 어떤 아이는 은서 글을 보고 이렇게 써놓았다.

‘나는 은서 글이 마음에 든다. 나도 가족이랑 오순도순 살고 싶다.’
은서 글은 나와 아이들 모두에게 따뜻한 감동을 준다.

4월 26일 월요일 비가 오며 쌀쌀하다
난 시험에서
아는 문제만 나오면 좋겠다.
올백 하면 좋겠고
점수가 좋으면 좋겠다.
제발 쉬운 문제가
나오면 좋겠다. (이수민)

시험을 잘 치고 싶은 마음은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아이들

마음일 것이다. 수민이는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잘 썼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뽑았다. 수민이 글을 뽑은 아이가 이렇게 썼다.

‘시험칠 때 나도 쉬운 문제가 나오면 좋아서 이수민을 골랐다.’

5월 11일 월요일 구름
권구완, 김태현이
닌텐도를 들고 왔다.
들고 오지 말라고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는데도
오늘 또 갖고 왔다.
나도 들고 오고 싶은데
선생님 말을
거역할 수 없다. (김동협)

동협이는 선생님 말을 정말 잘 듣는다. 그 만큼 순수하고 어린이답다. ‘선생님 말을 거역할 수 없다.’고 한 표현이 가장 동협이답다. 아이들도 모두 이 표현이 가장 좋다고 한다. 동협이 글을 보니 방학 전에 한 번이라도 닌텐도 가지고 오는 날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글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이들이 열명 이상 뽑지 않았다고 해서 나쁜 글은 절대 아니다. 내 글을 어떤 한 아이만 뽑았다고 해도 그 아이한테는 좋은 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글을 쓰려고 억지로 말을 지어내거나 없던 생각을 만들면 절대 안 된다. 그런 글은 거짓말일 뿐이다. 자기가 보고, 듣고, 겪은 일에서 우러난 생각을 잘 떠올려서 사실대로 쓰면 가장 좋다.

6월 7일

현충일 국기달기

둘째 시간에 팝업이 왔다.

‘국기 게양 학생 수 보내주세요.’

현충일인 어제 가정에서 국기를 얼마나 달았는지 조사해서 숫자를 보내달라는 뜻이다. 아마 교장선생님의 지시로 보낸 듯 했다.

아침 방송조회 시간에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어제가 현충일이었던 걸 아는지, 국기를 달았는지 묻고 애국은 어떻게 하는 건지에 관해 한참 이야기 했다. 그리고 나서 각 반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 지 조사하라고 한 모양이다.

조사해보니 국기를 단 아이가 서너 명 밖에 안 된다. 마침 어제가 일요일이어서 현충일인지도 모르고 지나갔다는 아이가 많았다. 게다가 열네 명은 집에 국기가 없다고 한다.

걱정이 됐다. 숫자를 그대로 보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거짓으로 부풀려 보낼 수도 없는 일이다. 옆 반 선생님께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더니 마찬가지로 걱정하고 있다고 한다.

고민하다가 아이들한테 슬쩍 물어보았다.

“어제 국기 단 사람 몇 명 안 되지? 그런데 국기 단 사람 숫자를 보내야 해. 만약 이대로 보내면 교장 선생님께 혼 날거야. 제헌절이나 광복절에 잘 달기로 하고 앞으로 달사람 숫자를 보내도 될까?”

질문이 끝나기가 바쁘게 여러 대답이 나왔다. 의견이 갈린 듯 했지만 가장 많은 대답은

“그대로 보내세요.”

였다. 어떤 아이는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해주며 할 말 없게 만들었다.

“그럼 우리 반이 야단맞아도 좋아?”

하고 물으니 한목소리로

“예.”

라고 한다. 아이들 말이 다 맞지만 나는 섭섭한 마음이 들었다.

사실 나도 어제 국기 다는 걸 깜빡 잊었다. 울산에서 모임이 있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선 탓이다. 우리 집은 국기 다는 걸 거의 빼먹지 않는데도 어제는 일요일과 겹쳐서 더욱 생각을 못했다.

내가 먼저 국기를 달고 아이들 앞에 몇몇해야 잔소리라도 할 텐데 그럴 수 없어서 답답하다. 또 내 마음도 몰라주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만 외치는 아이들 때문에 속상한 날이다.

6월 8일

속담 맞추기 놀이

듣기말하기 시간에 속담에 관해 공부하고 속담 맞추기 놀이를 했다. 놀이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모둠별로 한 명씩 일어서게 한 뒤 빈 칸으로 된 속담을 보여준다.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는 속담이면 ‘□□□도 □ 말 □면 □다.’로 문제가 나간다. 이 단계에서 바로 맞히면 2점을 준다.

바로 맞히는 사람이 없으면 첫 글자를 선택하면서 풀 수 있다. ‘ㅎ’을 선택하면 ‘ㅎ□□도 ….’로 바뀌는데 이걸 보고 문제를 푼다. 못 풀면 다른 글자를 선택하며 푼다. 여기서 문제를 맞히면 1점을 준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 풀었을 때 점수가 많은 모둠이 이기는 놀이다. 만약에 아무도 못 맞히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손들어서 맞히도록 하고 답을 말하면 사탕을 한 개 준다.

문제는 모두 서른 개를 준비했다. 책에 나오는 속담을 포함해서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발표한 속담은 모두 넣었다. 그래도 모자라는 건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학년 수준에 맞는 것으로 골랐다.

놀이를 해보니 생각했던 것 보다 속담을 잘 알았다. 절반 정도는 첫 단계에서 바로 맞혔다. 진심어린 칭찬을 해주었다.

속담에 관한 책을 많이 봤는지 태현이는 2점짜리 두 개에다 아무도 풀지 못했던 문제도 두 개 다 맞혔다. 그래서 태현이 차례에 함께 일어난 아이들은 모두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마지막 문제를 앞두고 점수판을 보니 1, 2, 5, 6모둠이 4점, 6모둠이 5점이었다. 6모듬은 태현이 모듬이다. 마침 마지막 차례가 태현이여서 6모듬이 아주 유리한 상황이었다.

마지막 문제는 맞히기만 하면 2점을 준다고 했다. 네 모듬 가운데 어느 모듬이 맞혀도 우승인 셈이다. 문제는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였다. 마지막 문제답게 좀 어려운 것이 나왔다.

예상대로 첫 글자를 다 열 때까지 아무도 맞히지 못했다. 첫 글자가 다 열리고 아이들은 생각에 빠졌다.

‘ㄱㅇ ㅅㅇ지 ㅇㅇ이에 뿔나다.’

화면을 꼼꼼히 보고 있던 태현이가 먼저 손을 들었다.

“똥똥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태현이가 생각한 답이 정답에서 살짝 빗나갔다.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낱말

이 생각나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래도 태현이는 아무도 말하지 못할 때 비슷한 답을 내놓았다. 대단했다.

“아깝다. 거의 다 맞혔는데. 태현이가 말한 게 거의 맞아. 앞에 있는 두 글자만 틀렸어. ㄹㅇ가 무슨 낱말일까? 어떤 송아지일까?”

말이 끝나자 말자 량희가 손을 번쩍 들었다.

“마당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

이번에는 진하가 말했다.

“모든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그것도 아닙니다.”

다음은 수지였다.

“모두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아깝습니다.”

거의 답이 다 나왔는데도 정답만 비껴가는 걸로 봐서 이 속담이 낯선 모양이었다. 그래서 마지막 힌트를 주었다.

“안 좋은 뜻입니다.”

그러자 동협이가 정답이 확실하다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맞던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아이들이 모두 웃었다. 나도 어찌나 우스운 지 한바탕 웃었다.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틀리면 여기서 놀이가 끝납니다.”

이 때 잠자코 보기만 하던 규리가 손을 들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난다.”

“정답입니다. 우승은 1모듬입니다.”

1모듬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다른 모듬은 저렇게 쉬운 낱말을 몰랐냐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우승한 1모듬과 아깝게 2등이 된 6모듬에 사탕을 한 개씩 주었다. 그러자 사탕을 못 받은 아이들이 어학실로 가며 말했다.

“못된 선생님 엉덩이에 뿔난다!”

6월 9일

훨훨 날아간 배추흰나비

아침에 교실로 들어가니 아이들이 일렀다.

"선생님, 배추흰나비 한 마리 더 태어났어요."

재배상자를 보니 아이들 말대로 나비 한 마리가 흙 위에 앉아있었다. 연노랑 바탕에 하얀색이 살짝 배인 아주 예쁜 나비였다. 양 날개를 바짝 붙이고 제 자리에서 꼼짝 않고 있는 걸로 봐서 태어난 지 몇 시간 되지 않은 것 같았다.

"애가 어느 번데기에서 태어났을까? 손잡이 아래쪽에 번데기가 몇 개 있던데?"

상자 위쪽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번데기 두 개는 아직 어제 그대로였다. 손잡이 아래쪽을 훑어보니 껍질이 까진 번데기가 하나 있었다. 녀석이 거기서 태어난 게 틀림없었다.

반대쪽을 보니 나비 한 마리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게 보였다. 그 쪽 번데기에서도 나비가 태어나 있었다.

"야, 여기 나비 한 마리 더 있다."

이 소리를 듣고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아이들은 한꺼번에 두 마리가 태어났다고 기뻐했다.

그물을 걷고 손가락 끝으로 매달린 나비를 살짝 건드리자 상자 위로 걸어 올라왔다. 날개짓은 하지 않았다. 이 녀석도 위에 있던 나비와 비슷한 시간에 태어난 듯 했다. 색깔이나 크기가 비슷해서 마치 쌍둥이 같았다.

"어느 나비가 암놈이에요?"

"둘이 짝짓기 시키면 안돼요?"

두 마리를 한꺼번에 보니까 아이들은 저마다 호기심이 샘처럼 솟아오르는 모양이었다.

첫째 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먼저 나비를 보내는 간단한 식을 했다. 식이라고 해봐야 말 한마디 하는 것이다. 창문을 열고 그물을 걷은 다음 말했다.

"훨훨 날아가라 나비야."

아이들도 작별 인사를 했다.

"잘 가라 나비야."

손끝으로 살짝 건드리자 나비 두 마리가 날개를 팔랑이며 곧장 화단으로 날아갔다. 좁고 갑갑했던 재배상자를 벗어나 드넓은 세상으로 가는 첫 날개

것이였다.

바람 타고 날아가는 나비를 바라보니 왠지 모를 아쉬움이 느껴졌다. 마치 키우던 애완동물을 멀리 보내는 느낌이라고 할까.

또 알-애벌레-번데기-나비로 변하는 과정을 보며 생명이란 게 참 신비롭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싹벌레보다 작던 알이 꾸물꾸물 기어 다니는 애벌레가 되고, 그 애벌레가 번데기로 바뀌었다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는 과정은 신비 그 자체다. 특히 나비 몸에 붙은 우아하고 고운 날개를 보며 징그럽게 기어 다니던 애벌레가 변한 게 맞는 지 아직도 의심이 될 정도다.

어릴 적에 시골에 살며 수많은 나비를 봐 왔지만 이번처럼 직접 커가는 과정을 살펴본 건 처음이다. 그것도 직접 배춧잎을 넣어주며 키워서 나비를 만들었으니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반 아이들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살아있는 공부가 되었을 것이다.

**배추흰나비 애벌레를 위해 채소를 보내온 미경이, 민서, 수지 어머니를 비롯하여 열심히 관찰하고 관심을 가져준 반 아이들 모두에게 고맙다는 말 전해드립니다. 점심시간에 화단을 둘러보니 배추흰나비들이 신나게 날아다니고 있더군요. 사진을 찍어서 우리 반 사진첩에 올려뒀으니 많이들 보세요.

6월 10일

만화만 보는 아이들

오전에 김해도서관에서 도서관체험학습이 있었다. 직원으로부터 도서관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율동 몇 번 하고 구연동화를 듣고 나니 시간이 다 되었다. 도서관체험학습이었지만 도서관의 이모저모를 둘러보지 않는 어설픈 체험학습이었다.

학교로 돌아가려는데 대출증이 있는 아이들이 책을 빌리고 싶다고 해서 어린이실로 보냈다. 그걸 본 다른 아이들이 자기들도 들어가서 책을 보고 싶다고 했다. 그냥 돌아가기가 서운하던 참이어서 그러자고 했다.

다른 이용자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책을 고른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게 무척 신경 쓰였지만 5분 정도가 지나니 모두 열람대에 앉았다. 무슨 책을 읽는 지 하나하나 살펴보았더니 놀랍게도 모두 만화책이었다. ‘살아남기’ 시리즈, ‘Why’ 시리즈가 가장 많고, ‘메이플스토리’, ‘마시멜로이야기’, ‘내일은 실험왕’, ‘한국을 빛낸 열짱들’도 군데군데 눈에 띄었다. 단 한 명도 글로 된 책을 읽는 아이가 없었다.

구완이한테 왜 만화책만 보냐고 물어보니 대답이 단순했다.

“재미있으니까요.”

수민이도 같은 의견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전부 만화책만 보네요. 다른 애들이 와도 그래요?”

사서한테 이 문제를 물어보니 그 역시 이 점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게요. 우리 도서관에 오는 애들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원인이 뭘까요?”

“만화가 재미있고 읽기 쉬우니까요. 요즘 애들이 시간이 없잖아요. 어른들보다 더 바쁘니까 쉬운 책만 찾는 것 같아요.”

사서 말을 들으니 조금 이해는 되었지만 문제는 문제였다. 아이들이 책 읽는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보니 도서관이 아니라 무슨 만화방에 온 듯 했다.

만화를 본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 요즘은 어린이들에게 좋은 만화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잘 이용하면 지식도 넓히고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 만화를 보며 독서습관을 기른 아이들도 많다.

하지만 반찬도 여러 가지를 섞어서 먹는 게 좋듯 책도 만화만 ‘편식’하는 것 보다는 글로 된 책도 함께 읽는 게 좋다. 같은 이야기라도 만화로 볼 때와 글로 된 책을 볼 때 받는 느낌과 감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화로 본 이야기는 꼭 글로 된 이야기로 읽어보면 좋겠다.

6월 11일

정훈이 필통

도덕 시간에 수행평가지를 푸는데 정훈이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연필도 없고 도덕책도 없다고 한다.

책상 위에는 과학책, 쓰기책, 읽기책이 뒤엉켜 있었다. 읽기는 오늘 시간표에 들지도 않았다. 정훈이 책상만 보면 도덕 시간인지 국어시간인지 과학시간인지 알 수 없다. 언제나 그렇다.

“정훈아, 공부 시간에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 하고 쓸 것은 써야 해. 지금은 문제 푸는 시간이야.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

이런 잔소리를 하며 등짝이라도 한 대 쳐주고 싶었지만 꼭 참았다. 조그만 야단에도 땀통 같은 눈물을 흘리며 서너 살짜리 아이처럼 소리 내어 울기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쩡한 울음소리가 정훈이의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울음번역기가 있다면 아마 이런 말이었을 것 같다.

“선생님, 저는 뭐든지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가져오기 싫어서 안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려고 하면, 가져오려고 하면 세상은 시간을 멈추고 저도 모르게 하늘로 떠올라요. 저기 저 땅에 내려앉아 집으로 뛰어가고 싶은데 저는 자꾸 떠올라요. 선생님, 제 손을 잡아주세요.”

내가 다가서자 정훈이가 책상을 뒤지며 뭔가를 찾는 시늉을 했다. 연필을 찾는 게 틀림없었지만 없는 연필이 나올 리 없다.

“정훈아, 또 연필 찾나? 니한테 가는 연필은 모두 발이 달리나 보다.”

아이들에게 남는 연필이 있는 지 물어보니 고맙게도 규리가 연필을 하나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연필 몇 개를 주워서 깎아놓은 게 생각나서 그걸로 주었다.

아이들이 문제를 푸는 동안 내 책상을 뒤져서 주워놓은 필통과 연필, 지우개를 꺼냈다. 또 작은 자, 삼색 볼펜, 검은 볼펜은 새 걸로 하나씩 꺼내 모두 필통에 넣었다. 샤프도 있었지만 정훈이는 샤프를 못 쓴다고 해서 넣지 않았다. 좀 낡긴 했지만 들어 있을만한 건 다 들어있는 어엿한 필통이 되었다.

“이거 지금부터 정훈이 필통이다. 잘 봐둬.”

아이들에게 필통을 보여주고 정훈이에게 건네주었다. 정훈이가 수줍은 표정으로 받았다. 아이들은 기쁨 반 부러움 반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사탕 한 개라도 이유 없이 누구에게 주면 난리가 나는 아이들이지만 정훈이에게 필

통 준다고 따지는 아이는 없었다.

“선생님은 정훈이 아빠나 삼촌 같아요.”

“혹시 이정호가 아니라 강정호 아니에요?”

몇몇 여학생들 이야기에 아이들이 웃었다.

“와 좋겠다. 나도 연필 안 가져오고 필통도 안 가져오고 싶다.”

구완이의 우스갯소리에 아이들이 또 한 번 웃었다.

정훈이가 기분이 좋았던 지 오후에 남아 수학문제를 모두 다 풀고 갔다. 매겨보니 틀린 것 보다 맞은 게 훨씬 많았다. 역시 정훈이는 잘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또 한 번 느꼈다.

* 이 글을 쓴 다음날 미경이 어머니께서 멋진 새 필통을 보내주셔서 정훈이에게 전했다.

6월 14일

숙제

점심 먹고 교실로 올라오는데 한 아이가 지나가면서 한숨을 푹 쉬고 가기에 까닭을 물어보았다.

“왜 그러니?”

그 아이는 내 눈치를 슬쩍 보더니 답했다.

“숙제가 많아서요.”

문득 그 아이 등에 짊어진 가방이 무거워 보였다. 걸어가는 모습이 마치 오늘 장에서 다 못 판 짬을 짊어지고 다음 장으로 걸어가는 옛날 장꾼 같았다.

“무슨 숙제가 그리 많노?”

“학교 숙제도 많고 학원 숙제도 많아서요.”

“힘들겠구나.”

“.....”

말없이 툄레툄레 계단을 내려가는 그 아이를 보며 달리 해줄 말이 없었다. 힘들겠지만 이겨내고 열심히 해라고 마음으로 응원할 뿐이었다.

이 아이를 보며 오전에 우리 반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렸다. 사회 시간에 지난주 금요일에 내 준 숙제를 검사해보았다. 주제는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자랑거리 열 가지 조사해오기’였다.

검사해보니 숙제를 해 온 아이가 절반이 되지 않았다. 스물여섯 명 가운데 숙제를 해온 아이가 열두 명, 안 해온 아이가 열네 명이었다. 숙제를 해온 아이 가운데에도 고장의 자랑거리에 설명까지 붙여온 아이는 다섯 명 뿐이었고 나머지 일곱 명은 이름만 써왔다. 조금 화가 나서 아이들에게 5분 동안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있도록 했다.

숙제에 관한 두 가지 일을 겪으며 내 속에 있는 두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반 아이들이 숙제를 안 해왔다고 화를 내면서도 숙제가 많아 힘들어하는 아이를 가엾게 여기는 두 마음 말이다. 마치 집에서는 딸아이가 저녁 내내 숙제한다고 끔끔거리는 모습을 보며 담임선생님을 원망하면서도 학교에서는 반 아이들에게 숙제를 척척 내는 것과 같다.

숙제는 예습이나 복습, 수업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아이들은 늘 숙제가 많다고 불평하고, 교사들은 늘 아이들이 숙제를 안 해온다고 불만이다. 언제쯤이면 이 줄다리기가 끝날 수 있을까?

6월 15일

공개수업 준비

내일 첫째시간에 공개수업을 한다. 이번 공개수업은 우리 반 뿐만 아니라 전체 학반이 순서를 정해놓고 한다. 보러 오는 분들은 교장선생님과 동료 선생님 세 분이다.

며칠 전부터 준비하긴 했지만 언제나 공개수업은 부담이 된다. 평소보다 준비할 게 많아서 바쁜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른 사람이 수업 시간에 교실에 와서 지켜보는 건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린다. 마치 부엌에서 요리를 하는데 손님들이 와서 재료는 잘 준비했나, 칼질은 어떻게 하나, 양념은 어떻게 다루나 이런 걸 보는 것과 같다.

더구나 이번 공개수업은 수업을 보는 분들이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스럽다. 이 점수가 바로 내 등급이 되기 때문이다. 고기도 1등급, 2등급이 있듯이 교사들도 그런 등급을 매기는 셈이다.

부담이 되긴 하지만 교사라면 모두가 다 해야 하는 것이어서 짐이 되지 않는다. 어차피 수업은 늘 해야 하는 것이고, 공개수업을 준비하면서 얻는 것도 많으니까 말이다.

내일 우리 반 수업 주제는 ‘속담을 활용하여 주장 말하기’이다. 듣기말하기 6단원 마지막 수업이다. 이 수업을 잘 하려면 우선 아이들이 속담을 잘 알아야 하므로 지난주부터 여러 가지 속담 알아보기, 주장에 맞는 속담 고르기, 속담을 넣어서 주장 말하는 방법을 공부했고, 따로 시간을 내어 속담퀴즈도 풀고 속담사전도 만들었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모듈별 활동과 발표하는 방법을 연습했다. 아이들이 돌아간 뒤에는 수업안내판과 컴퓨터로 보여줄 슬라이드 자료를 만들어 놓았다. 그 외 몇 가지 소품과 상품으로 줄 사탕도 준비했다. 이렇게 써놓고 보니 많이 준비한 것 같지만 공개수업이라고 특별한 것을 많이 준비한 건 아니다. 평소에 수업하는 것에서 자료만 몇 개 더 준비한 것이다.

이제 준비는 모두 끝났다. 시험을 앞둔 수험생과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진행도 매끄럽고 아이들도 잘 참여하는 멋진 수업이 되면 좋겠다. 1등급 한우가 질 좋고 맛도 좋아 비싼 값이 나간다는데 나는 몇 등급 교사가 될까?

6월 16일

식품안전 교육

둘째 시간에 식품안전교육을 했다. 이 교육은 먹을거리와 건강에 관해 아이들과 함께 생각해보려고 내가 김해 생협에 부탁해서 마련했다. 생협은 건강한 먹을거리를 알리고 보급하는 곳이다.

자신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고 소개한 강사님은 먼저 준비해온 슬라이드와 동영상을 보여주며 우리가 즐겨 먹는 음식에 관해 설명을 해주었다. 특히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과자와 음료에 어떤 첨가물이 들어가는 지 또 그런 첨가물이 든 음식이 왜 몸에 나쁜 지 자세히 안내해주었다.

아이들은 과자나 음료를 만들 때 색깔을 내는 색소나 향기를 내는 착향료를 대부분 석유로 만든다는 걸 듣고 놀라는 눈치였다. 또 먹으면 먹을수록 해롭다는 설탕이 음식마다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 지 비교한 그림을 보고도 많이 놀라는 표정이었다.

아이들이 가장 흥미를 보였던 내용은 바로 두 가지 실험이었다. 첫 번째 실험은 막대사탕 실험이었다. 강사님이 직접 사 온 막대사탕을 따뜻한 물에 넣고 젓자 색소가 빠져나왔다. 그 색이 어찌나 진하고 선명하던지 마치 물감을 푼 것 같았다. 울긋불긋한 물에 털실을 넣고 휘젓자 바로 염색이 되었다. 이걸 나도 처음 보는 실험이었다.

강사님 말로는 음식에 들어간 색소로 염색한 털실은 몇 달이 지나도 색이 변하지 않는다고 색소가 해롭다는 점을 일깨워주었다. 몇몇 아이들은

“이게 진짜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며 놀란 반응을 보였다.

다음은 ‘딸기맛’, ‘바나나맛’ 우유 만들기 실험이었다. 준비한 흰 우유에 빨간색소와 노란색소를 넣으니 딸기색, 바나나색으로 변했다. 거기에 딸기향, 바나나향을 넣으니 바로 우리가 슈퍼에서 사 먹는 딸기맛, 바나나맛 우유가 되었다. 아이들에게 직접 냄새를 맡아보라고 했더니 모두들 놀랍다는 표정들이었다.

실험을 마치고 생협에서 준비한 아이스크림을 아이들 모두에게 한 개씩 나누어주었다. 색소와 착향료가 들어있지 않은 건강한 아이스크림이었다. 많이 가져온 덕분에 나도 먹고 교무실과 행정실 직원들과도 나눠먹었다. 아이들은 평소에 자신들이 먹던 아이스크림에 비해서는 맛이 없다고 했지만 더운 날에 시원한 음식을 주니 모두들 신이 났다.

한 시간 교육으로 아이들이 과자나 아이스크림, 음료를 먹던 습관을 한꺼

번에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도 자주 먹는 음식에 관해 한 번쯤이라도 생각하게 되었다면 오늘 교육은 성공이다. 나도 교실에서 사탕을 선물로 주는데 주더라도 아주 조금씩 주고, 생일잔치 할 때도 과자 성분을 잘 보고 사와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6월 17일

구완이의 용감한(?) 도전

아이들은 필기를 싫어한다. 써야 할 내용이 조금만 길면

“그걸 다 써야 돼요?”

하고 짜증부터 내는 아이들이 많다. 일일이 검사하면 억지로라도 쓰지만 이런 문제로 자주 티격태격한다.

읽기 시간이었다. 공부 주제는 이야기를 읽고 글쓴이의 생각을 찾는 방법이었다. <짧아진 바지>라는 글을 읽고 아이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수업을 마칠 즈음 공부한 내용을 칠판에 썼다.

<이야기를 읽고 글쓴이의 생각을 찾는 방법>

1. 글의 제목을 보고 글쓴이의 생각을 알아본다.
2.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을 보고 무엇을 뜻하는 지 알아본다.
3. 인물의 말과 행동을 내 생각이나 행동과 비교하며 알아본다.

이 시간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공책에 정리하라고 했더니 아이들 입이 쑥 나왔다. 은서는

“저는 머리 속에 저장할게요.”

하고 꺾을 났다.

"머리 속은 안돼. 책이나 공책에 정리해라!"

마침 쉬는 시간이 되어서 시간을 빼앗기가 미안하긴 했지만 밀어붙였다. 그래도 불만이 수그러지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하나 내걸었다.

"빨리 쓰고 놀면 좋을 텐데. 좋아, 그렇다면 정말 쓰기 싫은 사람은 이걸 오백 번 읽으면 안 써도 된다."

이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엄포였다. 하지만 용감한(?) 우리 반 아이들은 엄포에 넘어가지 않았다. 열서너 명이나 읽겠다고 나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 좋다. 지금부터 셀 테니 읽어봐라."

나온 아이들이 신호에 맞춰 읽기 시작했다. 한꺼번에 중얼 중얼거리니 구분하기는 힘들었지만 한 번 읽을 때마다 손가락을 하나씩 퍼주었다. 그러나 예상대로 손가락이 다섯 개 퍼질 때쯤 대여섯 명만 남고 대부분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앉아있던 아이들이 다 쓰고 검사하러 나왔기 때문이었다.

"다 쓴 사람은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니 몇 명이 더 들어가고 이제 찬기와 구완이만 남았다.

"너희들도 포기하고 들어가지? 아직 열 번도 안 됐는데?"

그러나 둘은 계속 하겠다고 했다. 고집이 대단했다. 나는 또 숫자를 세어 주었다. 구완이와 찬기는 마치 스님이 엄불하듯 열심히 읽어나갔다.

여덟 번쯤 읽었을까? 찬기가 슬그머니 자리로 가더니 연필을 잡고 쓰기 시작했다.

이제 남은 아이는 구완이 뿐이었다. 구완이는 계속 읽었다. 열 번 읽었을 때 구완이에게 말했다.

"구완아, 이제 사백구십 번 남았다. 어쩔래?"

아이들도 구완이에게 포기하라고 권했다.

"그만 들어온나. 하루 종일 걸리겠다."

그러나 용감한 구완이는 기어이 한 번 더 읽었다. 그러더니 노는 아이들을 힐끗 보고는 자리로 돌아갔다. 비록 포기하기는 했지만 정말 대단한 구완이였다.

단군신화를 보면 곰이 쑥과 마늘만 먹고 스무하루를 참아서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구완이도 열 번만 더 읽었으면 내용을 달달 외울 뻔 했다. 그랬다면 쓰는 것도 필요 없었을 텐데 아쉬웠다.

나중에 생각하니 오백 번은 좀 심했던 것 같다. 오십 번만 해도 많은데 말이다. 내가 너무 독했다.

[덧붙임] 새로 개편된 교과서는 학습지가 따로 없을 만큼 쓸 것이 많다. 한 시간 내내 무얼 쓰다가 보면 수업이 끝난다. 가르치는 처지에서는 쓸 곳이 있는데 비워놓으면 공부를 안 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까봐 일일이 쓰게 한다.

더구나 우리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 교육방침으로 '학습일기'라는 것을 쓴다. 그 날 공부했던 것을 과목별로 공책에 정리해야 한다. 저학년은 공부했던 것을 떠올려 정리하기가 어려워므로 수업마다 중요한 내용을 칠판에 써주는 일이 많다. 아이들은 그것을 메모해두었다가 학습일기에 쓴다.

학습한 것을 정리하는 것은 참 좋은 공부지만 쓸 내용이 많다보니 아이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그러니 쓰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6월 18일

두 싸움

4교시 마치고 쉬는 시간에 싸움이 두 건 일어났다. 여학생과 남학생 각각 한 건씩이다. 여학생은 진하와 민서가, 남학생은 찬기와 성진이가 싸웠다. 찬기와 성진이는 서로 주먹이 오가는 정도로 그쳤지만 진하와 민서는 발길질에 실내화가 날아다녔다. 도덕 수업 시간이었지만 싸움 정리가 도덕교과서보다 더 실감나는 수업 교재라고 여기고 풀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먼저 진하와 민서를 불렀다. 민서는 분해서 울고 진하는 민서가 던진 실내화에 맞았다고 씩씩거리고 있었다. 아이들 말로는 민서가 던진 실내화에 진하가 맞았다고 했는데 표정으로 봐선 오히려 민서가 맞은 것 같았다.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는 안 물어봐도 훤히 보였다. 첫째 시간에 민서가 만화책을 보다가 나한테 빼앗겼는데 그 책은 진하한테 빌린 것이었다. 민서가 울상을 지었지만 공부 시간에 만화책을 보다가 걸리면 돌려주지 않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 책을 전산실 캐비닛에 넣어버렸다. 그것 때문에 둘이 시비가 붙은 것이었다.

민서한테 물었다.

“민서야, 왜 실내화 던졌노?”

민서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만화책 빼앗겼다고 진하가 자꾸 책값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찼어요.”

이번에는 진하한테 물었다.

“진하야, 민서한테 만화책값 달라고 했나?”

“예.”

“안 주겠다고 해서 때렸나?”

“아뇨. 민서가 먼저 다리를 찼어요.”

진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한 마디씩 들어보니 진하가 민서한테 책값을 달라고 하며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또 서로 상대가 먼저 발길질을 했다면 책임을 미루고 있었다.

민서가 잘못된 점 가운데 공부시간에 만화책을 본 것은 나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되고, 책을 빼앗긴 점은 진하한테 용서를 구하면 될 일이었다. 또 실내화를 던져 피해를 입힌 것도 사과를 하면 풀릴 문제였다. 진하도 민서한테 다짜고짜로 책값을 내놓으라고 하며 궁지로 몰아넣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될 문제였다.

발로 차고 실내화를 던지는 싸움만 없었으면 모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이미 감정에 골이 깊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부터 풀어야 했다. 문제는 누가 먼저 쳤느냐다. 이것만 풀면 다른 문제는 저절로 풀 수 있을 것 같았다.

증인을 찾았더니 은서가 옆에서 자세히 보았다고 했다. 하지만 민서는 은서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못 봤다고 했다. 은서보고 어디 있었는지 가보라고 했더니 싸운 자리에서 두 칸 옆자리였다.

“민서야, 은서가 저기 있었다면 다 봤을 것 같은데 어째서 못 봤다고 하노?”

내가 다그치자 민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은서는 처음부터 못 봤단 말이에요. 현수만 처음부터 봤단 말이에요.”

그러자 은서와 함께 있었던 아이들이 자기들도 처음부터 보았다고 민서를 몰아붙였다. 그래서 우선 은서 말을 들어보자고 했다. 은서가 쇼파 끝자리에 앉으며 설명했다.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요. 진하하고 민서하고 다투다가 민서가 먼저 진하 다리를 찼어요. 그러니까 진하도 찼어요. 그러다가 민서가 실내화를 던져서 진하 배에 맞았어요. 헤민이도 맞았고요.”

은서와 함께 있었다는 수지, 경민이 그리고 몇몇 아이들도 같은 의견을 말했다. 아이들 의견이 대부분 진하 쪽으로 쏠렸다.

“나는 배만 찼다. 다리는 찬 적 없다.”

민서는 억울하다는 다시 울상을 지었다. 이 말은 민서가 먼저 배를 차며 싸움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싸울 때 다리는 안 찼기 때문에 은서 말이 거짓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민서가 거짓말을 한다고 했다. 아무래도 현수 말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았다.

“자, 그럼 현수 말을 들어보자. 민서는 현수가 처음부터 봤다고 하니까 말야.”

현수가 일어서서 말했다.

“제가 보니까요. 진하가 먼저 민서보고 팔 들고 때리려고 했어요. 그러자 민서도 팔을 들어 때리려고 했고요.”

현수는 앞서 말했던 아이들과 다른 주장을 했다.

“그리고요, 진하가 주먹 들고 때리려고 하면서 먼저 제 다리에 발 걸었어요.”

마음이 좀 가라앉았는지 민서가 새로운 사실을 덧붙였다. 진하한테 확인해 보았다.

“진하야, 니가 먼저 주먹 들고 발 걸었나?”

진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하가 솔직히 인정해주니 일이 잘 풀릴 것 같았다.

사실 서로 치며 싸우면 누가 먼저 때렸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서로 때렸다면 둘 다 잘못이 있다. 그렇다고 똑같이 사과하라고 하면 억지로 사과는 하겠지만 둘 다 불만이 남는다. 내가 먼저 맞았는데 왜 같이 사과를 해야 하나? 또는 내가 더 많이 맞았는데 왜 같이 사과해야 하나? 이런 불만이 생기기 때문이다.

오늘 같은 아이들 싸움을 풀 때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거리를 찾아주면 쉽게 풀리는 수가 많다. 진하는 발을 먼저 걸었다는 점을, 민서는 화를 못 참고 신발을 던졌다는 점을 인정하면 둘 모두 사과를 받는 셈이 된다. 사과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

진하와 민서에게 다리 걸고, 실내화 던진 일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했다. 둘은 그러겠다고 했다. 이제 책 문제가 남았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아이들에게 물었더니 대여섯 명이 비슷한 답을 내놨다.

“민서가 진하한테 책값을 물고 사과하면 될 것 같아요.”

규리에 이어 찬기, 수지, 수인이라도 같은 의견이었다. 민서는 가만히 듣고 있었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민서 마음에는 책값은 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러면 처벌은 충분히 된 셈이다. 이제 내가 용서하는 일이 남았다.

“원래는 공부시간에 읽다가 빼앗긴 만화책은 폐휴지로 버리기로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용서하고 다시 돌려줄까 싶다. 누구한테 주어야 할까? 그리고 책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

처음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진하한테 주어야 한다는 아이도 있고 민서한테 주어야 한다는 아이도 있었다. 그러나 잠시 뒤 민서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수지가 먼저 답했다.

“민서가 만화책을 진하한테 주며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요.”

수인이가 보충해서 말했다.

“민서가 만화책 줄 때 말하기 힘들면 쪽지에 써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문제도 답도 모두 아이들 속에 있었다. 공부시간에는 보지 않는다는 다짐을 받고 만화책을 민서한테 주었다. 그리고 진하한테 사과할 수 있겠냐고 물으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싸움이 모두 해결됐다.

찬기와 성진이 싸움은 아주 간단했다. 둘이 딱지를 쳤는데 성진이가 찬기에게 두 장 꼴자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서 싸움이 시작됐다고 했다. 성진이는

찬기가 손가락으로 딱지를 뒤집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물론 찬기는 똑바로 쳐서 넘겼다고 했다. 하지만 찬기한테 딱지를 잃었던 아이들이 성진이 편을 많이 들어주는 바람에 찬기가 딱지 한 장을 성진이한테 넘겨주는 걸로 타협했다.

싸움은 흔히 있는 일이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런데 싸움을 이렇게 분석해보면 대개 아주 작은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 충분히 참을 수 있는 일도 그 순간에 참지 못해 싸우게 된다. 아이들이 이 글을 잘 읽어보고 싸움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자세히 써보았다.

6월 19일

화요일의 매력

‘선생님과 점심 먹기’조를 쫓다. 급식시간에 아이들과 골고루 만나서 밥을 먹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도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었지만 순서를 정해놓지 않고 줄을 서다 보니 몇몇 아이는 자주 같이 먹었는데 어떤 아이는 한 번도 그러지 못했다.조를 짜놓으면 좋은 싫든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먹게 된다. 까닭을 설명했더니 아이들이 대부분 찬성했다.

신청을 받아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다. 다른 날은 문제없이 넘어가는데 화요일만 경쟁이 치열했다. 다섯 명 정원에 무려 열 명이 신청했다. 화요일 날만 특별한 음식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어떤 매력이 있었을까. 퍼뜩 이해가 되지 않았다.

특이한 점은 화요일에 신청한 아이들이 대부분 나와 자주 같이 밥 먹었던 아이들이었다. 그것도 태현이를 빼면 모두 여학생들이었다. 그런데 애들이 서로 떨어지기 싫어서 한꺼번에 화요일을 신청한 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목요일이 비어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섯 명씩 나눠서 화요일과 목요일에 들어가라고 해도 모두 화요일을 고집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만 화요일에 들어가도록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화요일이 인기 있었던 까닭은 다름이 아니라 그 날만 6교시가 든 날이기 때문이었다. 아이들 말로는 화요일은 점심 먹고 한 시간 더 수업이 있어서 여유 있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른 날은 급식 먹자마자 바로 가방 챙겨서 집이나 학원에 가기 바쁘다고 했다. 여유 있게 점심을 먹을 수 있는 날 ‘선생님’과 함께 밥 먹으면 좋다는 게 이유였다.

화요일이 인기 있었던 까닭을 알고 나니 새삼 아이들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다섯 조로 나눠 넣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은 요일별 특징까지 알고 신청을 했기 때문이었다.

‘선생님과 점심 먹기’를 하면 아이들의 식습관도 알 수 있고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못 나눈 아이들과는 다정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나는 싫어해도 아이들은 좋아하는 음식을 나눠줄 수도 있고, 나는 좋아해도 아이들은 싫어하는 음식을 먹어줄 수도 있을 것이다. 당장 월요일이 기대된다.

6월 21일

용감한(?) 수인이

아이들이 써 놓은 생각주머니를 읽어보니 수인이 이야기를 세 명이나 써 놓았다. 그제 토요일 아침에 수인이가 쥐며느리를 가지고 놀았다는 이야기다. 보통 아이들은 쥐며느리 같은 벌레를 징그러워하는데 수인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노는 걸 보니 기억에 남았던 모양이다.

6월 19일 토요일 흐림

학교에 왔다. 교실에 사람이 몇 명 없었다. 그런데 정수인이 쥐며느리인지 콩벌레인지 한 마리를 들고 왔다. 나는 쥐며느리인지 콩벌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 징그러웠다. (장한별)

한별이가 ‘쥐며느리인지 콩벌레인지’라고 쓴 것은 이름이 아직 통일이 안 됐기 때문이다. 지난달에 생물 관찰할 때 아이들이 ‘콩벌레’를 잡았다고 해서 보니 쥐며느리였다. 그래서 앞으로는 쥐며느리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몇몇 아이들은 지금도 ‘콩벌레’라고 한다. 쥐며느리든 콩벌레든 둘 다 깨끗한 우리말이라서 좋긴 하다. 경민이도 한별이와 비슷한 글을 썼다.

6월 19일 토요일 해가 짙쌔

아침에 수인이가 쥐며느리를 갖고 왔다. 너무 컸다. 예전에는 콩벌레라고 불렀는데 선생님께서 쥐며느리라고 가르쳐주셨다. 콩벌레는 쥐며느리니까 쥐다. 쥐는 징그러운데 수인이는 징그럽지 않나보다. (남경민)

경민이가 ‘쥐며느리니까 쥐다’라고 쓴 부분이 재미있다. 쥐도 징그럽고 쥐며느리도 징그러워서 이렇게 연결 지은 듯하다. 사실 쥐며느리는 쥐와는 관계가 없다.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쥐가 지나가면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서 마치 시어머니 앞에서 조용히 있는 며느리를 빗대어 나타낸 말이기 때문이다. 경민이 말처럼 수인이가 갖고 놀던 쥐며느리를 나도 봤는데 정말 어른 새끼손톱만 하였다. 정말 징그러웠다.

6월 19일 토요일 쌀쌀

아침에 수인이가 쥐며느리를 들고 왔다. 그래서 손에다 올렸는데 팔로 올라갔다. 만약 내 팔에 올렸다면 간지러웠을 거야. (박찬기)

찬기는 수인이가 쥐며느리를 가지고 노는 모습을 짧게 써놓았다. 내가 봤을 때도 수인이 팔에서 쥐며느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었다. 손으로 잡기도 징그러운 쥐며느리를 수인이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수인이는 참 용감(?)하다.

사전을 찾아보니 쥐며느리는 주로 썩은 식물을 먹고 살고 사람한테는 해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채소밭에 쥐며느리가 있으면 싹튼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모종의 줄기나 떡잎을 먹기 때문에 살충제를 뿌려 얼씬 못하게 한다고 한다. 수인이 덕분에 쥐며느리에 관해 좀 더 알게 됐다.

6월 22일

낮잠

어제부터 잇몸염증과 몸살감기가 내 몸을 덮쳤다. 지난 주말과 휴일에 건강을 돌보지 않고 생활한 탓이다. 모임과 행사가 겹치니 어쩔 수 없었다.

어제는 진통제를 먹어도 잠이 오지 않을 만큼 고통이 심하더니 오늘은 조금 낫다. 아이들이 돌아간 오후,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내려고 앉았더니 점심 때 먹은 약기운 때문에 졸음만 밀려왔다. 그래서 아무 일도 못하고 의자에 앉아 졸았다.

졸고 있는 동안 방과 후 교실에 갔던 아이들이 교실에 들를 때마다 잠깐 잠을 깼다. 그러다 은서와 가연이가 와서 잠을 깨우려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완전히 일어났다. 시계를 보니 한 시간 가까이 졸았다. 놀라긴 했지만 깨워주어서 고마웠다.

은서와 가연이한테 등 좀 때려달라고 부탁했더니 시원시원하게 잘 때렸다. 3학년 치고는 손매가 매서웠다. 은서는 목이나 머리에 지압도 잘 했다. 부모님한테 많이 해본 솜씨였다. 두 아이 덕분에 몸이 많이 풀리고 기분도 좋아졌다. 그래서 사탕을 두 개씩 손에 쥐어주었다.

사실 지난 3월에 잇몸이 지금처럼 아팠던 적이 있다. 병원에 갔더니 치아 뿌리에 염증이 심하다며 당장 빼자고 했다. 그런데 이 치아를 빼면 옆에 걸쳐 있는 치아도 같이 없어져서 한꺼번에 두 개를 빼는 셈이 되었다.

곧 학부모 공개수업도 있고 교내 수업공개도 해야 되는데 발음이 걱정됐다. 다른 치아에 임플란트 하느라 안 그래도 발음이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질까 싶어서 염증치료만 하고 말았다.

그 때 뺏으면 발음은 안 좋아졌겠지만 지금 같은 고통은 없었을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더 고통을 당하는 것 보다는 빼는 게 맞을 것 같다. 에휴~

6월 23일

즉흥극 수업

듣기·말하기 시간에 이야기 속 인물이 되어 말투나 행동을 흉내 내기 공부를 하였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였는데 처음에는 각 장면과 관련 있는 소리를 들려주면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 소리 분위기에 맞게 행동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에는 장면에 맞는 해설을 들려주면 역시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어 해설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했다. 둘 다 즉흥극을 하기에 좋은 활동이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반 아이들은 즉흥극에 아주 적극적이다. 즉흥극 장면을 만들어놓고 배우를 구하면 너무 많이 신청해서 탈이다. 이럴 때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킬 수 없어서 시간이 없더라도 모두 다 하게 한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첫 장면부터 경쟁이 치열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은 장면이 많아서 신청한 아이들은 모두 할 수 있었다는 거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즐겁게 연기하는 동안 저절로 공부가 된다. 물론 나라도 말로 할 때보다 힘이 적게 든다.

남학생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이는 찬기와 동협이, 구완이다. 특히 구완이와 동협이는 다른 아이들이 할 때도 옆에서 연기를 한다. 들어가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덤비니 옆에서 뒹굴든 말든 그냥 즐기면서 본다. 이 둘은 몸짓연기, 표정연기가 아주 좋다. 시현이, 성진이, 수민이도 늘 해보고 싶어서 손을 든다.

그런데 오늘은 한별이와 정훈이가 새로 뛰어들었다. 이 아이들은 예전에는 얌전히 있는 편이었는데 오늘은 달랐다. 한별이는 몸으로, 정훈이는 사투리로 아주 실감나게 연기를 했다. 태현이와 민석이는 손 들고 나서지는 않지만 시켜주면 잘 한다.

여학생들 중에는 수인이, 민서, 은서, 미경이, 경민이는 안 시켜주면 병이 날 아이들이고 윤재, 용은이, 가연이, 규리, 랑희, 현수도 차분하게 연기를 잘 한다. 경희, 수지, 예진이, 진하, 혜민이는 손을 들고 나서지는 않지만 자기 역할이 주어졌을 때 잘 해낸다.

즉흥극이라면 이렇게 목을 빼고 서로 하고 싶어 난리인 아이들이 지난 4월 학부모 공개수업 때는 왜 아무도 안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엄마가 보니까 부끄러워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엄마가 더 좋아했을 것 같은데 말이다.

6월 24일

대리 싸움

아침에 교실에 들어서니 평소와 달리 조용하였다. 뒤에서 딱지 치는 아이도 없고 소파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도 없다. 모두 자리에 앉아 생각주머니에 글을 쓰거나 제 할 일을 하고 있다. 오늘 봉사위원인 윤재가 교실 관리를 잘 하고 있었다. 그런데 뭔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다.

“오늘 아침 활동 참 잘하네? 근데 무슨 일 있었나?”

교실을 한 바퀴 돌며 아이들에게 물었다.

“아까요, 1반 아이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라고 했어요.”

“구완이를 데리고 가려고 했어요.”

그럼 그렇지. 내 짐작이 맞았다.

아이들 말을 들어보니 1반 여학생 세 명과 남학생 두 명이 우리 반 구완이를 잡으러 왔다고 했다. 구완이와 1반 오선이가 같은 학원차를 타고 오다가 잡기 놀이를 했는데 오선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다는 것이다. 그래서 구완이가 사과를 하고 교실로 왔는데 1반 아이들은 구완이가 사과를 안 했다며 따졌다는 것이다. 특히 여학생 세 명은 큰 목소리로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고 했다.

“구완이 나왓! 너도 오선이랑 똑같이 만들어 줄거야.”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아무리 친구가 다쳤더라도 이렇게 복수하려는 듯한 말은 안 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오선이는 남자인데 말이다.

경민이 말로는 이 여학생 중 두 명이 오선이를 좋아하는 아이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오선이가 1반에서 ‘인기 짱’이라고 했다. 그럼 좋아하는 남자친구를 위해 복수하려고 우리 반에 왔다는 말인가? 경민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참 웃겼다.

구완이한테 그 여학생들이 나오라고 할 때 기분이 어땠느냐고 물으니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다섯 명이나 몰려와서 압력을 넣으니 마음 약한 구완이가 견디기 힘들었던 모양이었다.

1반 아이들은 좋아하는 오선이가 다쳐서 마음이 아팠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아이들 때문에 눈물 흘리는 구완이가 더 마음 아파보였다. 우리 반 아이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궁금했다.

“그럼, 그 애들이 몰려왔을 때 우리 반 아이들은 가만히 있었나?”

“아뇨, 우리가 가라고 소리쳐서 보냈어요.”

“그래? 소리 친 사람 손 들어보자.”

손 든 아이들 수를 세어보니 열 명쯤 되었다. 일곱 명은 여학생이고 세 명은 남학생이다.

“내가 보기에 오선이보다 구완이가 더 인기 있네. 오선이한테는 다섯 명밖에 안 왔지만 우리 반은 열 명이나 가라고 했으니 말야.”

이러니까 당장 다른 말이 나왔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완이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에이, 아까 가라고 소리치지 말걸.”

그냥 넘어갔으면 구완이가 기분이 좋아졌을 텐데 아이들은 이런 차이가 있을 때 참지 않고 말해버린다. 내가 말했다.

“그래. 너희들 말이 맞아. 꼭 구완이가 좋아서 그랬다고 할 수는 없어. 그런데 1반 아이들도 다섯 명 왔지만 그 애들 모두 오선을 좋아해서 온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 반이 더 대단한 거지. 우린 열 명이 막았으니까.”

이 말에 토를 다는 아이들은 없었다. 오선이와 구완이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오선을 대신해서 1반 아이들이, 구완이를 대신해서 우리 반 아이들이 서로 말싸움을 벌여서 ‘대리 싸움’이 벌어진 아침이었다. 재미있는 아이들이다.

6월 25일 금 장마구름이 하늘을 뒤덮다

독서 감상문 제목 정하기

1교시 쓰기 시간에 독서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 쓰는 방법을 공부했다. ‘<플랜더스의 개>를 읽고’라는 예시 글을 읽고 이야기를 읽게 된 까닭, 재미있거나 감동받은 부분,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낸 부분, 자신의 경험을 나타낸 부분을 찾아보았다. 찾아본 내용은 모두 독서 감상문에 들어갈 내용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다음은 제목 정하기 순서다. 교과서에는 책 제목을 이용하여,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며, 재미있거나 감동받은 부분을 떠올리며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책 제목을 이용하여 정하기는 ‘<플랜더스의 개>를 읽고’라는 제목이 제시되어 있어서 넘어갔다. 다음은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며 제목을 정하기이다. 발표를 시켰더니 시현이가 ‘착한 네로’를, 경민이가 ‘단짠 파트라세’를 말해서 둘을 합쳐 ‘착한 네로와 단짠 파트라세’로 만들었다. 그럴 듯한 제목이 되었다. 민서가 ‘마음 착한 네로와 단짠 파트라세’로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

재미있거나 감동받은 부분을 떠올리며 제목을 정해보자고 했더니 규리가 ‘자기 일을 척척 하는 어른스런 네로’를, 미경이가 ‘가난하지만 착한 마음을 가진 네로’를 발표했다. 모두 좋은 제목이었다.

지금까지 알아본 여러 제목들 가운데 하나를 쓰면 독서 감상문 제목이 된다고 일러두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말해주고 싶은 게 있었다. 독서 감상문 제목 쓰는 방법은 정답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지금까지 독서 감상문 제목 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책 제목만 덜렁 써놓는 것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들어간 제목이면 더 좋겠습니다. 점수로 말하면 책 제목만 써놓은 제목은 삼십 점정도,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며 정한 제목 또는 재미있거나 감동받은 부분을 떠올리며 정한 제목은 칠십 점정도 주고 싶어요.”

내 말을 골똘히 듣던 아이들이 물었다.

“그럼 백 점은 뭐예요?”

굳이 백 점까지 계산하며 제목을 정할 필요가 없었지만 아이들이 물어서 대답했다.

“백 점은 칠십 점짜리 제목 아래에 삼십 점짜리 제목을 함께 써 놓으면

되겠네요. 예를 들면 이렇게요.”

이렇게 말하며 아이들이 발표했던 제목 가운데 하나를 골라 칠판에 썼다.

‘착한 네로와 단짝 파트라셰 -〈플란더스의 개〉를 읽고-’

“어때요? 책 제목만 써놓는 것 보다 훨씬 좋지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수업을 마치고 칠판을 지우려는데 태현이가 물었다.

“선생님, 그럼 세 가지 다 써놓으면 점수가 더 높아요?”

태현이는 칠십 점짜리 두 개에 삼십 점짜리 하나면 점수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모양이었다. 설명하기가 좀 까다로웠다.

“아냐, 위에 있는 거 두 개 중에서 하나만 써도 돼. 네가 쓰고 싶은 것으로 쓰면 돼.”

태현이는 알듯 모를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삼 학년들에게 굳이 점수까지 들먹이며 독서 감상문 제목 정하기 지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데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때 제목에 관해 생각해보지 않으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책 제목만 덜렁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꼭 필요한 지도라고 생각한다.

6월 28일 월 장마구름이 하늘에 가득하다
즐겁고 행복한 수업이 되려면

“됐다.”

“그만.”

“입 다물어라.”

수업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찍어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수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지 싶다. 모두 열심히 말하고 있는 아이에게 그만 말하라고 보내는 신호다.

수업시간에 참여하는 정도, 말이 많은 정도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보면 아이들은 크게 네 부류로 나뉜다. 적극 참여하며 말 많은 아이, 적극 참여하지만 차분한 아이, 차분하지만 참여가 부족한 아이, 말 많고 참여가 부족한 아이가 그것이다.

내가 자주 하는 말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말이지만 이 말들은 조금 다른 장면에서 쓴다. ‘됐다’와 ‘그만’은 적극 참여하며 말 많은 아이들에게 주로 던지는 말이다.

수업을 하다보면 내 이야기를 들으며 자기 생각을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아이들이 몇 명 있다. 이 아이들은 말하고 싶은 충동을 못 이겨서 내 말에 끼어들기도 하고 가로채기도 한다. 손을 들어서 말할 때도 있지만 시키지 않아도 일단 말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 아이들 말을 듣다 보면 수업 흐름이 끊기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방향으로도 흘러간다. 또 이 아이들 말이 주의집중을 흐트려 다른 아이들이 떠들 빌미가 되기도 해서 수업에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 그래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수업을 위해서 ‘됐다’ 또는 ‘그만’이라는 신호를 보내게 된다.

그래도 이런 경우는 선생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수업에 적극 참여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여서 낫다. 안 좋은 것은 바로 ‘입 다물어라’는 말이 나올 때다. 이 말은 수업과 관계없이 떠드는 아이들(말 많고 참여가 부족한 아이)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우리 반에는 위에서 말한 네 부류의 아이들이 골고루 있다. 이 가운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경우는 바로 ‘말 많고 참여가 부족한 아이’가 많이 눈에 띈 때다. 아마 이런 아이는 교사라면 누구나 싫어하고 통제하고 싶을 것이다. 가장 좋은 경우는 ‘차분하게 적극 참여하는 아이’가 많을 때다. 이럴 때는 수업을 해도 힘이 적게 들고 신이 난다.

내 경험으로 보면 이 네 부류의 아이들을 모두 수업에 잘 참여하도록 하

는 방법이 있다. 아이들 모두를 차별하면서도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교사가 수업을 멋지게 준비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관심을 모으는 자료를 준비하고 짜임새 있고 즐거운 수업이 되도록 하면 된다. 야구 경기에 비유하면 타자가 홈런을 치는 것으로 보면 된다.

하지만 타자가 자주 홈런을 치기 어렵듯 교사도 날마다 멋진 수업을 준비하기란 사실 힘들다. 그래서 늘 아이들이 차별하게 참여하면 좋겠다고 기대한다. ‘됐다’, ‘그만’, ‘입 다물어라’는 잔소리는 이런 교사의 하소연이라고 보면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교사는 늘 좋은 수업을 하려고 노력하고, 아이들은 차별하면서도 적극 수업에 참여하면 된다. 이 둘이 사이좋게 어울리면 교실에는 잔소리 대신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할 것이다.

6월 29일 화요일 하늘에 장마구름이 가득하다

시험지 푸는 날

모레가 기말고사 시험 날이다. 시험이 다가오면 한 열흘 전부터 아주 바쁘다. 시험범위에 맞춰 밀린 진도도 나가야 하고 예상문제를 복사해서 아이들과 함께 풀이도 해야 한다.

특히 기말고사는 네 과목만 봤던 중간고사와 달리 전 과목을 본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같은 지식과목은 늘 책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큰 걱정이 없다. 하지만 미술, 체육, 음악처럼 실기 위주로 수업하던 과목은 일부러 이론 공부를 해야 마음을 놓는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예상문제지를 풀이하느라 바빴다. 여섯 시간 중 네 시간이나 문제 풀이를 했다.

“또 시험지예요?”

문제지를 나눠줄 때마다 몇몇 아이들이 짜증을 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열심히 풀고 매졌다.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몇 문제가 시험에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열심히 봐야 돼요. 이 문제지에서 몇 개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답할까를 생각해야 돼요.”

아이들이 지겨워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말도 했다. 시험에 꼭 나올 듯한 문제를 만나면 따로 설명을 덧붙였다. 눈치 빠른 아이들은 왜 그랬는지 짐작했을 것이다.

시험지를 풀이하다가 느낀 것이지만 아이들 성적은 대부분 집중력에서 갈린다. 집중력은 마음을 흐트리지 않고 보는 힘이다. 교사가 설명할 때 또는 무엇을 보여줄 때 딴 생각하지 않고 듣거나 보는 태도만 되어 있어도 성적은 올라간다.

오늘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다. 과학 시간에 구름에 관해 공부할 때 텔레비전으로 중요한 내용을 보여주었다. 이 때 잠시 화면을 거꾸로 돌려놓고 잘 보고 있던 아이 한 명과 잘 보지 않던 아이 한 명을 불렀다. 두 아이에게 방금 화면에서 ○○은 어떻게 기호로 나타냈는지 칠판에 그려보라고 했다.

결과는 뻔했다. 안 보고 있던 아이는 못 그린 반면 보고 있던 아이는 손쉽게 그렸다. 잘 그린 아이에게는 ‘100점’을, 못 그린 아이에게는 ‘20점’을 써 놓고 이야기했다.

“보세요. 만약 이게 시험이었다면 한 쪽은 100점, 한 쪽은 20점 밖에 못 받았을 거예요. 100점 받은 아이가 머리가 특별히 뛰어난니까? 아니지요.

20점 받은 아이도 머리가 나빠서 20점이 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된 건 무엇을 잘 보고 안 보고의 차이지요. 여러분 기말고사 성적도 똑같습니다.”

집중하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게 되고, 정보가 많은 아이는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누구나 아는 것이지만 사실 이게 쉽지 않다. 특히나 삼 학년들은 아직 머리 보다는 몸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그렇다. 하지만 지금부터 집중하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영영 그런 힘을 가질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길게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하루 종일 문제지와 씨름하느라 아이들도 지치고 나도 지치던 마지막 시간에 예상치 못한 멋진 선물이 왔다. 미경이 어머니가 보내주신 아이스크림이 한 가방 들어온 것이다. 시험지 나눠준다고 짜증내던 목소리는 쏙 들어가고 찻찻거리며 맛있게 먹는 소리만 교실에 가득했다. 축구에서 꼭 필요할 때 한 골 넣어주는 선수처럼 시험지 때문에 짜증이 최고로 올라갈 시간에 아이스크림을 배달해주신 미경이 어머니가 너무 고마웠다. (나중에 들어보니 미경이가 아이스크림 넣어달라고 엄마를 졸랐다는데 오히려 미경이한테 고마워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6월 30일 수요일 장마 구름 속에 햇살이 비친다. 무덥다.

체육이 그렇게 좋을까

내일이 기말고사 시험 날이지만 아침 시간에 시험공부 하는 아이는 남학생 두 명 뿐이었다. 그 두 명도 문제지만 펴 놓았지 앉아서 노는 건 마찬가지였다. 시험을 코앞에 두고도 아이들은 태평스럽다. 부모님이나 교사들만 마음 졸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다.

첫째 시간은 체육이었다. 이번에 체육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오늘은 바깥 활동 대신 체육교과서를 들고 공부하기로 했다. 어제 책 준비하라고 예고도 해두었다.

“모두 체육 책 펴세요. 오늘은 책으로 시험공부 한다고 했지요?”

하지만 아이들은 내 말을 듣는 등 마는 등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아까운 체육시간을 놓치기 싫은 표정들이었다.

“아니, 뭐해? 시험 빵점 받아도 좋아?”

“네!”

이구동성이었다. 정말 빵점 맞아도 좋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했더니 태현이와 현수 빼고 모두 손을 들었다.

“오늘 체육 한다고 미경이는 구두 안 신고 운동화 신고 왔단 말이에요.”

“이것 보세요. 체육 하면 덥다고 물도 챙겨왔어요.”

“우리 엄마가 더울까봐 아이스티도 챙겨줬어요.”

밖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에 갖가지 변명을 둘러댔다.

“공부 안 해서 빵점 받으면 누가 책임져?”

“우리가요.”

막무가내였다. ‘이 쯀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던 전직 대통령 말이 생각났다.

“안 되면 줄넘기라도 해요.”

평소에는 체육시간에 줄넘기 한다고 짜증만 내더니 오늘은 마음이 급한 모양이었다.

“지난번에 1반하고 발야구 했을 때 너무 못해서 체육 해봐야 소용없더라. 그냥 공부하자.”

“다음에는 우리가 이기면 되잖아요.”

어떤 말을 해도 이미 아이들 마음은 운동장으로 가 있었다. 눈을 돌려 슬쩍 운동장을 바라보니 텅텅한 장마철 더위가 느껴졌다. 교실에 있으면 땀 흘리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데 더위 따위는 아랑곳 않는 아이들이 알미웠다.

머리 보다 몸을 놀리고 싶은 아이들을 누를 수가 없었다.

“좋아. 그럼 줄넘기 줄 챙겨서 운동장으로 가자.”

기다리던 말이 나오자 아이들이 소리 지르며 기뻐했다. 마치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에서 우승이라도 한 분위기였다.

아이들을 모두 내 보내고 호루라기 챙겨서 나가는데 태현이가 다가와서 말했다. 얼굴빛이 좋지 않았다.

“선생님, 저는 머리가 아파서 못 가겠어요.”

“왜? 어제 공부 많이 해서 그렇제?”

“네.”

태현이 말로는 어제 학원에서 밤 아홉 시까지, 집에 와서 열한 시 반까지 공부하고 오늘 새벽에도 다섯 시 반에 일어나서 공부했다고 했다. 어린 나이에 몸에 부치는 공부를 하다보니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었다.

태현이와 다리가 불편한 한별이를 교실에 남겨두고 운동장으로 나갔다. 숨 막힐 듯 눅눅하고 더운 공기 속에서도 아이들이 열심히 줄넘기를 하고 있었다. 시험이 있든 말든 걱정 없이 뛰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니 피식 웃음이 나왔다.

☆이번 체육 시험은 내가 냈다. 그래서 사실은 책을 안 봐도 큰 걱정이 안됐다. 문제만 읽으면 답이 나올 정도로 쉽게 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체육 하자고 했을 때 아이들에게 밀리지 않고 내 고집을 피웠을지 모른다.

7월 1일 목요일 장마구름이 하늘에 가득하다. 비는 내리지 않고 툇툇하다.

기말고사 교실 풍경

첫째 시간에 국어시험을 보다가 정훈이가 물었다.

“선생님, 유래가 뭐예요?”

초대장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에 나온 낱말이었다. 이 문제에는 시간, 장소, 내용, 찾아오는 길, 유래 이렇게 다섯 가지 보기가 있다. 답이 바로 유래인데다 사회 시간에 ‘고장의 발자취’를 배울 때 여러 번 나온 단어라서 말해주지 않았다.

십 분쯤 지났을까. 찬기도 물어볼 게 있다고 했다.

“동정심이 뭐예요?”

문제지를 보니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두 염소의 성격을 묻는 문제에 이 낱말이 있었다. 내가 보기에는 동정심이 뭔지 몰라도 풀 수 있는 쉬운 문제였다. 하지만 교과서로 다루지 않은 낱말이라서 뜻을 알려주었다.

“동정심이란 남을 가엾게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다.”

말해놓고 보니 정훈이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둘 다 답답한 마음에 물었을 텐데 정훈이한테만 가르쳐주지 않았으니 말이다. 정훈이는 아랑곳 않고 문제를 풀고 있었다.

시험을 쉽게 낸 탓인지 십여 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몇몇 아이들은 다 풀었다고 했다.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라고 했다.

잠시 뒤에 수인이가 물었다.

“동정심이 뭐예요?”

수인이는 찬기가 질문했을 때 설명을 듣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같은 질문을 연거푸 받으니 오늘이 시험 날이구나 하는 게 느껴졌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그거 몰라도 답 알 수 있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찬기와 미경이가 차례로 수인에게 말했다.

“맞아. 또 설명해주면 좋겠는데 미경이 말처럼 그 말뜻을 몰라도 답 알 수 있으니까 찾아봐라.”

내 말에 수인이라도 알겠다면 다시 풀어나갔다.

아이들을 둘러보니 대략 네 명 가운데 세 명은 문제를 다 풀고 앉아 있었다. 나머지 아이들을 위해 조용히 기다리자고 했다.

삼사 분쯤 뒤에 정훈이가 다시 물었다.

“선생님, 동정심이 뭐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칠판에 ‘동정심’이라고 크게 써놓고

“이거 보세요. 동정심이란 남을 가엾게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입니다.”

하고 말해줄 걸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시험 날에 그렇게 했다간 다른 반으로부터 오해 받기 아주 좋다. 그래서 미경이가 했던 말을 정훈이에게 그대로 전해주었다.

“정훈아, 그거 몰라도 답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찾아봐.”

정훈이를 끝으로 질문은 더 나오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물어보니 다 풀었다고 해서 조금 일찍 시험지를 걷었다.

시험 날 교실에는 연필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저런 이야기가 오간다. 특히나 어려운 낱말이 나오면 오늘 같은 일이 흔히 벌어진다. 어려운 낱말을 넣어 문제를 낸 교사가 잘못된지, 어휘력이 부족한 아이들 잘못된지는 나도 모르겠다.

‘동정심’이란 말이 그렇게 어려웠을까? 내가 낸 과목이라서 더 신경이 쓰였다.

7월 2일 금요일 아침에 빗방울 잠깐, 하늘은 여전히 흐리다

애국가는 경건하게만 불러야 하나

어제 치룬 시험지를 오전에 모두 채점했다. 마침 전담 수업이 두 시간 있어서 여유 있게 매겼다. 점수를 훑어보니 한두 과목 빼놓고는 성적이 좋았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이라면 도덕 점수가 평균보다 낮게 나왔다는 거다. 대개 도덕 과목은 점수를 쉽게 따는 과목인데 이번에는 문제가 어려웠던 모양이다.

문항별로 살펴보니 두 문제에서 많이 틀렸다. 한 문제는 문제를 검토할 때부터 어려울 거라고 예상했던 것이다. 맞힌 아이가 다섯 명이다.

나머지 한 문제는 쉽게 답할 거라고 봤는데 틀린 아이와 맞힌 아이가 반반이다. 정답률이 정도면 초등학생들에게는 어려운 문제다. 문제는 이렇다.

<문제> 다음 중 애국가는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까?

① 가벼운 마음 ② 슬픈 마음 ③ 귀찮은 마음 ④ 경건한 마음 ⑤ 씩씩한 마음

이 문제의 정답은 ④번이다. 그런데 아이들 가운데 절반이 ⑤번을 선택해서 틀렸다. 시험 볼 때 ‘경건한’의 뜻을 모르겠다고 해서 사전에 있는 대로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는 설명을 텔레비전으로 보여주었다. 거의 답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정답률이 절반 밖에 안 됐다. 무엇이 원인이었을까.

교과서(생활의 길잡이)에는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애국가를 감명 깊게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예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는 주제가 있다. 태극기와 애국가는 예절을 지켜서 대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도록 미리 선을 그어놓았다.

또 그 아래에는 ‘외국 팀과 축구 경기를 하기 전에 태형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감동을 생각하며 애국가를 힘차게 불러 봅시다’는 지시문을 넣고 ‘태극기를 보며 애국가를 부를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불러야 하겠습니까?’하는 질문을 넣어놓았다. 이때는 당연히 조용하고 경건하면서도 힘차게 불러야 한다고 답해야 한다.

그런데 월드컵 같은 큰 국제스포츠행사가 열리면 툭툭 튀는 복장에 얼굴이며 몸에 갖가지 무늬를 그리고 응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 태극기도 이들에게는 예절을 떠올리는 대상이 아니라 옷이나 신체그림 같은 홀

룡한 응원 도구로 변한다.

이들이 가끔 응원가로 애국가를 부르는데 들어보면 아주 밝고 신난다. 유명가수들도 애국가를 넣은 응원가를 빠른 반주에 맞춰서 부르기도 한다. 애국가는 늘 굳은 표정으로 몸을 꼴꼴이 세우고 무뚝뚝하게만 불러왔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애국가를 저렇게 기분 좋게 부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들에게 태극기에 대한 예절이 부족하다거나 경건하게 애국가를 부르지 않는다고 야단치면 될까. 오히려 태극기와 애국가를 더 친하게 느끼도록 해주어서 상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애국가는 때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든다.

아마 이 문제를 나이 든 어른들에게 내면 대부분 ④번을 선택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애국가는 의식행사 때 조용하고 경건하게 부른 기억 밖에 없을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하는 어린 세대에게 애국가는 때로는 경건하게 부르는 의식곡이다가도 때로는 씩씩하고 신나게 부르는 응원가가 된다.

이 문제는 다음처럼 내면 아이들도 헛갈리지 않게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문제> 다음 중 광복절 기념식을 할 때 애국가는 어떤 마음으로 불러야 합니까?

① 가벼운 마음 ② 슬픈 마음 ③ 귀찮은 마음 ④ 경건한 마음 ⑤ 씩씩한 마음

그래도 어려운가?

7월 3일 토요일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고 습도가 높다.

눈물범벅 정훈이의 생일잔치

6월, 7월 생일잔치를 열었다. 이번에 축하를 받는 아이는 정훈이, 랑희, 구완이, 윤재 이렇게 네 명이다.

생일잔치를 시작하기 전에 아침에 쓰는 생각주머니 공책을 보는데 정훈이 것이 없었다. 정훈이 더러 찾아보라고 했더니 책상을 뒤져서 찾아왔다. 평소 때면 찾지도 않았을 텐데 규리 어머니가 보낸 닭고기를 안 준다고 했더니 재빨리 찾아왔다.

공책을 살펴보니 써놓은 글이 한 편도 없었다. 공책 내라고 할 때마다 잃어버렸다, 못 찾겠다고 발뺌한 결과가 이렇다. 다른 아이들은 한 권을 다 쓰고 벌써 두 권 째 쓰고 있는데 정훈이는 제대로 쓰지 않은 채 잃어버린 것만 두 권이다. 새 공책을 주면 쓰지도 않고 아무데나 던져놓고는 찾을 생각도 하지 않는다.

생일축하를 받는 기쁜 날인 것은 알지만 잘못은 짚어야겠다 싶어서 야단을 쳤다.

“삼 학년이나 됐으면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챙길 때도 됐는데 아직 아무 것도 못 챙기나?”

이러며 어깨를 한 번 꼬집었더니 금세 닭똥 같은 눈물을 질질 흘리며 짜는 소리를 냈다. 어디서 짜고 있냐고 소리를 질러도 막무가내였다.

자리로 가서도 계속 울고 있었지만 음식을 꺼내놓고 기다리는 아이들 보기가 미안해서 우선 생일잔치를 시작했다. 생일 주인공이라고 나오라고 해도 성질부리며 나오지 않는 녀석을 겨우 칠판 앞에 세웠더니 얼굴이 온통 눈물범벅에다 창밖에 보이는 장마구름처럼 잔뜩 찌푸렸다. 고깔을 쓰라고 해도 쓰지 않아서 억지로 씌워주었더니 벗기지는 않았다.

노래를 부르고 촛불 끄는 순간에도 입을 삐죽 내고 눈을 깔고 있던 정훈이가 얼굴을 편 건 아이들이 우르르 나와서 편지와 선물을 한 아름 안겨줄 때부터였다. 주인공 네 명 가운데 선물을 가장 많이 받은 것이다. 아이들이 정훈이를 둘러싸고 선물을 하나하나 펴 주자 굳게 닫혔던 입이 뻥긋 뚫렸다. 그제야 오늘 생일잔치의 주인공이 되었다.

생일을 맞아 친구들이 준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정훈이를 보니 내 기분도 좋아졌지만 언제쯤 자기 물건 하나라도 제대로 챙길까 생각하니 까마득하기만 하다. 그래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친구들이 많아서 한결 마음이 놓인다. 그런 친구들이 참 고맙다.

**생일잔치 한다고 아이스크림을 보내주신 구완이 어머니, 닭고기를 보내주신 규리 어머니께 고맙다는 말씀 전합니다. 덕분에 더욱 알찬 생일잔치가 됐습니다.

7월 5일 월요일 구름 드리운 하늘
에어컨 켜는 날

“와, 시원하다.”

“여기가 천국이다!”

음악실에 갔다가 교실로 돌아온 아이들이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아이들이 없는 동안 에어컨을 켜 두었기 때문이다. 몇몇 아이들은 코에 땀을 송골송골 달고 왔다. 음악실은 에어컨이 고장난데다 학교에서 가장 덥다는 사 층에 있어서다. 그러니 교실이 얼마나 시원했을까.

오늘부터 방학 때까지 에어컨을 켜기로 했다. 아침에 ‘오늘부터 에어컨 켜집니다. 에어컨 작동시간은 오전 10시 -12시, 오후 1시 - 3시 입니다. 시원하게 공부하세요.’라는 팝업 연락이 왔을 때 사실 아이들 보다 내가 더 기뻐다. 나는 웬만한 추위에는 끄떡도 하지 않지만 더위에는 맥을 못 추기 때문이다.

특히 습기에 약해서 요즘 같은 눅눅한 장마철에는 힘을 못 쓴다. 이런 날이 여러 날 이어지면 기운이 없어지고 밥맛도 떨어진다. 일년 가운데 아이들한테 가장 짜증을 많이 내는 시기도 바로 이 때다. 평소에도 좋은 선생은 못 되지만 장마철에는 나쁜 선생이 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이걸 알면 생활하는데 좋은 정보가 될 텐데 삼 학년이라 눈치가 있으려나 모르겠다.

올 해도 지난 오월부터 일찌감치 개인 선풍기를 교실에 갖다 놓고 에어컨 켜는 날만 기다렸는데 드디어 그 날이 온 것이다. 시험 삼아 켜 보니 소음도 적고 바람도 시원하게 잘 나와서 아이들 말대로 천국에 온 듯하다. 이제 더위 핑계로 아이들한테 짜증내면 안 되겠다 싶다.

오후에 아이들이 없을 때 일 보면서 에어컨을 켜다가 껐는데 문을 닫아놓았더니 찬 기운이 한 시간 넘게 남아있다. 조금 더워지려 할 때 선풍기를 켜 놓으니 마치 에어컨 켜 것처럼 시원하다. 오랜 만에 오후 시간도 시원하게 보냈다. 휘파람이 절로 나온다.

7월 6일 화요일 오후에 하늘이 파랗게 열렸다.

노래 부르기

오랜만에 기타를 잡았다. 지난 4월 공개수업 때 이후 처음이다. 학기 초에는 아이들과 노래를 많이 불러야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수없이 쏟아지는 행사와 빡빡한 교과진도 때문에 엄두를 못 냈던 탓이다. 그 동안 교실 한 구석에서 먼지만 맞고 우두커니 서 있던 기타 보기가 미안했다. 이제 기말고사도 끝났고 십여 일 뒤면 방학이라 마음 편하게 꺼낼 수 있게 되었다.

가방에 쌓인 먼지를 털고 기타를 꺼내어보니 다행히 줄에 녹은 슬지 않았다. 하지만 줄을 튕겨보니 통통거리며 묵은 소리가 났다. 녹녹한 장마철인데다 오랫동안 손질을 안 한 결과다.

“선생님, 한 곡 뽑지요?”

“줄만 만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노래 불러요.”

줄을 고른다고 튕팅 거리고 있으니 아이들이 보챘다.

“알았다. 조금만 기다려봐라. 줄을 맞춰야 칠 거 아이가.”

우선 악보를 나눠주고 가사를 읽어보게 했다. 오늘 부를 곡은 ‘너를 아주 좋아하니까’와 ‘우리 반 여름이’ 이렇게 두 곡이다. 노래도 좋지만 마침 이번 주가 ‘친구사랑주간’이어서 가사가 어울려서 골랐다.

‘너를 아주 좋아하니까’는 두 친구가 문답식으로 가사를 주고받으며 부르는 곡이다.

A : 내가 너에게 물어볼게.

B : 뭘?

A : 너는 무슨 색 제일 좋아하니?

B : 나는 너에게 대답해줄게. 나는 ○○색 제일 좋아한다.

A : ○○ ○○색이 제일 좋다구? 나도 너의 색이 좋아질거야. 왜냐구 누가 내게 물어오면은 나는 너를 아주 좋아하니까.

이 노래를 부를 때 B는 ○○에 자신이 좋아하는 색을 말하면 된다. 가사가 정해져 있지 않고 사람에 따라 가사를 달리 넣을 수 있는 곡이어서 아이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역할을 바꾸어서 2절은 좋아하는 꽃을, 3절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답한다. 3절은 두 사람이 함께 불러도 되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되풀이해도 좋다.

‘우리 반 여름이’는 섬진강 시인으로 불리는 김용택 선생님이 쓴 시에 백

창우 선생이 곡을 붙인 노래다.

우리반에 여름이 / 가을에도 여름이
겨울에도 여름이 / 봄이와도 여름이
우리반에 여름이 / 여름내내 여름이

가사에는 ‘여름’이란 이름을 가진 한 아이가 나온다. 좋은 싫든 이름 때문에 친구들 입방아에 오르내렸을 법한 이 아이를 재치 있게 시에 담아 달래고 품어주려 했던 김용택 선생님 마음이 느껴진다. 곡이 워낙 부드러워서 이름이 참 소중한구나 하는 느낌이 절로 드는 노래다.

먼저 이 노래를 부르기로 했다. 분위기를 잡으려고 칠판에 ‘친구의 날 기념 노래 부르기’라는 주제를 써 놓고 설교 아닌 설교도 잠시 했다.

“여름이란 이름 어때요? 참 좋지요? 만약에 이름으로 장난치면 놀림을 받는 사람은 기분이 참 나쁠 것 같아요. 친구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러봅시다.”

기타에 무선 마이크를 테이프로 붙이고 굳은 손가락을 놀리며 줄을 튕겼다. 노래가 단순해서 한두 번 연습하니 금세 따라 불렀다. 텅텅거리며 무겁던 기타 소리도 고운 아이들 목소리와 어울리면서 살아났다.

함께 몇 번 부른 뒤 앞으로 나와서 부를 사람은 나오라고 했더니 너도 나도 하겠다고 우르르 몰려나와서 예닐곱 명만 부르게 했다. 노래나 율동할 때 서로 나오겠다고 하는 건 우리 반 아이들이 가진 특징이다. 오전에 한 시간이나 나한테 야단을 듣고도 이러한 아이들을 보면 참 티 없이 맑다는 생각이 든다.

‘너를 아주 좋아하니까’ 짝과 역할을 나눠서 했다. 마침 이번 달에는 남-남, 여-여로 짝을 정해서 아무도 반발하지 않았다. 남-여가 짝이었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다. 아래층에 조용히 계시는 교장선생님이 깜짝 놀라 뛰어 올라오실 정도로 말이다.

7월 7일 수요일 오후에 천등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림

집으로 간 시험지

지난주에 치렀던 기말고사 시험지를 봉투에 넣어 아이들 편에 집으로 보냈다. 시험지를 보내는 건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받은 성적을 좀 더 꼼꼼히 살펴볼 수 있게 하려는 학교 뜻에 따른 것이다. 아이들 표정을 보니 대부분 무덤덤했지만 몇몇 아이는 싱글벙글한 표정이고 또 몇몇은 걱정 어린 얼굴이다. 아마 오늘 저녁에는 각자 집에서 시험 이야기로 울고 웃을 듯하다.

우선 부모님들이 시험 점수를 훑어보고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할까?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이 말이 아닐까 싶다.

“사회는 저번보다 잘했는데 수학이 왜 이렇노?”

중간고사 때보다 사회는 반평균 점수가 6점 오른 반면 수학은 무려 14점이나 떨어졌다. 한 문제가 4점이므로 세 문제 반이 더 틀린 셈이다. 떨어진 수학 점수를 보고 부모님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다.

그렇다고 마냥 걱정만 하지 않으면 좋겠다. 사실 중간고사 때는 수학이 너무 쉬웠다. 반평균 점수가 90점이었으니 말이다. 이번에는 좀 어렵게 낸 탓에 성적이 떨어졌지만 아이들 실력은 그 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오히려 이번처럼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아이의 약점을 올바르게 알 수 있다. 다음 시험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이런 약점을 알아두는 게 도움이 된다.

점수를 훑어보고 나면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것이다. 어렵게 나온 문제는 함께 답을 찾아보기도 할 테고 쉽게 나왔는데도 틀린 문제를 보면 “이것도 몰랐나?” 하며 속상해하는 분들도 있을 듯하다.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옆에서 지켜보면 나도 참 답답할 때가 많다. 예를 들어 ‘다음 중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아닌 것은?’이라는 문제에서 보기가 ‘옛날, 한낮, 이른 아침, 어느 마을, 이른 새벽’이라고 나왔다면 당연히 ‘어느 마을’로 답해야 할 텐데 다른 보기를 써서 틀리는 경우가 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딸 아이 기말고사 준비하는 걸 도와주다가 화병이 날 뻔 했던 적이 있다. 과학 공부를 하는데 ‘찬물이 든 컵 표면에 생긴 물방울은 어디서 온 것인가요?’라는 문제를 보고는 자꾸만 컵 안에서 나왔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어른들은 경험이 있으니까 ‘당연히’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운 컵 표면에 달라붙어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실험을 하며 직접 확인해보기 전에는 답하지 못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딸아이는 아직 수업 시간에 실험하지 않았다고 했다.

만약 이런 문제를 틀렸다면 우선 수업시간에 제대로 학습했는지 확인해보고 수업 시간에 다루었는데도 모르면 아이의 수업태도를 점검해보는 게 좋다. 실수로 틀린 문제가 많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한다.

시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지만 부모라면 누구나 아이가 받은 시험 점수를 보며 아쉬운 마음을 한 번 쬔은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성적이야 어떻든 이제 시험은 끝났다. 아이들은 현재와 미래를 살아야 하므로 아이들이 한 만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좋겠다.

7월 8일 목요일 장마 구름이 다시 짙어지다.

질문 금지

미술 시간에 교내 독서 행사로 책 표지 그리기를 했다. 8절지를 한 장씩 나눠준 뒤 자신이 재미있게 읽었던 책 표지를 똑같이 그리면 된다고 설명해주었다. 책이 없는 사람은 도서관에 가서 골라오라고 했더니 우르르 몰려왔다 왔다.

“선생님, 이 책 돼요?”

“이 책 그리기 어려워요?”

아이들이 저마다 들고 온 책을 보여주었다.

“그림이 너무 딱딱해서 안 되겠다.”

“그림이 단순해서 다른 걸로 바꿔야겠다.”

“표지가 사진인데 그릴 수 있겠나?”

“배경이 너무 어두워서 색칠하기가 어렵겠는데?”

이런 식으로 묻는 아이마다 내 판단을 전해주었다. 한 번 만에 결정한 아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는 두세 번이나 도서관으로 왔다 갔다 하며 확인을 받았다.

책 선택이 끝나고 겨우 한숨 돌리고 앉았는데 이번에는 밑그림에 관한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책 제목도 똑같이 써야 돼요?”

“가로로 그려야 돼요?”

“바코드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은 어떻게 해요?”

“크게 그려야 돼요?”

“지은이 이름도 써야 돼요?”

질문도 가지가지였다. 그 때마다 고개를 끄덕여주거나 말로 답해주었다. 어떤 아이는 조금 손덜 때마다 들고 와서

“이렇게 그려도 돼요?”

하며 궁금증을 풀고 갔다.

색칠할 때가 되니 또 질문이 잇따랐다.

“색칠해도 돼요?”

“파스텔 써도 돼요?”

“색연필과 사인펜을 함께 써도 돼요?”

“하얀색은 안 칠해도 돼요?”

아이들은 정말 설 새 없이 질문을 했다. 수많은 질문을 받고 일일이 답해

주다 보니 이제 질문이 징그러워졌다. 몸에 힘이 빠지고 신경이 곤두섰다. 어젯밤에 잠을 못 이룬 탓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쯤에서 한 번 끊어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 아이들에게 말했다.

“지금부터 질문 금지다. 책 표지 그리기는 눈에 보이는 대로 똑같이 그려야 한다. 상상하는 그림이 아니다. 글이나 그림 모두 똑같이 그려야 하니 이제부터 질문하지 말고 완성할 때까지 조용히 그리자.”

말하면서 얼굴과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다. 이 때 내 모습을 누가 봤다면 아마 전쟁터에서 적군을 앞에 둔 군인 같았을 거다. 적어도 이 때만큼은 내가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실이 아니라 전투를 하는 전쟁터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과 전투를 벌이는 이정호 선생 말이다.

한 동안 내 바람이 이루어졌다. 굳은 표정으로 우두커니 서서 아이들을 바라보니 조용히 할 일을 하고 있었다. 그제야 비로소 아이들이 적군이 아니라 그냥 아이로 보였다. 휴~ 한숨이 나왔다. 그래도 궁금한 게 있을 텐데 참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아이들을 보며 가끔 엉뚱한 상상을 하곤 한다. 아이들이 물건을 담은 상자나 책상 위에 쌓여 있는 서류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상상 말이다. 물건이나 서류뭉치는 일 하는 사람이 갖다 놓은 곳에 가만히 있다. 누가 일부러 옮기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말없이 그 자리에 있다.

아이들은 상자나 서류뭉치와는 달라서 끊임없이 말하고 움직이는 살아있는 존재다. 결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만히 있어주지 않는다. 이런 생명체들이 가끔 버겁고 두려울 때가 있다. 교사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다. 아니, 교사가 아니라도 아이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가끔은 비슷한 생각을 해보았을 것이다.

지금부터 17년 전(1993년), 내가 양산 덕계초등학교에서 일할 때 5학년을 담임했는데 그 때 반 아이가 예순여섯 명이었다. 지금 우리 반 아이가 스물여섯 명이니 거의 세 배에 가까웠다. 참 힘들었던 시기였다. 숙제 검사를 한번 하기도 어렵고 한 문장이라도 무얼 써주어야 할 때는 지겹도록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그들은 통제에 익숙했다. 아이들이 교실에 뻑뻑하게 앉아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질서가 유지되었다. 내 설명을 잘 들었고 내가 시키는 대로 잘 따랐다. 큰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무덤덤하게 자기 할 일을 했다. 아이들이 마치 창고에 쌓인 상자 같았다. 또 교실이라는 커다란 기계 속의 한 부품 같기도 했다.

지금은 어떨까. 아이들은 즐겼지만 이들은 상자나 부품이 아니다. 아이 하

나하나가 완성된 기계다. 17년 전 교실에는 부품 같은 아이들이 가득했지만 지금은 모든 아이들이 완성된 기계가 되었다. 이 기계는 스스로 살아 움직인다. 나 혼자서 이 살아있는 기계들과 맞붙기는 힘들게 되었다.

이야기가 어려워졌다. 날씨도 안 좋고 몸도 피곤하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다. 내 욕심대로 아이들이 기계부품처럼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게 무슨 아이들이라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살아 있어야 아이들이ன 것이다. 그러면서 고통 보다는 기쁨을 더 많이 주는 아이들이 아닌가.

7월 9일 금요일 구름 속에 얹은 햇빛이 비추다.

겪은 일 쓰기 공부 (1)

쓰기 시간에 겪은 일 쓰기에 관해 공부했다. 그동안 겪은 일 쓰기 공부를 틈틈이 했는데도 아이들이 어려워해서 따로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겪은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주려고 ‘내 친구의 좋은 점 칭찬하기’라는 주제로 어제 쓴 글을 몇 편 읽었다.

양현수는 착합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나랑 같이 계곡에 갔는데 내가 미끄러져서 아파서 가고 있을 때 현수가 “랑희야 괜찮아”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또 수영장에서 씻을 때 차가운 물이었는데 너무 차가워서 울고 싶었는데 현수가 “랑희야 차가워? 조금만 참아. 나도 그 다음에 내 차례라서 나도 긴장돼”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때 현수는 나한테 좋은 친구인걸 알았습니다. 현수는 4, 5, 6학년 때도 같은 반이 되어서 더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강랑희)

손은서는 마음씨가 곱다. 저번에 태현이가 줄넘기로 내 머리를 쳤다. 그랬더니 은서가 “수인아, 괜찮아?”라고 말해주고 보건실에 데려다 주고 얼음을 머리에 갖다 주었다. 그때 은서가 말했다.

“태현이가 나를 때리지.”

그 때 나는 은서가 고마웠다.

“은서야 고마워” (정수인)

친구를 칭찬하는 글이라고 무조건 칭찬만 늘어놓기 보다는 겪었던 일을 사실대로 써놓으니 친구의 좋은 점이 또렷이 드러났다. 굳이 다른 설명이 필요 없게 되었다. 만약 겪은 일을 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다음과 같은 글이 나왔을지 모른다.

저는 민주를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는 친구들과 잘 어울려 싸우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잘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6학년이 되기 전엔 민주가 그렇게 착한 아이인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가 착한 아이라는 걸 알았으니 민주와 더욱 친하게 지내며 지혜에게 친구와 잘 어울리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경기도, 6학년)

이 글에는 ‘민주’에 대해 칭찬은 늘어놓았는데 도무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민주’란 아이가 착하다고 했는데 그 모습이 어렴풋하게 느껴질 뿐이

다. 까닭은 ‘민주’가 친구들과 잘 어울렸던 모습이나 어떤 일로 착한 일을 했는지 겪은 예를 들어 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겪은 일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글은 이렇게 다르다.

어젯밤에 4학년인 큰 딸이 학교에서 친구의 날 기념 글짓기를 한다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고 있었다. 도와준다고 해도 혼자서 알아본다고 인터넷을 뒤지더니 결국 나한테 손을 벌렸다. 내가 말했다.

“친구의 날 글이든 통일안보 글이든 네 경험이 가장 중요해. 니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친구와 있었던 일을 생각해봐.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겠지. 또 헤어질 뻔하다가도 이겨낸 일도 있겠지. 그런 걸 정리해서 쓰면 좋아. 억지로 지어내지 말고.”

이런저런 의견을 주고받은 끝에 우리는 글 쓸 차례를 정리했다. 우선 글을 처음, 가운데, 끝으로 나누고 각각 쓸 내용을 정했다.

처음 : 친구 간단히 소개하기, 어떻게 만난 친구인지, 현재 친구와 얼마나 우정이 깊은 지 쓰기

가운데 : 친구와 있었던 좋은 경험, 헤어질 뻔했던 일과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쓰기

끝 : 우정을 가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 지 친구와 사귀며 했던 생각쓰기

글을 어떻게 지어낼까 하고 혼자서 머리를 싸고 고민하던 딸아이가 이렇게 정리한 뒤 자신감이 생겼는지 싱글벙글한 표정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우리가 차례를 정하며 떠올린 것은 오로지 경험(겪은 일) 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아이들이 쓰는 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자기가 겪었던 일을 잘 쓰는 것이다. 겪은 일은 모든 글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된다. 이 재료를 놓치면 글쓰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아이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까닭도 이 좋은 재료를 놔두고 억지로 글을 지어내려 하기 때문이다.

친구 칭찬 글을 보며 겪은 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눈 뒤 쓸거리(글감) 고르기로 들어갔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쓸거리만 잘 골라도 글을 반쯤 쓴 것이나 다름없다. 오늘은 쓸거리 고르기까지 해보기로 했다.

“여러분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가지 일을 겪지요? 아침에 눈 뜨고 밤에 잠들 때까지 여러분한테 있었던 일은 모두 겪은 일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일을 골라 글로 쓰면 됩니다.”

내 말에 아이들이 멀뚱멀뚱하게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어서 설명했다.

“여러분이 본 일, 들은 일, 한 일 모두 겪은 일이에요. 하루를 지내다보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아침에 밥 먹고, 학교오고, 공차고, 공부하고, 점심 먹

고, 놀고, 학원가서 또 공부하고, 텔레비전 보고,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일이 모두 겪은 일이지요.”

칠판에 ‘겪은 일 = 본 일, 들은 일, 한 일’이라고 크게 썼다. 그리고 아무래도 말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예를 하나하나 찾았다. 학교 오다가 지나가는 개를 만난 일, 운동장에서 공놀이 했던 일, 공부시간에 선생님한테 잔소리 들은 일, 쉬는 시간에 딱지 치며 싸운 일, 급식 시간에 편식하는 아이를 본 일, ……. 이것도 칠판에 쓰고 아이들에게 물었다.

“그럼 이런 일 가운데 어떤 것을 글로 써야할까요?”

아이들 손이 쉽게 올라가지 않았다. 그럴 만도 했다. 수많은 일 가운데 어떤 것을 고르자면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아이들에게는 아직 그 기준이 없다.

“본 일, 들은 일, 한 일 가운데 하나를 쓰면 됩니다.”

“자기가 겪은 일 중에서 한 가지를 쓰면 돼요.”

곰곰이 생각하던 몇몇 아이들이 대답을 내놓긴 했지만 모두 맞지 않았다. 아직 겪은 일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겪은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보고 듣고 한 일이 모두 겪은 일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예를 들었다.

“아침에 친구와 걸어서 학교에 온 것은 한 일이니 겪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글로 쓸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자주 되풀이되니까요. 그런데 아침에 학교 오다가 어떤 아저씨가 허겁지겁 박물관으로 달려가는 걸 보았다면 어떨까요? 더구나 생긴 것도 특이하고 옷도 남들과 다르게 입은 사람이라면 자세히 살펴보았겠지요. 그 사람이 무얼 하는 지 숨어서 지켜보고 비밀을 알아냈다면 분명히 친한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싶겠지요. 이렇게 남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걸 글로 쓰면 됩니다.”

쓸거리 고르는 기준을 한 가지 이야기 한 셈이다. 칠판에 ‘(1)남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일’을 크게 썼다. 다시 아이들에게 물었다.

“그럼 최근에 겪은 일 중에 이렇게 남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일이 있나요? 발표해볼까요?”

아까와는 달리 이번에는 손이 쑥쑥 올라왔다. 손을 든 아이들 의견을 모두 들어보았다.

“쓰기시간에 선생님이 겪은 일 쓰기 설명하신 거요.” (미경)

“아침에 윤재랑 수인이랑 가연이랑 철봉에서 놀았던 거요.” (은서)

“화단에서 동협이랑 시현이가 싸운 거요.” (찬기)

“가연이랑 윤재랑 수인이랑 야구공 뺏기 한 거요.” (수민)

“아침에 시영문구에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영업한다는 종이 붙어 있는 거

본 거요.” (태현)

“저번 주에 스케이트장 갔는데 얼음 위에서 넘어진 일요.” (민서)

“아침에 학교 오는데 참새가 강아지가 싸놓은 똥을 먹고 있었어요.” (동협)

동협이 이야기에 아이들이 웃었다. 이 정도면 좋은 쓸거리를 찾은 셈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준을 더 이야기했다.

“생활하다 보면 남에게 들려줄 만한 일도 있지만 꼭꼭 숨기고 싶은 일도 있지요. 이런 일은 남에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글로 쓰면 참 좋아요.”

칠판에 ‘(2)꼭꼭 숨기고 싶은 일’을 (1) 아래에 잘 보이게 썼다. 그리고 물었다.

“남에게 꼭꼭 숨기고 싶은 일이 없나요?”

이번에는 현수만 손을 들었다.

“며칠 전에 시험지를 집에 가져갔잖아요. 근데 엄마가 ‘시험을 왜 이렇게 망쳤냐’고 했어요.”

“그래서 속상한데 남에게 말을 못했구나?”

“네.”

현수가 말한 것도 좋은 글감이라고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시계를 보니 벌써 쓰기 시간이 끝나버렸다. 2교시부터 두 시간 연속 전담수업이라서 여기서 이야기를 끊어야했다. 글쓰기까지 이어서 못 해서 아쉬웠다. 전담 시간이 끝나고 쓸거리를 한 가지씩 찾은 뒤 월요일까지 겪은 일을 한 편씩 쓰도록 했다.

겪은 일 쓰기는 모든 글쓰기의 기초라고 한다. 특히 글쓰기 첫 발을 내딛는 초등학생들에게 겪은 일 쓰기는 아기가 말을 배우는 것만큼 중요하다. 그 첫 발을 오늘 내딛은 셈이다. 다음 주 월요일에 어떤 글을 써올 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7월 12일 월요일 구름 덮인 하늘

월드컵 내기

출근하여 교실에 들어가니 수민이와 동협이가 내게 말했다.

“선생님, 시현이가 내기에 졌는데 딱지 안 줘요.”

정훈이와 찬기도 같은 말을 했다. 시현이는 남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만 화책만 열심히 보고 있었다.

아이들 말을 듣고 보니 금요일 점심 때 했던 내기가 생각났다. 이번 남아공 월드컵 결승에서 누가 이길까 하는 내기였다. 시현이는 네덜란드가 이긴다고 했고 동협이는 스페인이 이긴다고 했다. 누가 이기든 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한테 딱지 두 장을 주기로 했다.

처음에는 두 명에서 한 내기였는데 옆에 있던 수민이와 찬기, 정훈이도 내기에 끼었다. 그런데 네덜란드 편에는 시현이 혼자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스페인 편이었다.

“만약에 니가 이기면 여덟 장 받지만 지면 한꺼번에 여덟 장 줘야 되는데 괜찮나?”

시현이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넌지시 물어보니 시현이는 아무 거리낌 없이 좋다고 했다. 시현이는 분명히 네덜란드가 이긴다고 믿고 있었다.

아이들 말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벌어진 결승전에서 1대 0으로 스페인이 이겼다고 했다. 그러면 당연히 시현이가 딱지를 주는 게 맞다. 시현이에게 물었다.

“시현아, 딱지 안 줄거가?”

“안 가져왔어요. 내일 주려고요.”

만화에 빠져 있는 시현이는 고개도 들지 않고 답했다.

“시현이, 약속 지켜라.”

“오늘 딱지 받아야 해.”

아이들이 거세게 공격했지만 시현이는 관심이 전혀 없는 표정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심각한데 시현이는 느긋 그 자체였다.

“그냥 재미로 한 건데 안 받으면 안 되겠나?”

“안돼요. 꼭 받아야 돼요.”

내가 중재를 해봤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이 때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예전에 시현이가 공부시간에 딱지를 만지다가 나한테 뺏긴 적이 있었다. 책상을 뒤져보니 아니나 다를까 스무 장이 나왔다. 그 가운데 열 장을 꺼내 시현이한테 주며 아이들에게 여덟 장 나눠주고 나머지 두 장은 가지라고 했다.

시현이가 딱지를 두 장씩 나눠주자 내기를 걸었던 아이들이 아주 만족하는 표정을 지었다. 빗을 갠 시현이도 기분 좋은 지 만화책도 안 보고 딱지를 만지작거렸다.

잠시 그러고 있더니 시현이가 내게 부탁했다.

“선생님, 남은 딱지 제 거니까 다 주시면 안돼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놓으니 자기 보따리 내 놓으라고 한다더니 딱 그 모양이었다.

“안 돼. 남은 건 아직 니 벌이 끝나지 않아서 못 줘.”

이렇게 잘라 말하고 딱지를 다시 집어넣었다.

7월 13일 화요일 장맛비가 하루 종일 내림

진짜 눈물이 나요!

듣기말하기 시간에 아주 재미있는 활동을 했다.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의 말투, 표정, 몸짓 흉내 내기 활동이다. 아이들이 워낙 연극을 좋아해서 무척 기대가 되는 수업이었다.

먼저 <훈장님의 꿀단지>라는 만화영화를 보았다. 이 만화에 나오는 훈장님은 남이 볼 때는 소나기가 와도 팔자걸음으로 천천히 걷지만 혼자 있을 때는 손가락에 묻은 꿀까지 쪽쪽 빨아먹는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다. 아이들 몰래 꿀을 먹다가 들키자 독약이라고 거짓말도 했는데, 결국에는 꿀을 훔쳐 먹은 아이들의 거짓말에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가는 미련한 사람이기도 하다.

장면에 어울리는 훈장님 표정도 그려보고 전체 이야기 흐름도 알아본 다음 몇 가지 장면을 흉내 내보기로 했다. 교과서에는 다섯 가지 장면을 내놓고 있다. 각 장면마다 흉내 내고 싶은 사람은 나와서 연기하도록 했다. 예상대로였다. 너도나도 하겠다고 해서 교실이 시끄러웠지만 모두 하도록 했다. 어찌나 실감나게 하는 지 배꼽 잡는 장면도 몇 번이나 나왔다.

마지막 장면은 ‘덕재’라는 서당 아이가 훈장님 앞에서 흐느끼는 척 하는 대화 글이 나온다.

- 덕재 : (무릎을 꿇고 울상이 되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청소를 하다가 스승님께서 아끼시는 연적을 깨뜨리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먹으면 죽는다는 이 약을 다 먹었는데 죽지를 않아요. (흑흑) 스승님!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이 장면을 멋지게 연기하고 들어갔다. 그런데 구완이 차례에서 일이 생겼다. 구완이가 울상을 하며 어찌나 실감나게 말하던지 지켜보던 우리 구경꾼들마저 눈물이 날 듯 하였다. 그렇게 연기를 하던 구완이가 갑자기 바닥에 엎드리더니 울기 시작했다.

“선생님, 진짜 눈물이 나요. 흑흑.”

구완이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 연기가 아니었다. 어색하게 이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들이 하나 둘 키득거리자 곧 교실은 웃음바다가 됐다. 구완이는 연기를 그만 두고 자리로 들어갔다. 아직 눈물이 남았는지 구완이는 자리로 들어가서도 계속 눈물을 닦아내고 있었다.

수업을 마치며 아이들한테 말했다.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나오는 배우 중에 연기하다가 구완이처럼 진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만큼 실감나게 연기를 잘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실감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배우가 진짜 배우지요. 그러니까 구완이도 진짜 배우처럼 잘했습니다.”

아이들이 구완이한테 박수를 보내주었다. 구완이는 눈물을 멈추고 멀뚱멀뚱한 표정을 지어주었다. 구완이는 이 시간 전에 친 한자 시험에서 아는 문제를 한 문제 실수해서 90점 먹었다고 눈물을 펄펄 쏟더니 연기하다가 또 울어서 눈물로만 우리를 두 번이나 웃겨주었다.

7월 14일 수요일 장마구름이 하늘에 가득하다.

네잎 클로버 천국

어제부터 6학년들이 일제고사인 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른다고 그 불똥이 우리 3학년한테도 튀고 있다. 쉬는 시간에도 조용히 해야 하고 체육 수업도 실내수업으로 대체하거나 운동장에서 하더라도 큰 소리를 내거나 호루라기 소리를 내면 안 된다. 게다가 영어전담 선생님이 시험 보조 활동을 하는 바람에 영어수업도 담임이 대신하고 있다.

오늘은 1교시가 체육이고 2교시가 영어여서 두 시간 모두 정상 운영이 어렵게 됐다. 아이들은 체육 한다고 일찌감치 운동장으로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고민 끝에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체험학습을 하기로 했다. 두 시간이면 시간도 제법 넉넉했다.

교무실로 가서 ‘해반천 생태 관찰 및 김해박물관 문화재 관람’으로 교외학습 신청을 해놓고 아이들과 함께 해반천으로 갔다. 며칠 전 내린 장맛비로 불어난 물에 휩쓸린 갈대와 억새들이 허영계 진흙을 둘러싼 채 드러누워 있었다. 하지만 자전거도로 주변까지는 물이 불어나지 않은 듯 푸름을 뽐내고 있었다.

어떤 활동을 할지 생각하다가 우선 주변에 있는 토끼풀을 보고 네잎 클로버를 찾기로 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안내했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지금부터 주변에 있는 토끼풀을 살펴보고 네잎 클로버를 찾아야 됩니다. 찾는 사람에게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주겠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전혀 계획에 없던 것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와 버렸다. 많이 찾아봐야 두세 명 정도 찾겠지 하는 생각이 얼핏 들었다. 아이들은 아이스크림을 준다는 말에 산토끼처럼 짹짹 뛰며 주위로 흩어졌다.

시작한 지 일 분쯤 지났을까. 세 아이가 소리를 지르며 잇따라 내게 달려왔다.

“선생님! 네잎 클로버 찾았어요. 보세요.”

미경이, 진하, 용은이가 내민 잎을 확인해보니 진짜 네잎 클로버였다. 생각과는 달리 행운의 주인공들이 너무 빨리 그리고 한꺼번에 많이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웠다. 어쨌든 세 명은 네잎 클로버를 들고 ‘인증샷’을 찍었다. 가져온 네잎 클로버는 구완이 필통에 담았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너도 나도 네잎 클로버를 찾았다며 달려왔다. 정훈이, 한별이, 예진이, 현수, 찬기, ……. 아이들이 줄을 이었다. 서너 명 빼놓고는 다 찾아왔다. 입이 썩 벌어졌다.

“어떻게 찾았는데? 혹시 잎을 찢어서 온 거 아냐?”

“아니예요. 네잎 클로버 맞다구요. 세어보세요!”

“저 쪽에 많이 있다구요.”

내 의심에 아이들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가져온 잎을 불에 붙이고 ‘인증샷’을 찍을 때는 모두 싱글벙글한 표정을 지었다.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모양이었다.

일부러 찾으려면 그렇게도 보이지 않던 네잎 클로버를 아이들이 너무 쉽게 찾아와서 나도 찾아보기로 했다. 도로로 올라가는 계단을 따라 둘러보는데 하나가 눈에 띄었다. 펄쩍 손에 넣고 보니 놀랍게도 다섯 잎 클로버였다.

“야! 다섯 잎 클로버 땀다.”

나도 모르게 소리를 쳤더니 아이들이 몇 명 몰려왔다.

“어디 봐요. 어라? 진짜 다섯 개네.”

“나도 다섯 잎 클로버 따야지.”

아이들도 놀랍다는 표정으로 풀밭을 살피기 시작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평소에는 찾기 힘들다는 네 잎 클로버가 흔한 것도 놀라운데 다섯 잎 클로버까지 나왔으니 말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다섯 잎을 찾으라고 할 걸 그랬다. 조금 있으니 흥분된 목소리가 또 나를 불렀다.

“선생님, 저도 다섯 잎 클로버 땀어요.”

“저도 땀어요.”

용은이와 가연이가 달려왔다. 신기하게도 모두 다섯 잎이었다. 우리는 다섯 잎 클로버를 들고 믿기 힘든 ‘인증샷’을 또 찍었다.

이쯤에서 자리를 정리했다. 더 해야 할 까닭이 없었다. 마치 자갈밭에서 자갈 줍기 활동을 한 듯했다.

아무래도 첫 번째 ‘미션’은 아이들에겐 대성공이었지만 내겐 실패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제고사가 우리 아이들에게 엄청난 행운을 안겨준 셈이다. 두 번째 활동으로 ‘질긴 풀을 찾아라!’ 놀이를 한 뒤 김해박물관 앞 매점에 가서 모두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었다.

미션 두 개

김태현

오늘 6학년들이 시험을 쳐서 체육을 못 한다고 해반천으로 놀러갔다. 선생님이 미션을 주셨다. 미션은 네잎 클로버 찾기였다. 찾으면 아이스크림 한 개를 준다고 하셨다.

모두 기쁜 마음으로 찾으러 나갔다. 시간이 지나더니 애들이 많이 찾았다. 한별이형은 찾아서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었다. 그래서

“나도 도와주라.”

고 했다. 한별이 형은 그러겠다고 했다.

좀 있으니 애들이 우르르 찾았다고 하며 난장판이 됐다. 그래서 내가

“한별이 형, 아직 못 찾았어?”

라고 물어보니

“응, 아직.”

이라고 하며 두리번거렸다. 조금 있다가 한별이형이

“찾았다!”

고 했는데 민석이가 썩싸게 낚아챘다. 그래서 정훈이가

“한별이형 나 도와주고 있었거든?”

이라고 하니까 민석이가

“그럼, 같이 찾은 걸로 하자.”

고 하며 둘 다 사진 찍으러 갔다. 그래서 한별이형과 나도 같이 찾은 걸로 하고 갔다. 근데 민석이 형이

“한 사람만 된대.”

라고 해서 결국 포기했다.

찾다가 찾다가 너무 안 나와서 아이들한테

“다 찾았으면 나 도와줘.”

라고 했더니 전부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또 안 나와서

“누구 도와주실 분!”

했더니 예진이가 갑자기

“누구 네일 클로버 하나 줄까?”

해서 하나 받았다. 그리고 선생님한테 가서 인증샷을 찍었다.

선생님이 두 번째 미션을 주셨다. ‘질긴 풀 찾기’였다. 길이가 길든 짧은 상관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모두 다시 찾으러 갔다.

잠시 뒤 내가 조금 질긴 풀을 찾아서 수민이랑 대결했다. 내가 이겼는데 수민이가 찢어진 한 조각으로 다시 하자고 했다. 또 내가 이겼다. 수민이는 또 찢어진 걸로 다시 하자고 했다. 또 내가 이겼다. 그랬더니 수민이가 갔다. 그런데 수민이가 다른 풀로 또 하자고 했다. 그 때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수민이는 질긴 풀이 아니고 질긴 사람이다.’

그래서 했는데 또 내가 이겼다. 그리고 량희와 예진이가 왔다. 대결을 하자고 했다. 량희와 해서 먼저 이기고 예진이와 해서 또 이겼다. 그리고 또

다른 아이들과 해서 11연승이 되었다. 선생님이 수인이는 15연승이라서 1등이라고 했다.

선생님도 어떤 풀을 가지고 친구들과 대결을 했더니 선생님이 계속 이겼다. 그래서 일단 무시하고 수인리와 대결을 했더니 수인리가 이겼다. 그래서 다른 풀을 찾아서 선생님과 대결했더니 선생님이 이겼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풀은 질경이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질겨서 질경이라고 하셨다.

질경이를 찾아서 선생님과 대결을 했는데 선생님이 이기셨다. 나중에 민서가 질경이를 가지고 와서 선생님과 대결했는데 선생님을 이겼다. 그래서 민서가 1등이 되었다.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갔다.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진실게임을 하다가 학교로 돌아왔다.

해반천으로 간 날

문예진

학교 운동장에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런 말을 했다.

“지금 6학년이 시험을 치고 있어서 운동장에서 체육은 못하고 해반천과 박물관으로 가자.”

나는 즐거웠다. 해반천에 와서는

“1단계는 네잎 클로버를 주운 사람은 아이스크림 한 개를 사 준다.”

라고 하셨다.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네잎 클로버가 보이지 않았다. 네잎 클로버를 찾는 아이들은 좋겠다. 그래서 용은이한테

“네잎 클로버를 찾아주면 안돼?”

라고 물으니

“알았어.”

라고 말해주었다. 그 때 나는 용은이가 네잎 클로버를 찾는 선수라고 생각했다. 근데 갑자기 누가

“다섯 잎 클로버다!”

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가보니 진짜였다. 나도 찾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찾아봤다. 그 때 선생님이

“얘들아, 모여라. 이제 2단계는 질긴 풀을 찾아서 누가 이기는 지 대결해

보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질긴 풀을 찾아서 대결해보니 계속 내가 졌다. 조금 슬펐다. 근데 계속 선생님이 이겼다. 그 이유는 선생님이 쓴 풀은 ‘질경이’라고 했다. 어디에 있는 지 말해주어도 안 보이고 아이들이 다 따갔다.

그리고 선생님이 박물관 앞에 있는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셨다. 그래서 기분이 좋았는데 선생님이 시간이 없어서 박물관은 못 간다고 해서 섭섭했다. 하지만 그렇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서 제일 행복한 날이다.

7월 15일

겪은 일 쓰기 공부(2)

오후에 월요일 날 썼던 글과 주말에 숙제로 썼던 글을 살펴보고 본보기로 할 만한 글을 골랐다. 주말에 숙제로 냈던 것은 써온 아이가 몇 명 되지 않아 겨우 두 편을 골랐고, 수업 시간에 함께 썼던 글은 좋은 글이 제법 있어서 네 편을 골랐다. 우선 이 여섯 편으로 공부를 더 하고 나머지 글도 워드 작업을 해서 함께 볼 계획이다.

먼저 주말에 썼던 글 두 편이다. 수인이와 시현이 글이다. 수인이 글은 월요일에 아이들에게 읽어주었다.

아빠와 축구하기

정수인

토요일에 저녁을 먹고 아빠, 엄마, 언니, 나 우리 식구는 김해운동장에 운동하러 갔다. 엄마와 언니는 걷기운동을 하고, 아빠와 나는 잔디위에서 축구를 했다. 내가 아빠한테

“아빠, 내가 먼저 찰게.”

라고 말했다. 조금 차다가

“아빠, 왼쪽은 아빠 골대이고 오른쪽은 내 골대다. 알았지?”

라고 했다. 아빠는

“그래.”

라고 말했다.

내가 그만 공을 뺏겨서

“안돼!”

하고 소리를 쳤다. 아빠가 먼저 공을 넣었다.

나는 아빠를 쫓아가면서 공을 뺏으려고 힘차게 달렸지만 아빠가 또 공을 넣었다. 나는 그 때 잔디에 눕고 싶었는데 아빠가

“수인아, 잔디에 약 뿌렸다. 눕지 마!”

라고 해서 눕지는 못했다.

오 분 정도 쉬었다가 또 축구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서 2대 0으로 아빠가 이겼다. 아쉬웠다. 솔직히 내 생각에는 아빠가 봐줄 줄 알았다.

집에 갈 때 언니가

“야! 니 있잖아. 아빠랑 어쨌길래 ‘안돼!’ 라고 말했노? 창피스러웠다. 알겠나?”

라고 했다. 나는 그 말이 기분 나쁘게 들렸다.

하지만 아빠와 나랑 축구한 것이 좋았다. 다음에는 아빠와 엄마 대 언니와 나랑 편을 했으면 좋겠다. (2010년 7월 10일)

수인이 글에는 한 일과 듣고 말한 것이 잘 드러나 있다.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잘 썼다. 덧붙이거나 뺄 만한 내용도 없었다. 주고받은 말도 깔끔하게 잘 넣었다. 수인이 말로는 자기가 쓴 글을 엄마가 봐주고 수인이가 다시 고쳐 썼다고 한다. 엄마와 함께 해서 더 좋은 글이 나온 것 같았다.

또 한 편은 시현이가 쓴 글이다. 할머니 집에 가서 엄마, 동생과 축구 한 이야기다. 시현이는 엄마 도움 없이 혼자서 썼는데도 사실대로 잘 썼다.

배구공으로 축구하기

박시현

금요일에 경주에 있는 할머니 집에 왔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다. 근데 아빠는 토요일에 왔다. 바빠서 토요일 날도 회사에 갔다 왔다. 토, 일요일은 가끔 가는데 이번 달은 바쁘다나 뭐라나.

동생하고 축구하기로 했는데 엄마도 같이 하자고 했다. 그래서 저번에 마당에서 가지고 놀던 배구공을 찾았는데 어디 있는지 생각이 안 났다. 그런데 엄마가 창고 옆에 있는 헛간 같은데서 찾았다.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을 한꺼번에 찾았다. 배구공은 있는 줄 알았는데 축구공, 농구공은 몰랐다.

근데 축구공으로 하려니까 바람이 너무 빠져서 내가

“이건 바람이 너무 빠져서 못 쓰겠다.”

고 했다. 농구공은 너무 무거워서 못했다. 할 수 없이 배구공으로 했다.

우리는 할머니 집 마당에서 축구를 했다. 내가 골키퍼, 동생이 공격을 했다. 엄마는 공이 오면 받아서 패스만 했다.

창고 있는데 열 번 중 여덟 번 정도 공이 할머니 밭으로 갔다. 내가 잘 못 차서 그런지 계속 그 쪽으로 갔다. 땅에서 차면 그 쪽으로 가지 않았는데 들고 차면 ‘휘잉~’ 하고 밭으로 갔다. 엄마가 나한테 말했다.

“니는 왜 차면 그쪽으로 가냐? 조심성 있게 차라.”

나는 “응.” 이라고 했다.

조금 희한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다. 이렇게 두 시간 정도 했다. 엄마도 피곤해하고 너무 오래 해서 그만두었다. 재미있었다. (7월 11일 일요일)

일)

이 글은 시현이와 이야기를 나누며 몇 군데 고친 글이다. 내가 읽어보고 펴뜩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주로 물어보고 고쳤다. 시현이 글도 수인이 글처럼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잘 쓴 글이다.

다음은 월요일에 함께 썼던 글이다. 숙제로 글 써오라고 하면 대개 절반도 안 해오지만 이렇게 함께 쓰니 모든 아이들의 글을 다 받을 수 있어서 좋았다. 또 글 쓸 때는 무엇보다 조용한 분위기가 중요한데 교실에서는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조용히 겪은 일을 잘 떠올려야 좋은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글을 받아보니 예상대로 좋은 글이 많이 눈에 띄었다. 그 중에서 네 편을 골라봤다.

국속의 벌레

손미경

어제 저녁에 외식을 하러 가서 뼈다귀 탕과 밥을 먹었다. 뼈다귀 탕의 고기를 다 먹고 나서 국물을 밑에서부터 한 번 뒤집으니까 이상한 것이 나왔다. 자세히 보니 벌레였다. 내가 보기에는 노린재 같았다. 세 쌍의 다리와 더듬이가 있었다. 엄마한테 말하니까 웃으셨다.

그런데 아빠가 국을 보고나서는 막 중얼중얼 거리셨다. 엄마가 아빠한테 혼을 내고 나서는 나보고

“국물만 조금 더 줄까?”

라고 했다. 내가

“응.”

하니깐 엄마가 아줌마를 불러서

“여기 벌레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국물 조금만 더 주세요.”

라고 말하셨다.

국물이 나오는 동안 나는 엄마 국물을 먹었다. (2010년 7월 12일)

미경이 글은 짧지만 다른 사람에게 들려줄 만한 경험을 군더더기 없이 잘 썼다. 과학 시간에 곤충에 관해서 배운 덕분에 엄마한테 ‘세 쌍의 다리와 더듬이가 있었다’고 설명한 부분이 재미있었다. 끝부분에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지만 이만하면 잘 썼다 싶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밑줄 친 내용은 미경이와 함께 다음과 같이 고쳐보았다.

그런데 아빠가 국을 보고나서는
“아, 이 집은 오지 말아야지. 나쁘네.”
라고 하셨다. 엄마가 아빠 말을 듣고
“좀! 그만.”
이라고 혼을 내셨다. 그리고 나보고

두 번째 글은 경민이가 쓴 글이다. 아침에 겪었던 속상했던 일을 썼다. 쓰기 직전에 겪은 일이어서 주고받은 말과 감정이 잘 느껴지는 글이다. 문장도 깔끔하게 잘 썼다. 줄 나누기 말고는 손대지 않았다.

아침 왕따

남경민

아침에 학원 차에서 내려서 친구 유진이라고 손을 잡고 가려고 했는데 이경이가 손을 못 잡게 했다. 그래서 혼자 걸어가는 지언이라고 가려고 했는데 또 이경이가 같이 못 가게 했다. 할 수 없이 유진이라고 가려고 했다. 그런데 계속 이경이가 못 가게 해서 혼자 가려고 했는데 이경이가
“너가 내 말을 잘 안 듣잖아.”

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왜 니 말을 들어야 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이경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가고 있는데 유진이가

“나 경민이 싫다.”

고 말했다.

나는 왜 친구들에게 왕따 당할까 하고 생각하니까 이경이에게 이러고 싶었다.

“야, 윤이경! 내가 왜 니 말을 들어야 돼? 니가 어른이야 대장이야? 키 크면 대장이야?”

그런데 이 말을 못했다. 용기를 내면 되는데 이 바보 남경민이라고 내가 나에게 말하고 싶다. 내가 후회를 한다. 용기를 내어 말 못한 게.
(2010년 7월 12일)

다음 글을 쓴 태현이는 주고받은 말을 잘 살려 썼다. 처음 쓴 제목이 ‘아

침의 정훈이'였는데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아침에 만난 정훈이'라고 고쳤다. '여자가 되고 싶은 정훈이'로 하든지 '여자'라는 말을 넣자고 할 걸 그랬다. 글머리에 게임 이야기 했던 것을 네 줄 뺐다.

아침에 만난 정훈이

김태현

학교 가는 길에 정훈이를 만났다. 걸어가는데 정훈이가 게임에서 뭐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계속 말했다. 정훈이는 겪은 일 쓰기보다 겪은 일 말하기를 더 잘한다고 생각했다.

이야기 하면서 정훈이가 여자처럼 '오빠' 라고 말했다. 정훈이는 여자가 되고 싶다고 했다. 왜냐고 물어보니 군대 안 가도 된다고 했다.

“그럼 다시 태어나서 여자 될래?”

라고 했더니 정훈이가

“응.”

이라고 했다. 그래서

“여자 한 살 되렴.”

하니까 정훈이가

“그건 싫어.”

라고 했다. 나는 한 살이 좋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해도 되기 때문이다. 내가

“여자 열 살?”

이라고 했더니 정훈이가 기쁜 목소리로

“응.”

이라고 외쳤다.

“그럼 성폭력 많이 당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했다. 왜냐하면 성폭력 하는 사람들이 여자 아이를 많이 해치기 때문이다. 김길태도 여자를 해치고 이번에 성폭력한 사람도 여자를 해쳤기 때문이다.

정훈이가 여자처럼 안 했으면 좋겠다. (2010년 7월 12일)

아래 글을 쓴 예진이는 마음이 여린 아이다. 무슨 일이든지 대충 생각하고 빨리 하려고 하지 않고 차근차근 할 일을 한다. 또 글 쓸 때도 가는 실을 한 올 한 올 엮어서 옷감을 만들듯 생각 조각을 하나하나 모아 담아 쓴다. 이

글도 마치 꿈속에서 겪었던 일을 쓴 것 같다. 글에서 ‘2명’을 ‘두 명’으로, ‘만질려고’를 ‘만지려고’로 고쳤다.

사람 엄마

문예진

아침에 엄마가 창문을 열어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이 내보고
“예진아, 일어나.”

라고 하는 것 같았다.

바람이 부탁하는 것 같아서 힘이 없어도 일어서서 화장실까지 가서 씻고 밥을 먹었다. 꼭 바람이 엄마 같아서 엄마가 두 명인 것 같다.

사람 엄마? 바람 엄마? 좀 이상하다. 바람 엄마를 만지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만져지지 않았다.

사람 엄마를 만지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이번엔 만져졌다. 역시 사람 엄마가 좋다. (2010년 7월 12일)

다른 글도 워드 작업이 끝나면 함께 보겠지만 우선 이 네 편을 보기 좋게 편집했다. 농사를 지으려면 씨앗이 필요하듯 앞으로 겪은 일 쓰기에 이 글들이 좋은 씨앗이 될 듯하다.

7월 16일 금요일 장맛비가 장맛비처럼 내림
식탁에서 나눈 이야기

급식소에서 밥을 먹으며 함께 앉은 아이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오늘 나와 함께 한 아이는 수민이, 동협이, 시현이, 정훈이, 한별이 이렇게 남학생 다섯 명이다.

먼저 수민이한테 물었다.

“수민아, 너희 아빠 몇 살이세요?”

“서른여섯요.”

“그럼 엄마는 서른 셋?”

“엄마는 서른일곱인데요.”

“아니, 그럼 엄마가 연상이네?”

“네.”

부모님 나이는 가정환경조사서에서 보고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물어본 것이다.

“그러면 엄마가 연상이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엄마가 아빠보고 ‘남편! 이거 좀 해줄래?’ 이렇게 말하고 아빠는 ‘부인님, 이거 좀 해주실래요?’ 이렇게 말하겠네?”

“아닌데요. 집에서는 그냥 같은 나이로 하는데요.”

수민이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분명히 엄마가 한 살 더 많다고 했잖아.”

“그런데 집에서는 똑같이 각자 할 일을 알아서 해요.”

수민이는 뭐 그리 시시콜콜한 질문을 하느냐는 듯 나를 힐끗 바라보았다. 대화가 어색하다 싶었는데 마침 정훈이가 내게 말했다.

“선생님, 이번 방학 때는 숙제 하나도 안 할 거예요. 일기만 쓸 거예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다. 아무 것도 안 한다고 말할 줄 알았는데 일기라도 써온다니 말이다.

“정훈아, 진짜 니가 일기를 잘 써온다면 아무 숙제도 안 내줄게.”

“할 수 있어요.”

“좋아. 믿어도 되는 거지?”

“네.”

정말 믿어도 될지 모르겠다. 아니,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학기에 정훈이한테 들었던 말 가운데 가장 값진 소리였기 때문이다.

우리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동협이도 귀가 솔깃했던지 끼어들었다.

“저도 일기만 쓰고 싶어요.”

“안 돼.”

내가 잘라 말하자 동협이 눈이 동그래졌다.

“정훈이는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넌 안돼.”

“왜요?”

“내 생각에 동협이는 이번 방학 때 수학 공부를 좀 더해야겠어. 일기도 쓰고 수학공부도 해야 돼.”

“그럼 다른 숙제는 안 해도 되는 거죠. 수학 할래요.”

“알았다.”

동협이는 아주 만족스런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도 아주 만족스러웠다. 일기에다 수학까지 해오면 더 무엇을 바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시현이와 한별이는 가끔 고개만 돌릴 뿐 말없이 밥만 먹고 있었다. 먼저 시현이한테 말을 걸었다.

“시현아, 어제 오후에 어디 가는 길이었노?”

어제 퇴근길에 자전거를 타고 삼계로 가다가 해반천에서 시현이네 식구들을 보았다. 그 이야기다.

“운동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무슨 운동을 하노?”

“걷기 운동요.”

시현이는 대답을 짧게 끊어서 했다. 표정 변화도 없고 뭔가 귀찮다는 느낌이다.

“너희 엄마가 내 봤다 이야기 안 하시더나?”

“네.”

“진짜 안했다구?”

“했어요.”

“뭐라든?”

“그냥 봤다고 하던데요.”

내가 바라던 대답은 ‘너희 선생님 자전거 타는 선수 같더라. 멋있더라.’ 이런 건데 시현이 말로는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시현이는 이야기 나누는 데는 관심이 없고 아까 보던 만화책을 생각하는 게 틀림없었다.

시현이를 보내고 혼자 남은 한별이를 가까이 오게 했다. 한별이는 편식이 심하다. 특히 콩을 아주 싫어한다. 그래도 오늘은 콩이 없어서 밥은 거의 다 비웠다.

“한별아, 요즘 다리 괜찮나?”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더노?”

“그냥 물리치료만 받는데요.”

“그래도 의사선생님이 뭐라고 했을 거 아냐.”

“.....”

한별이 말은 상담은 어머니가 하고 자신은 물리치료만 받아서 모르겠다는 뜻인 듯했다. 좀 더 이야기를 나눴다.

“보조기기 땀나?”

“네. 저 땀 수 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 할 텐데.”

“저번에도 운동장에서 뛰었어요.”

이 말을 하며 한별이의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입술과 코 사이가 붉어졌다. 그 동안 다리가 불편해서 체육도 전혀 못했는데 이제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달라는 뜻인 것 같았다. 이제 곧 방학이어서 2학기가 되면 같이 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한별이를 끝으로 이야기가 모두 끝났다. 주위를 둘러보니 급식소 안에는 4학년 몇 명만 남아 있고 모두 갔다. 요일마다 아이들을 나눠놓은 덕분에 밥도 같이 먹고 억지로라도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7월 17일 토요일 아침에 비가 내림

에프킬라 사건

아침에 교실로 들어가니 아이들이 난리였다. 수인이가 나팔꽃에 에프킬라를 뿌렸다는 것이다. 특히 나팔꽃 가까이 있던 은서는 냄새가 많이 났던지 표정이 가장 많이 일그러져 있었다. 아이들은 수인이가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몰아붙이고 있었다. 뭔가 오해가 있는 듯해서 물어보았다.

“수인아, 에프킬라 왜 가져왔노?”

“쓰레기봉지에 날파리가 많아서 죽이려고요.”

수인이가 가방에서 에프킬라 통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러자 아이들이 또 비명을 질렀다.

“그럼 나팔꽃에는 왜 뿌렸노?”

“나팔꽃에 이상한 벌레가 있어서요.”

더 물어보지 않아도 어떻게 된 일인지 훤히 보였다. 수인이는 교실에 있는 벌레를 잡으려고 일부러 준비해서 뿌린 건데 아이들은 그 냄새가 싫었던 것이다.

“애들아. 수인이가 나쁜 짓 하려고 들고 온 것도 아닌데 너무 그러지 마라. 내가 보기에 쓰레기봉지에 날파리가 있어서 에프킬라를 들고 온 수인이가 오히려 대단하게 보인다.”

이러니 아무 말이 없었다. 이어서 한 고삐 더 잡으며 말했다.

“그리고 쓰레기봉지에 왜 날파리가 있는 지 알아? 너희들이 달콤한 음식을 먹다가 버려놓으니까 그거 먹으려고 오는 거 아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으려면 그런 것부터 버리지 마라.”

아이들 입단속을 해놓고 수인이를 보니 다행히 아무 일 없었다는 표정이었다. 늘 자신 있게 생활하는 수인이가 참 대견해보였다. 그래도 아이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뿌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싶었다. 수인이가 이 점은 꼭 기억하면 좋겠다.

7월 19일 월요일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다. 비는 오지 않을 듯.

선생님은 왜 대충 읽어요?

읽기 시간에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 독서감상문 몇 편을 읽었다. 아이들이 차례로 돌아가며 조금씩 읽었는데 마지막 부분은 수지가 읽었다.

수지가 읽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 책에 있는 글자와 다르게 읽는 부분이 몇 군데 있었다. 예를 들어 ‘도토리나무가’를 ‘도토리나무를’으로 읽고, ‘떨어진 곳까지’는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읽었다. 그 때마다 다시 읽으라고 하니 수지가 고쳐 읽었다.

그렇게 서너 번 고쳐 읽었는데 그만 수지가 울먹였다. 다른 아이들 보기에 부끄러웠던 모양이었다. 앞에 앉은 수인이가 그런 자기를 본다고 버럭 화까지 냈다. 그러는 수지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말했다.

“수지야, 글자 몇 개 틀리게 읽었다고 부끄러워하면 안돼. 틀리면 고치면 되는 거지.”

자신은 안 틀렸다는 듯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는 아이들에게도 말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야. 대충 보고 상상해서 읽다가 얼마나 많이 틀려. 시험 칠 때도 문제를 대충 읽고 푸니까 틀리는 문제가 많았잖아. 있는 그대로 보고 읽는 연습이 필요해.”

그러면서 책 읽을 때 가끔은 소리 내어 읽어야 하고 얼마나 아빠한테도 소리 내어 읽어달라고 부탁하라는 등 잔소리를 늘어놓고 다시 책을 펴면서 말했다.

“자, 빨간 두건 아저씨 다시 펴 보자.”

그러자 바로 아이들한테 공격이 들어왔다.

“선생님은 왜 대충 읽어요?”

“상상하지 말라면서요?”

아차 싶었다. 책에는 ‘빨간 두건 아저씨’가 아니라 ‘빨간 두건 아씨께’로 되어 있었다. 아이들한테 딱 걸린 셈이었다.

“거 봐라. 대충 보고 읽으니까 여자인 아씨가 아저씨로 변하제?”

아이들이 웃었다. 농담으로 넘어가주는 아이들을 보며 속으로 ‘휴~’ 한숨을 내쉬었다.

“선생님, ‘아저씨’가 아니라 ‘아씨께’로 다시 읽어보세요. 있는 그대로 읽어야지요. 상상하지 말고요.”

만약 아이들이 이랬다면 그 부끄러움을 어찌 견뎌을까? 그제야 진짜 수지 마음이 이해가 됐다.

수업을 마치고 음악실로 가는 수지를 불렀다. 아직 눈가에 눈물이 젖어 있었다.

“수지야, 아까 왜 울었노? 봐라. 선생님도 실수 하제? 그러니까 틀린 거를 절대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 진짜 부끄러운 거는 틀렸는데 안 고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해보자.”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교실을 나섰다. 미안했다.